

보험동향 2012년 겨울호

Ⅰ 총괄	윤성훈 (선임연구위원)
Ⅰ 경제금융 동향	경제총괄 전용식 (연구위원) 세계경제 이정환 (선임연구위원) 국내경제 채원영 (연구위원) 금융경제 이경아 (연구위원)
Ⅰ 국내보험시장 동향	보험총괄 전용식 (연구위원) 생명보험 김세중 (선임연구위원) 손해보험 최 원 (선임연구위원) 이경아 (연구위원)
Ⅰ 해외보험시장 동향	미 국 김세중 (선임연구위원) 영 국 이정환 (선임연구위원) 일 본 박정희 (선임연구위원) 중 국 이소양 (연구위원)

■ 목차

I. 테마진단

일본 보험산업의 저금리 경험과 시사점 / 1

OECD 국가의 퇴직연금감독체계 특징과 시사점 / 17

II. 경제금융 동향

1. 세계경제 / 40

2. 국내경제 / 59

3. 금융경제 / 70

III. 국내보험시장 동향

1. 보험산업 총괄 / 75

2. 생명보험 / 79

3. 손해보험 / 99

IV. 해외보험시장 동향

1. 미국 동향 / 125

2. 영국 동향 / 132

3. 일본 동향 / 139

4. 중국 동향 / 147

V. 국내외 보험·금융 주요 뉴스 / 158

VI. 통계표 / 171

I. 테마진단

◆ 일본 보험산업의 저금리 경험과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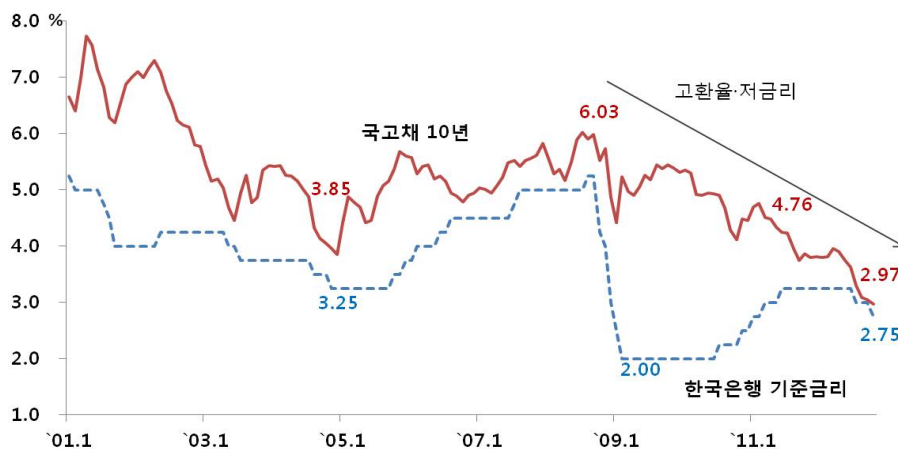
김해식 연구위원

1. 검토 배경

■ 올해 상반기 기준금리의 추가 인하 가능성이 예상되고 있어 장기금리의 하락 추세는 단기 반등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시중금리(국채 10년)는 6%대에서 2%대로 하락한 반면, 환율은 소규모 경제의 특성상 위기 후 상승하다가 최근 들어 하락 추세로 반전됨.
- 경제성장 전망의 하향 조정으로 인한 세수 감소와 재정지출수요 증가, 환율 하락 등으로 기준금리 추가 인하 가능성이 높아 저금리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그림 1〉 기준금리 및 장기 시중금리 추이



자료: 한국은행 ECOS.

■ 최근의 국내 경제 상황은 1990년대 이후 전개된 일본의 경제 상황과 유사하여 일본 보험 산업이 경험한 저금리 영향이 국내 보험산업에도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 이에 일부에서는 장기 저성장 국면을 맞이하여 국내 보험시장에서도 저금리로 인한 자산 운용수익률 하락과 이차역마진으로 부실한 보험회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보임.
- 실제로 일본 보험산업은 1990년 이후 전개된 저금리 영향으로 1997년부터 2001년까지 5년간 7개 생명보험회사와 1개 손해보험회사가 파산함.

■ 본고는 일본에서 전개된 저금리 환경과 일본 보험회사들의 저금리 대응을 살펴봄으로써 국내 보험회사의 저금리 대응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먼저 일본 경제의 저금리와 자산 버블을 초래한 1980년대 당시의 세계 경제 및 일본 경제를 살펴보고,
- 이후 일본 보험회사들의 저금리 대응이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파산 보험회사와 생존 보험회사 간의 저금리 대응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함.

2. 일본의 저환율 · 저금리 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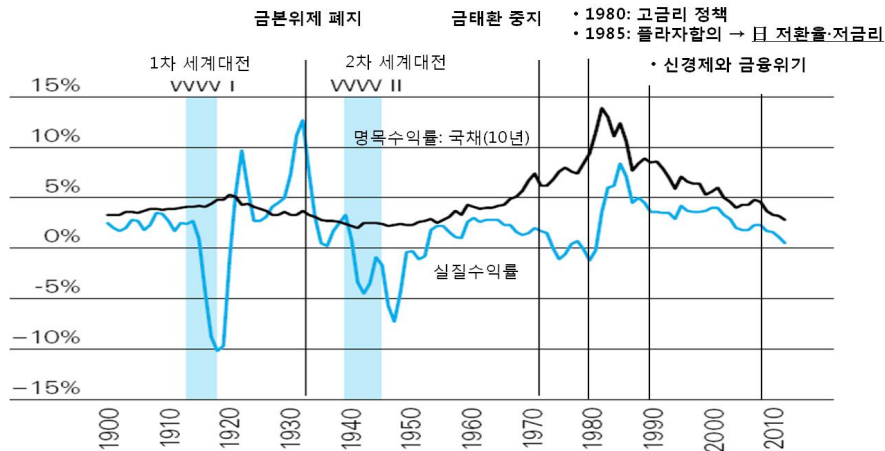
가. 플라자 합의와 엔-달러 환율 하락

■ 세계대전과 베트남전쟁을 거치면서 각국 중앙은행이 화폐를 금으로 교환해주는 금본위제나 미국의 금태환 체제가 모두 중단되면서 인플레이션과 경기침체에 대응하는 수단으로서 금리정책은 재정정책과 함께 중요한 정책수단이 되어 왔음.

- 1970년대 세계 경제는 오일쇼크로 불리는 두 차례의 원유가 급등으로 경기침체 속에서도 물가가 상승하는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을 경험함.
- 당시 미국은 유가 급등에 따른 공급 측면의 물가상승에 대응하여 정책금리를 두 자리수까지 높이는 고금리 정책으로 대응하는 한편, 물가가 안정되기 시작한 1980년대 후반부터는 금리 인하로 경기침체에 대응함.
- 다른 한편으로 미국은 재정 및 무역 부문의 쌍둥이 적자에 대응하여 1985년 다른 선진

국들과 함께 무역흑자국인 일본에 일방적으로 엔화 절상을 요구하는 플라자 합의¹⁾를 성사시킴.

〈그림 2〉 미국의 장기금리(국채 10년) 추이와 주요 경제사건



자료: Swiss Re(2012) 수정 인용.

나. 일본의 저금리 정책과 자산 버블 형성

■ 1985년 일본의 엔화 가치가 모든 통화에 대해 일방적으로 절상되는 플라자 합의로 인해 엔-달러 환율은 플라자 합의 이전 수준의 50%에 불과한 수준으로 급락함.

○ 엔-달러 환율은 1985년 달러당 260엔에서 1987년 말에는 달러당 123엔 수준으로 빠르게 하락하면서²⁾ 일본은 구조조정 대신 저금리 정책으로 엔-달러 환율 급락에 대응함.

■ 플라자 합의 이전에도 일본의 시중금리는 하락 추이를 이어왔으나 엔화 강세를 계기로 일본은 저금리 정책을 통해 서비스업 등 내수산업의 성장을 촉진함.

○ 엔-달러 환율의 급락으로 해외투자자산의 가치는 하락하였고 수출이 차지하는 경제 내 비중도 감소하자 일본은 저금리 정책으로 내수경기 활성화를 도모함.

1) 1985년 9월 22일 미국, 프랑스, 영국, 독일, 일본의 5개국(G5)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가 모여 일본 엔화의 절상을 미국 플라자호텔에서 합의함.

2) 박성욱(2001).

- 막대한 무역흑자와 저금리로 풍부해진 유동성이 내수시장의 성장을 견인하면서 서비스업 등 내수부문이 외형적으로 급성장함.
- 한편, 해외투자를 대신한 국내 투자가 늘면서 자산의 가격도 동반 상승하기 시작하여 플라자 합의 이후의 제1차 저금리 기간(1985년부터 1989년) 동안 주가와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였고 시장에서는 부동산 불패 신화와 고위험 대출 및 투기가 성행함.

〈그림 3〉 플라자 합의 이후 일본의 자산가격 급등



자료: 박상현(2010).

■ 그러나 1990년 주가 급락과 함께 1991년 기습적으로 발표된 금리 인상으로 인하여 금융기관의 자금공급 축소와 대출 회수에 따른 부동산 투매로 자산 가격이 급락하였고, 이후 일본 경제는 디플레이션과 저금리가 반복되는 악순환에 빠짐.³⁾

- 주가지수는 1989년 34,059에서 1991년 24,298, 1995년에는 17,355로 하락함.
- 부동산 가치는 1989년에서 2006년까지 최대 80%의 하락 폭을 보이면서 담보 부동산 가치의 80%에서 100%까지 제공된 대출은 부동산 가격의 하락 폭만큼 고스란히 금융기관이 보유한 대출자산의 부실로 이어짐.

3) 박성욱(2001); Kato(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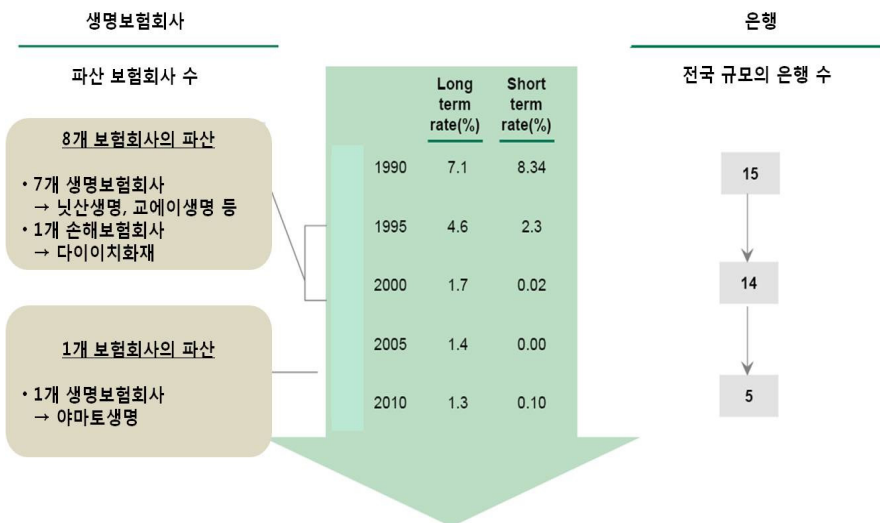
3. 저금리와 보험회사 파산

가. 낙관적 시나리오에 기초한 외형성장전략

■ 1991년 버블 붕괴 이후 제2차 저금리 기간을 거치면서 1997년 닛산생명을 시작으로 2001년 도쿄생명에 이르기까지 8개 보험회사가 연이어 파산하게 됨.

- 버블 붕괴 이후 제로 수준의 단기금리와 2% 이하의 장기금리가 지속되는 제2차 저금리 환경에서 생명보험 7개사와 손해보험 1개사가 파산함.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에는 야마토 생명이 해외자산의 부실로 파산함.

〈그림 4〉 일본의 장단기 금리 추이와 보험회사의 파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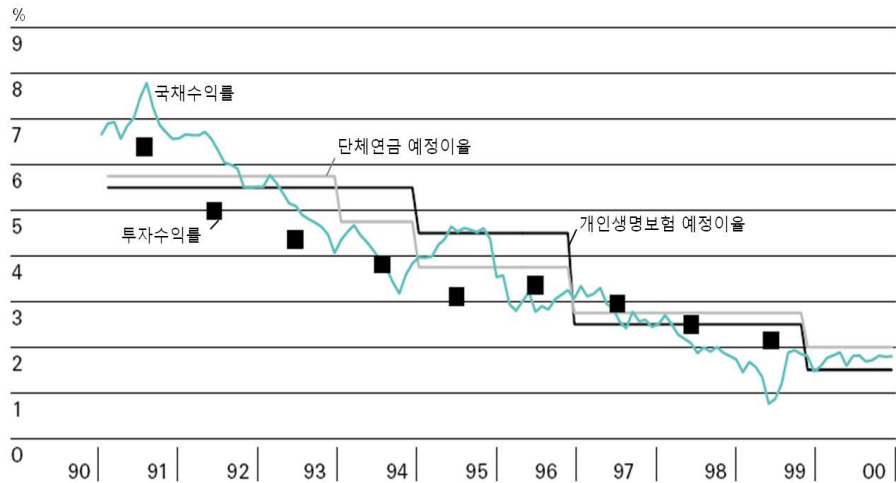


자료: Kato(2012).

■ 일본 보험회사의 파산을 초래한 외형상 원인은 이차역마진과 부실이 드러난 보험회사의 해지율 급등으로 인한 유동성 부족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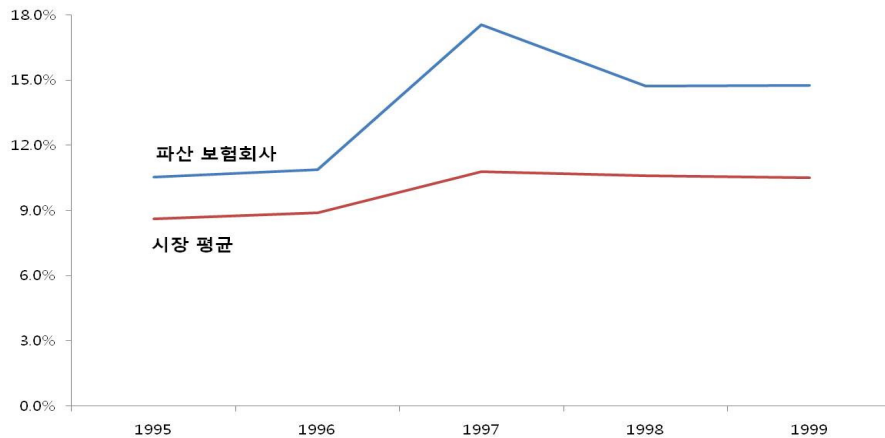
- 고금리 정책이 시행된 자산 버블 붕괴기 이후의 저금리 기간에 보험회사들은 이차역마진을 경험하면서 재무건전성이 악화됨.
- 한편, 닛산생명의 파산 이후 부실 보험회사에 대한 해지쇄도로 인한 해지율 급등과 유동성 부족도 파산을 초래한 원인의 하나로 나타남.

〈그림 5〉 일본 생명보험의 이차역마진: 예정이율과 자산운용수익률



자료: Swiss Re(2000).

〈그림 6〉 일본 생명보험(개인보험)의 해지율 추이



자료: 박성욱(2001).

■ 그러나 파산 보험회사의 부실은 근본적으로 낙관적 시나리오에 기초한 외형성장전략과 자산운용에 치중한 저금리 대응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1980년대 저금리 여건이 조성되고 있었음에도 파산 보험회사들은 저축성상품 판매를 통한 외형성장전략을 유지함.

○ 닛산생명(1997)과 다이이치화재(2000)의 파산은 외형의 급성장이 저금리기에 파산으

로 이어지는 전형적인 사례에 속함.⁴⁾

- 더구나 닛산생명과 다이이치화재는 확정 이자를 지급하는 저축성보험(연금이나 적립형 손해보험) 중심의 외형성장전략으로 나타난 저축성상품에 집중된 상품구성이 저금리기에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 유인으로 작용한 대표적인 사례임.

〈표 1〉 닛산생명과 다이이치화재의 외형성장전략과 상품구성

구분	성장률	상품구성
닛산생명 (1988)	119.5%	72.1% (개인연금)
생명보험시장 평균	21.4%	9.6%
다이이치화재 (1992)	12.2%	66.6% (적립형 장기)
손해보험시장 평균	1.5%	26.5%

주: 1) 생명보험 성장률은 보험가입금액 기준, 상품구성비는 금리확정형 연금보험의 보험료 비중임.

2) 손해보험 성장률은 보험료 기준, 상품구성비는 적립형 장기보험의 보험료 비중임.

자료: 박성욱(2001).

나. 자산운용 중심의 이차역마진 대응

■ 일본의 자산운용(투자)을 통한 저금리 대응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지만 부채(상품구성)의 조정 없는 단기적인 대응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며, 불리한 시나리오를 상정한 위험관리가 없는 상황에서는 이차역마진이 파산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임.

- 자산 버블 붕괴 이후 자산시장이 회복되지 못하면서 그동안 쌓아두었던 자산 평가의 훼손되는 것은 물론이고 투자수익률이 예정이율보다 낮아지면서 이차역마진 손실은 불가피함.
- 문제는 부채의 조정 없이 자산운용으로 대응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고, 더구나 일부 파산 보험회사에서는 위험자산투자로 인한 자산운용 부문의 부실을 은폐할 목적으로 자산매각을 가장한 자금차입계약이 이뤄지는 등 불투명한 회계도 나타남.⁵⁾

4) 닛산생명은 1987년 창업 80주년을 계기로 적극적인 시장점유율 순위 상승을 추구함. 박성욱(2001).

5) 당시 회계관행이 거래의 실질이 아니라 형식을 갖추면 동일한 회계처리를 인정해주는 점을 이용해 보험회사들은 부실채권을 매각하고 만기에 이를 되사주는 계약, 이른바 손실선송상품을 통해 부실자산을 은닉한 것으로 나타남.

- 이차역마진의 근본적인 해결은 자산운용과 더불어 상품구성의 재조정에 있으나 파산 보험회사들은 이러한 자산과 부채의 종합적 대응이 부족했거나 시기적으로 대응이 늦었던 것으로 나타남.

〈표 2〉 일본 보험회사¹⁾의 파산 원인

보험회사	파산 시기	이차 역마진	해지율 급등	계열사 자원	대출 부정 등	계약이전 / 매각	참고
닛산생명	1997	○	○			Aoba	
도호생명	1999	○	○		○	GE Edison	
다이어치화재	2000	○	○		○	청산	· 상호출자협정 ¹⁾ · 부실 은닉 ²⁾
다이하쿠생명	2000	○	○		○	Manulife	· 부실 은닉 ²⁾
다이쇼생명	2000	○	○	○	○	Yamato	· Yamato 파산
치요다생명	2000	○	○	○	○	AIG	
교에이생명	2000	○	○	○		Prudential	· 상호출자협정 ³⁾ · 부실 은닉 ²⁾
도쿄생명	2001	○	○			T&D ⁴⁾	

주: 1) 2001년 타이세이화재도 파산했으나 저금리가 아닌 9.11테러에 의한 항공재보험이 원인.

2) 주로 손실선송상품이라 불리는 거래를 통해 부실채권을 은닉.

3) 다이어치화재와 교에이생명은 모두 상호회사로서 상호출자협정을 통해 재무건전성을 유지하였으나, 다이어치화재의 파산으로 교에이생명의 재무건전성도 부실해짐.

4) Taiyo & Daido.

자료: 박성욱(2001), Kato(2012), 이기형 외(2012) 참고.

4. 일본 생존 보험회사의 저금리 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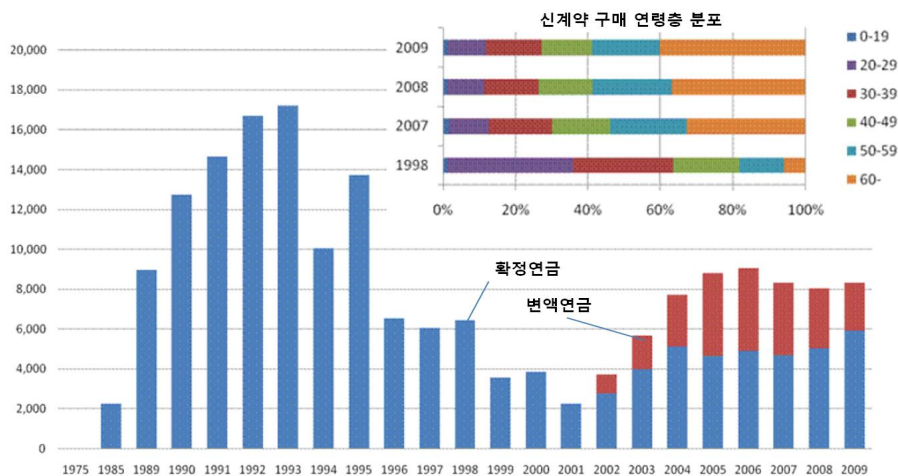
가. 상품구성 변화

■ 1990년 이후 이차역마진이 발생하면서 예정이율 인하를 통해 대응하기 시작했으나 신계약 판매를 통해서 준비금의 평균적립이율을 낮추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므로 1995년 이후에는 기존 보유계약을 보장성보험으로 전환하는 프로그램을 전개함.

○ 신계약의 예정이율을 지속적으로 낮춰 저금리 기조에 대응함.

- 신계약 중 보장성상품의 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 저축성보험에서도 금리확정형 양로보험 및 연금보험의 판매는 줄고 변액보험의 판매는 증가하는 형태로 상품구성이 변화됨.

〈그림 7〉 일본 연금보험의 구성 및 연금구매 연령층의 구성비 변화



자료: 안치홍(2012).

○ 그러나 준비금의 평균적립이율을 낮추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 소요되며, 이는 닛세이 생명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일본 금융당국은 기존 보유계약에 대한 예정이율 인하 조치를 도입하였으나,
- 보험회사들은 소비자들에게 부실 신호를 제공할 우려가 있는 예정이율 인하보다는 기존 보유계약을 보장성보험으로 전환해주는 프로그램을 적극 시행함.

〈그림 8〉 일본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전환 프로그램 시행: 닛세이생명보험 사례

판매 연도	보증이율 (%)	보증이율별 준비금 구성비			
		2005(%)	2010(%)	변화율(%pt)	
~ 1990	~ 6.00	37.1	30.6	- 6.5	• 2005년 현재 - 보유계약의 40% 평균적립이율 5% - 장기국채수익률 1.4%
1991 ~ 95	2.75 ~ 5.50	24.6	24.4	- 0.2	
1996 ~ 00	1.50 ~ 2.75	19.6	12.8	- 6.8	• 신상품 사례 - 보장담보를 늘리고 이율보증 축소 - 첫날부터 입원비 지급 보장상품
2001 ~ 05	1.00 ~ 1.50	18.7	14.5	- 4.2	
2006 ~ 09	1.10 ~ 1.50	-	17.7	+ 17.7	• 채널과의 연계성에 따라 판매 좌우 - 스미토모생명은 대표적 성공사례 - 닛세이는 스미토모와 비교해 채널연계성 부족으로 부분적 성공
	평균적립이율	3.9	3.5	- 0.4	

주: 평균적립이율은 연도별 보증이율 구간의 중간 값을 적용하여 산출.
 자료: Kato(2012) 수정 인용.

나. 상품개발 및 판매채널 혁신

■ 저금리가 지속됨에 따라 일본 금융당국은 위험률에 대해 충분한 마진 설정을 허용하는 등 상품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을 시행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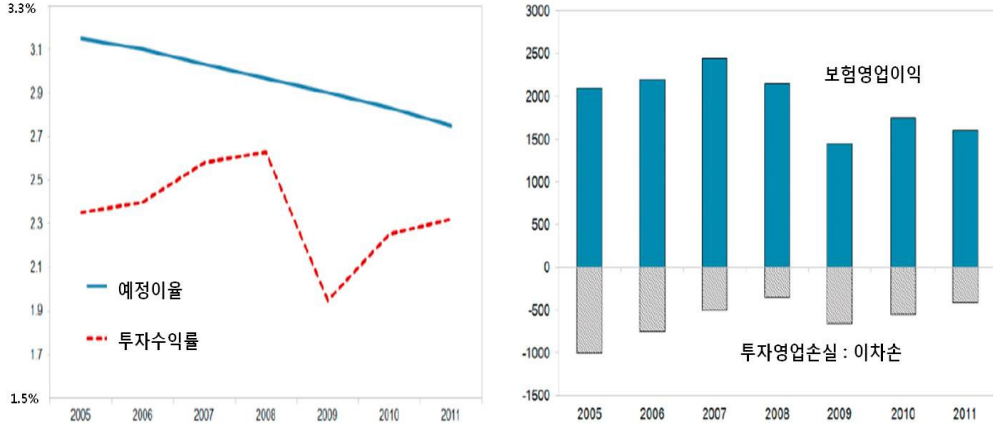
- 일본 보험회사의 수익구조는 지금까지도 이차역마진으로 인하여 이차손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보험영업이익으로 보전하는 상황임.
- 이에 따라 보장성상품에서는 위험률차익(사차익) 마진을 충분히 설정할 수 있는 상품 개발이 시장의 주된 흐름이 되고 있음.
 - 30% 내외의 안정적인 위험률차익을 확보하여 재무건전성 향상에 기여함.
 - 이차역마진을 완화하기 위한 금리연동형이나 무해지환급금⁶⁾ 보험이 도입되었고, 수익성을 갖춘 다양한 정기보험과 건강보험 도입으로 새로운 수익 영역을 개척함.
- 그 결과, 일본 보험시장은 보험회사 간 상품개발과 판매채널에 대한 경쟁은 높아졌으나, 상대적으로 가격경쟁은 완화되는 양상을 보임.⁷⁾

6) 해지환급금이 없는 보험상품에 대해서는 채희성(2011) 참조.

7) 안치홍(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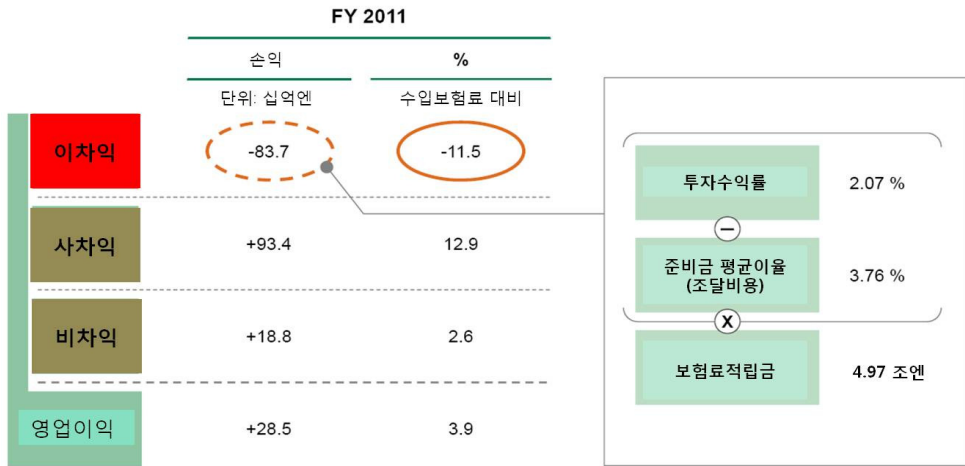
〈그림 9〉 일본 생명보험의 이차역마진 및 수익구조 현황

(단위: 십억엔)



자료: IMF(2012).

〈그림 10〉 일본 보험회사 수익 구조: 아사히생명 사례



자료: Kato(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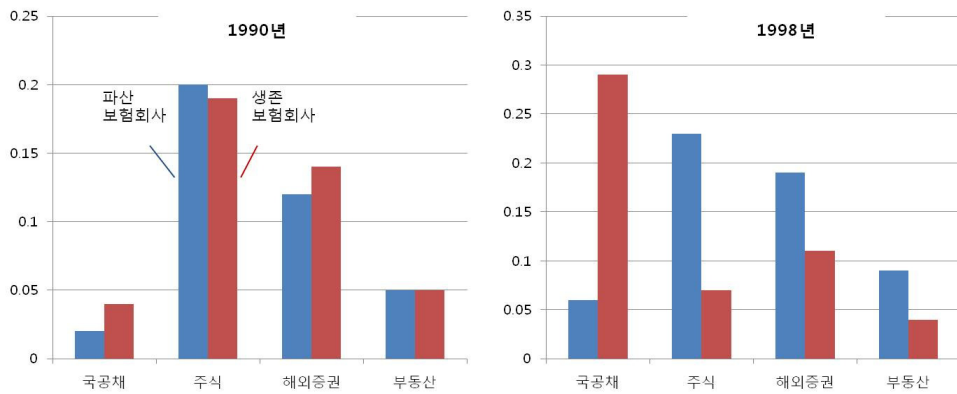
- 한편, 판매채널에서는 사업비를 낮추기 위한 시스템투자와 고객정보 DB화를 통해 고객군을 세분화하여 판매 및 언더라이팅에 활용하기 시작함.
- 시장에 새로 진입한 외국계 회사를 중심으로 CM, DM, TM 등의 신채널이 도입되었고, 자회사 방식에 의한 생손보 겸영이나 금융그룹을 통한 제휴마케팅이 전개됨.
- 고객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중합구좌제도를 통해 금융업권간 교차판매를 시도함.⁸⁾

다. 부채중심의 자산구성

■ 대다수 보험회사들은 장기채권의 비중을 늘리고 위험자산의 비중을 줄여 자산·부채종합관리(ALM)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자산구성을 조정하여 저금리에 대응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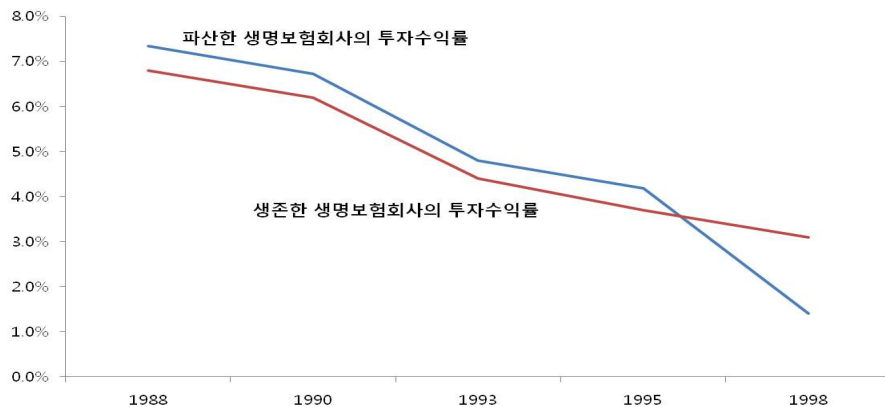
○ 반면, 파산한 보험회사들은 오히려 위험자산의 비중을 늘리는 방식으로 대응하여 투자수익률을 높이는 데는 일시적으로 성공했으나 결국은 이차역마진으로 파산함.

〈그림 11〉 파산한 보험회사와 생존한 보험회사의 주요 자산 구성비 비교



자료: 한승희·장보람(2012).

〈그림 12〉 파산한 보험회사와 생존한 보험회사의 투자수익률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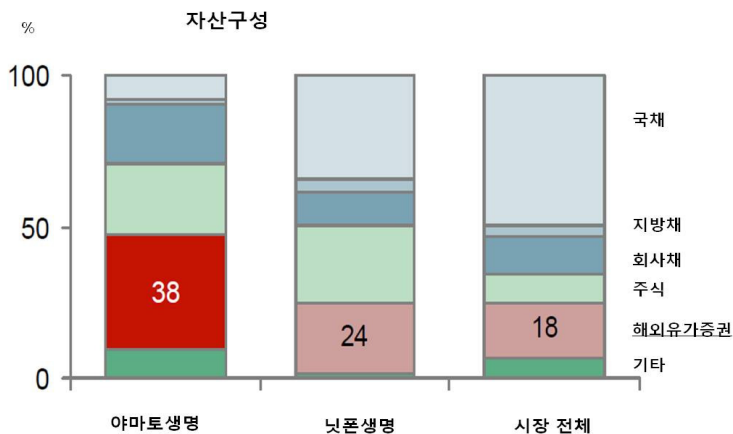


자료: 박성욱(2001).

■ 야마토생명⁹⁾의 사례 역시 자산부채종합관리에서 벗어난 고위험자산군 중심의 자산구성이 저금리 환경에 매우 취약함을 보여줌.¹⁰⁾

- 야마토생명은 투자수익률 제고를 위해 해외투자비중을 2005년 18%에서 2007년 38%까지 확대하고, 해외투자 및 기타투자의 대부분은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대출담보부증권 등 구조화금융과 헤지펀드 및 부동산신탁 등으로 구성함.
- 반면, 보험영업에서는 낮은 인지도와 높은 실효해약률을 보이면서 보험영업에서 안정적인 수익이 창출되지 못하는 불균형한 사업구조를 유지함.
-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면서 해외투자의 평가손 등이 발생하면서 2008년 야마토생명의 지급여력비율은 26.9%까지 급락하면서 파산에 이름.

〈그림 13〉 글로벌 금융위기로 파산한 야마토생명의 사례



자료: Kato(2012).

라. 재무건전성 강화와 수익성 중시 경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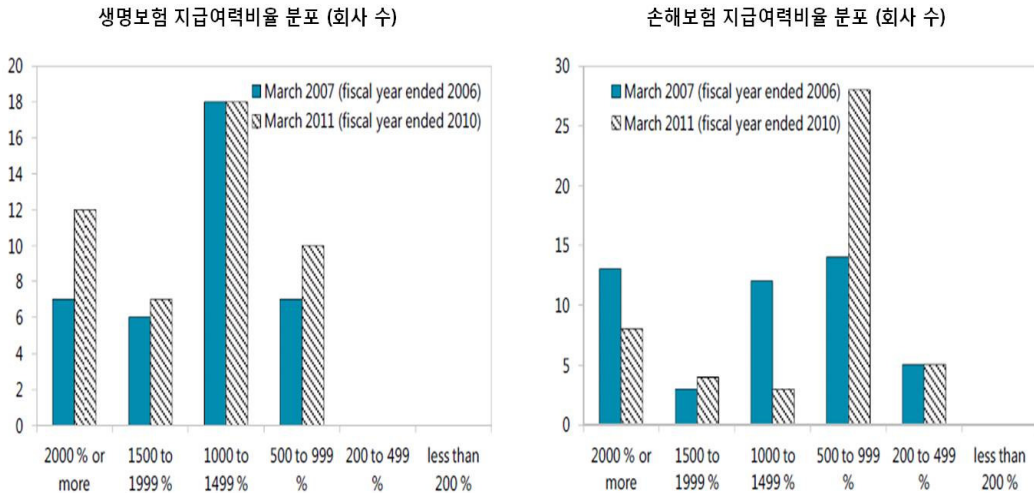
■ 생존한 보험회사들의 또 다른 공통점 중의 하나는 이익에 집중한 재무정보를 적극적으로 생산하여 성과지표와 연계하고 있는 것임.

9) 2000년 파산한 다이쇼생명을 인수한 보험회사.

10) 이상우(2008).

- 다이도생명, 애플락(Aflac)생명, 프루덴셜(prudential)생명 등은 보유계약의 장기 수익 정보에 대한 정기적인 보고를 통해 위험관리와 수익경영을 도모함.¹¹⁾

〈그림 14〉 일본 보험회사의 지급여력비율 분포



자료: IMF(2012).

- 국제통화기금(IMF)은 일본 보험시장에 대하여 양호한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고 있으나, 생명보험의 경우 위기상황이 발생할 경우 상당한 자본 손실이 있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¹²⁾ 위기상황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글로벌 경기침체나 더블딥 시나리오에서는 지급여력(자본)이 2년에 걸쳐 17~20% 감소하여 산업 전체적으로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나, 개별 회사에는 상당한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평가함.
- 특히, 생명보험의 경우 30~50%까지 자본이 감소할 수 있다고 평가함.
 - 반면, 손해보험의 경우 현행 투자평가이익으로 손실을 보전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함.

11) 안치홍(2012). 상품개발이나 성과보고 단계에서 매출이익률, 내부수익률, 내재가치 등 각종 수익성지표가 활용되고 있으며, 특히 보유계약의 장기 수익성과 관련된 가치(내재가치)가 별도로 보고되고 있어 단기성과에 치우친 상품 판매를 견제함. 김해식 외(2012).

12) IMF(2012). IMF는 주기적으로 각국의 금융부문을 평가하는 프로그램(FSAP: Financial Stability Assessment Program)을 시행 중에 있으며, 2012년에는 일본을 대상으로 실시한 바 있음.

- IMF의 일본 보험산업 평가는 생존 보험회사에게도 비관적 시나리오를 전제한 위험관리가 필요함을 보여줌.

5. 시사점 및 결론

■ 1980년대 이후 일본은 저금리를 계기로 수출주도형에서 내수기반 경제구조로 전환하였으나 구조적 개선이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파국을 초래할 수 있음을 보여줌.

- 수출주도형 전략을 추구하던 일본에 저환율 · 저금리 환경은 내수시장을 키우는 계기가 된 반면,
- 저금리로 구조조정이 지연되면서 보험시장 내 불합리한 요소들이 정리되지 않은 채 외형성장이 지속되다가 결국 8개 보험회사의 파산을 가져옴.

■ 1990년대 일본 보험산업은 “서서히 대위지는 물 안의 개구리 현상(Boiled Frog Phenomenon)”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례임.

- 플라자 합의 이후 생성된 자산 버블 붕괴의 영향은 단기적인 대응으로 가능한 반면, 저금리는 파산 보험회사가 발생하기 전까지 10여 년에 걸쳐 진행되면서 구조적 대응이 필요했으나 단기간 대응으로 일관하다 실패한 사례임.
- 파산한 보험회사들이 자산운용 측면의 대응에 그친 사례가 많은 반면, 생존한 보험회사들은 금리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상품구성의 변화와 부채중심 자산구성으로 저금리에 대응한 사례에서 전사적 관점의 대응이 저금리에 효과적임을 알 수 있음.

■ 최근 IMF가 실시한 일본 보험산업에 대한 평가는 지난 20년간 저금리기를 견뎌내 온 일본 보험회사들에 비관적 시나리오에 기초한 위험관리가 여전히 필수적임을 상기시킴.

- 전반적으로 일본 보험산업은 다양한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력이 충분함을 보여주고 있으나, 상당한 자본 감소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도 있는 것으로 평가됨.
- 따라서 저금리에 대한 대응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구조적으로 대응해야 함은 물론 비관적 시나리오를 반영한 위험관리가 수반되어야 함을 보여줌.

〈참 고 문 헌〉

김해식 · 김석영 · 김세영 · 이혜은(2012), 『현금흐름방식 보험료 산출의 시행과 과제』, 경영 보고서 2012-3, 보험연구원.

박상현(2010), 『플라자 합의 사례와 위안화 절상』, HI Economy Brief, 하이투자증권.

박성욱(2001), 『위기의 보험산업: 파산과 생존이 주는 전략적 교훈』, 보험개발원.

안치홍(2012), “미국/일본 보험사의 저금리 영향과 대응사례”, 『정책세미나: 저금리시대, 보험산업 영향과 과제』, 보험연구원.

이기형 · 변혜원 · 정인영(2012), 『보험산업 진입 및 퇴출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

이상우(2008), 「일본 야마토 생명의 파산 원인과 시사점」, KiRi Weekly, 보험연구원.

채희성(2011), 「무해지환급금 보험상품 도입에 관한 논의」, 월간생명보험 1월호, 생명보험협회.

한승희 · 장보람(2012), 『같지만 다른 한국 손해보험 스타일』, 우리투자증권.

International Monetary Fund(2012), "Japan: Financial Sector Stability Assessment Update", IMF Country Report, No. 12/210.

Kato, K(2012), "Strategy of Japanese Insurance Players to Cope With Economic Factors", BCG-보험개발원 세미나.

Swiss Re(2001), "Japan's Insurance Markets - A Sea Change", Sigma, 8/2001.

Swiss Re(2012), "Facing the Interest Rate Challenge", Sigma, 5/2012.

◆ OECD 국가의 퇴직연금감독체계 특징과 시사점

류건식 선임연구위원, 김동겸 선임연구위원

1. 검토 배경

최근과 같은 저성장·저금리 현상으로 인한 연금 자산가치 하락 및 금융시장의 불완전성 심화 등으로 리스크중심 연금감독체계로의 전환이 요구되는 바, OECD 국가의 연금감독체계 현황과 실태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이들 주요 국가의 리스크중심 연금감독변화와 특징 등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 급속한 인구고령화 등으로 개인의 장수리스크 관리를 위한 연금제도의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연금재정의 건전성 강화를 위한 퇴직연금감독(이하 ‘연금감독’이라 함)이 중요시되고 있음.

- 부실한 연금운용으로 인해 안정적인 연금재원이 확보되지 못할 경우 근로자의 연금수급권 침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연금이해관계자인 사용자 및 사업자에 대한 철저한 연금감독이 필수적임.

■ 최근과 같이 저성장·저금리에 따른 연금자산가치 하락과 금융시장의 불완전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는 연금운용관련 리스크에 대한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됨.

- 이러한 상황을 경험한 선진국은 리스크관리를 수행하면서 적정수준의 적립금을 유지하기 위한 리스크중심 연금감독체계(risk based supervision)로 전환함.
- 우리나라는 제도에 의한 규정(원칙)중심 연금감독을 지향하고 있어 사전적 리스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건전한 연금재정 강화를 위해 연금운용의 리스크를 감독당국이 어떻게 관리·감독하느냐가 우리나라 연금감독의 현안과제로 부각될 것임.

- 그 이유는 우리나라처럼 계약형 퇴직연금 지배구조를 선택하고 통합형 연금감독체계를 띠고 있는 국가에서도 리스크중심 감독체계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임.

- 따라서 OECD 국가들이 어떠한 연금감독체제로 운영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들 국가의 리스크중심 감독의 특징은 무엇인지 등을 통해 리스크중심 감독의 방향성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음.

■ OECD 국가의 연금감독체계 현황과 실태를 종합적으로 살펴 본 후에 이들 주요 국가의 리스크중심 감독변화와 특징 등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2. OECD 주요국의 연금감독 유형 및 동향

OECD 국가 대부분이 연금과 다른 감독기구를 통합한 통합형 연금감독체계를 지향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는 특화형 연금감독체계를 띄고 있는데, 연금 규모, 정부예산지원, 위원회설치 등에 따라 연금감독체계의 차이가 존재함. Hinz & Mataoanu 등의 조사에 의하면 연금감독유형에 상관없이 대체로 자산운용규제가 완화되고 연금제도가 성숙단계에 이르는 경우 허가 및 인가 등과 같은 적격성관련 감독보다 리스크중심 감독을 보다 지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도 리스크중심 감독에 대한 관심이 요구됨.

가. 연금감독 유형

■ 연금감독체계는 기능별 또는 감독목적 등과 같은 기준에 따라 분류할 수 있음.

〈그림 1〉 기능별 및 감독목적별 감독체계

		감독목적	
		쌍봉형 ¹⁾ (Twin Peaks)	일원형 ²⁾ (Unified)
기능별	특화형 (Specialized)	Twin Peaks / Specialized	Unified / Specialized
	통합형 (Integrated)	Twin Peaks / Integrated	Unified / Integrated

주: 1) 쌍봉형감독: 감독기관은 건전성 감독만 수행하며, 소비자보호 및 영업행위규제는 별도로 분리함.

2) 일원형감독: 감독기관은 건전성규제와 소비자보호 및 영업행위규제를 동시에 수행함.

자료: IOPS Technical Committee(2012), "Pension Supervisory Authorities' Approaches and Structure".

- 기능별 기준은 연금감독기구를 다른 감독기구와 통합된 형태로 운용할 것인지(통합형 감독체계), 아니면 별도의 독립기구를 조직하여 운영할 것인지(특화형 감독체계)에 대한 선택임.
- 감독 목적에 따른 기준은 건전성규제와 영업행위감독을 동일 기관에서 수행할 것인지(일원형 감독체계), 아니면 분리된 기관에서 감독이 이루어지는지(쌍봉형 감독체계)에 대한 선택임.
- 건전성 감독은 금융회사의 자본, 자산, 유동성 등 리스크요인을 점검하여 시정하는 감독을, 영업행위 감독은 금융회사가 영업활동을 하면서 법규위반이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시정하는 감독을 의미함.

〈표 1〉 연금감독체계 유형별 장단점 비교

감독유형	긍정적 효과(장점)	부정적 효과(단점)
쌍봉형 및 특화형	• 전문지식보유 - 감독자는 특정 문제에 집중 • 감독의무 축소 - 명확한 감독 범위 설정	• 감독범위 - 연금과 타 금융 간 감독 중복 - 감독기관의 폭넓은 시야 필요 • 통합적 감독 미흡
쌍봉형 및 통합형	• 투명성 강화 - 규제일관성, 규제차익 비발생 • 명확한 목적 및 책임 - 건전성 감독에 집중 • 감독 범위 - 상호연계된 금융시장과 조정	• 운영상 갈등 - 소비자 보호와 영업행위 간 업무구분 불명확 • 감독업무 중복 • 비효율성 - 범위의 경제 달성 어려움
일원형 및 특화형	• 업무 분리 - 산업별 하나의 감독기관 존재 • 감독 강화 - 연금제도의 모든 측면 관리	• 이해상충 문제 - 소비자 보호와 영업행위 목적 간 괴리 발생
일원형 및 통합형	• 통합화된 감독 - 사각지대 문제 해소 • 규모 및 범위의 경제 - 감독자원 집중 - 불필요한 중복 방지	• 고유성 반영에 한계 - 연금의 특수성 무시 • 광범위한 감독 업무 - 연금제도의 모든 측면 관리

자료: IOPS Technical Committee(2012), "Pension Supervisory Authorities' Approaches and Structure".

■ 어떠한 연금감독체계가 적합한지(최적의 연금감독구조)는 각 국가가 처한 연금시장의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각 국의 경제·사회적 여건을 고려하여 이에 부합한 연금감독체계를 선택해야 연금 감독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기 때문임.

나. 연금감독 실태

■ OECD 국가의 연금감독체계를 통합감독체계, 부분통합감독체계, 특화감독체계 등으로 구분해 보면, 대부분의 국가는 통합감독체계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남.

- 연금을 포함한 모든 금융산업을 통합감독기구에서 감독하고 있는 국가는 24개국, 분리되어 있는 보험감독기구가 연금까지 감독하는 국가는 10개국, 연금 부분을 별도로 분리하여 전문감독기구에서 감독하고 있는 국가는 12개국임.

〈표 2〉 연금감독기구의 형태

통합 감독 체계 (은행, 보험, 증권, 연금)	부분통합 감독체계 (보험, 연금)	특화 감독 체계 (연금)
호주, 오스트리아, 불가리아, 캐나다, 크로아티아, 체코, 덴마크, 독일, 헝가리,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자메이카, 카자흐스탄, 모리셔스, 나미비아, 한국, 네덜란드, 노르웨이, 파키스탄, 폴란드, 슬로바키아, 남아프리카, 태국, 트리니다드토바고	벨기에, 핀란드, 프랑스, 요르단, 룩셈부르크, 포르투갈, 스페인, 스페인, 터키, 잠비아	체코, 코스타리카, 홍콩, 인도,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케냐, 멕시코, 나이지리아, 영국, 미국

주: OECD 주요국 및 IOPS 가입 국가를 대상으로 한 연금감독체계의 분류임.

자료: Yu-Wei Hu and Stewart(2009), "Licensing Regulation and Supervisory Structure of Private Pension", OECD Working Papers on Insurance and Private Pensions,

■ 연금감독을 다른 금융감독기구와 통합해서 운용하는 체제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하는 근거로는 적립부족 리스크, 금리 및 인플레이션 리스크 등 대부분의 연금운용리스크는 타 금융부분 리스크와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리스크라는 점 등을 들고 있음.

- Damaestri & Ferro(2004)¹⁾는 소비자보호,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금융시스템의 효율성

및 금융기관의 건전성 등 금융규제의 목적 달성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통합모형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보고 있음.

〈표 3〉 통합 연금감독모형 장·단점

통합모형의 장점	통합모형의 단점
• 금융상품의 경계가 모호. 전문화된 규제에 의한 유사상품의 차별적 취급, 규제의 중복 및 소비자보호의 사각지대 발생 • 사각지대 해소, 중복 및 불균형 규제 제거, 규제회피 대응 용이 • 영역별 규제 분리는 정보의 차단으로 인한 폐쇄성 등 관료주의를 야기 • 분리규제에서는 개별규제기관이 특정 행위 독점	• 각 금융기관은 업무, 행위 및 리스크가 상이 • 특정 금융기관의 리스크에 따라 공공차원에서 과도한 리스크를 부담 가능 • 다양한 감독목표간 충돌로 인한 목표상충 • 거대 관료조직 방지

자료: Demaestri and Ferro(2004), "Integrated Financial Supervision and Private Pension Funds".

■ 이와 같은 통합형 연금감독체계를 지향하는 국가로는 호주, 한국, 아이슬란드, 헝가리 등을 들 수 있으며, 금융 감독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연금 등 모든 금융 관련 업무는 통일감독기구의 규제를 받고 있음.

- 호주 및 독일 등은 충분한 연금금 규모에도 불구하고 연금감독기구를 분리하지 않고 통합 운용하고 있음.
- 호주는 통합모형을 운영 중에 있으나, 감독기능은 APRA(Australian Prudential Regulatory Authority)와 ASIC(Australian Securities and Investment Commission)사이로 나누어져 있음.
 - APRA는 연금의 인허가와 선관주의 및 연금규약과 투자를 감독하며, ASIC는 연금의 시장 행위에 대한 감독을 수행함.
- 헝가리는 2000년에 HFSA(Hungarian Financial Supervisory Authority)를 설립하여 은행, 신용조합, 금융회사, 투자펀드, 보험회사, 연금 등을 포함하는 전 금융권에 대한 감독을 통합 수행하고 있음.

1) Damaestri and Ferro(2004)는 통합형 퇴직연금감독모형을 운영하고 있는 남미 국가를 대상으로 동 모형 상에 나타난 퇴직연금 감독체제의 이점을 분석하고 있음.

〈표 4〉 통합형 연금감독 형태

구분		호주	아이슬란드	독일	덴마크	캐나다
형태	기관명	APRA	FME	BaFin	DFSA	OSFI-PPPD
	위원회존재	유	유	유	유	무
	인원	-	7	29	15	20
지위 및 예산	법적독립성	독립	독립	독립	독립	독립
	관할부처	Common wealth Parliament & supervised industries	Minister of Commerce	Ministry of Finance	Ministry of Economic Affairs	Ministry of Finance
	예산출처	회원사	회원사	회원사	회원사	회원사
기관 장	임명권자	연방재무상	위원회	대통령	수상	총독
	임기보장	5년	4년	없음	없음	7년
사 적 연 금	연기금수	249,262 (계약 포함)	82	139	80	1,195 (연금 계약)
	계약자 수 (천 명)	24,800	228	3,416	720	557
	연기금규모 (10억 유로)	281.5	7.7	68.7	32.2	56.1

주: APRA(Australian Prudential Regulation Authority), FME(Fjármálaeftirlitsins; Icelandic Financial Supervisory Authority) BaFin(Bundesanstalt für Finanzdienstleistungsaufsicht; Federal Financial Supervisory Authority) DFSA(Finanstilsynet; Danish Financial Supervisory Authority), OSFI-PPPD(The Office of the Superintendent of Financial Institutions- Private Pension Plans Division).

자료: OECD(2005), "Good practices in pension supervision in the OECD area", Fiona Stewart Bangkok, April 2005 등에서 발췌 정리.

■ 이와는 반대로 퇴직연금계약의 장기성, 퇴직연금 고유의 리스크, 세제와 장래급여 및 기대수명에 대한 가정으로 인한 상품의 복잡성 등을 고려해 연금감독체계를 특화형으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 또한 존재함.

- 특화형 감독체계에서는 퇴직연금만이 보유하고 있는 리스크와 세제정책의 관리, 공적보장, 타 금융서비스에서는 제공하지 못하는 복지 제공 등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보유하고 있다고 봄.

〈표 5〉 특화형 연금감독 형태

구분		영국	이탈리아	아일랜드	일본	멕시코
형태	기관명	TPR	COVIP	Pensions Board	Pension Bureau	CONSAR
	위원회 존재	유	유	유	무	유
	인원	260	60	34	30	170
지위 및 예산	법적 독립성	독립	독립	독립	외부 통제	독립
	관할부처	수상	Ministry of Laour & Ministry of the economy	Ministry of Social and Family Affair	Ministry of Health Labour and Welfare	Ministry of Finance
	예산출처	정부예산 + 회원사	정부예산	회원사	정부예산	정부예산 + 회원사
기관장	임명권자	위원회	정부	위원회와 관할부처	관할부처 장관	재무부
	임기 보장	없음	4년	5년	없음	없음
사적연금	연기금 수	103,588 (연금 계약)	534	99,987 (연금 계약)	1,807 (계약 포함)	11
	계약자 수 (천 명)	40,000	1,907	630	14,116	29,421
	연기금규모 (10억 유로)	1,050	27.7	44	692.6	40.8

주: TPR(The Pensions Regulator), COVIP(Commissione di Vigilanza sui Fondi Pensione; Pension Funds Supervisory Authority), CONSAR(Comisión Nacional del Sistema de Ahorro para el Retiro; National Commission for the Pension System).

자료: Fiona Stewart Bangkok(2005), "Good practices in pension supervision in the OECD area" 등에서 발췌 정리.

■ 이와 같은 특화형 연금감독체계를 지향하는 국가로는 영국, 일본, 미국, 멕시코 등을 들 수 있으며, 이들 국가는 연금에 대한 감독기구를 분리하여 운용하고 있음.

- 아일랜드의 경우 Pension Board가 퇴직연금감독을 담당하며, 상무성(Department of Enterprise, Trade and Employment)에서 개인연금을 담당함.
- 일본의 Pension Board는 후생노동복지부(Ministry of Health, Labor, Welfare)에 연결되어 대부분의 퇴직연금을 감독하고 있음.
- 미국 노동부와 연금복지급부국(Pension and Welfare Benefit Administration: PWBA)은 기업과 다수고용주 연금에 대한 근로자의 수급권과 재정적 책무 보호를 책임지고 있음.

- PBGC(Pension Benefit Guarantee Corporation)은 확정급여형의 퇴출 시 수급권보호를 담당하며, 국세청(Internal Revenue Service: IRS)은 재무성의 감독하에서 연금관련 세제를 감독하고 수행함.

■ 연금감독체계를 종합하면 일반적으로 연기금 규모가 클수록 연금감독기구가 독립되는 경향이 있으며, 별도의 연금감독기구를 가지고 있는 국가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연금감독기능이 법적으로 독립되어 있고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음.

- 또한 별도연금감독기구가 존재하는 국가의 경우 재정이나 경제전반을 다루는 경제부처보다 노동, 복지문제를 다루는 부처가 주무부처인 경우가 많이 존재함.
- 특히, 별도로 존재하는 연금감독기구의 예산은 정부예산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 통합금융기구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는 회원사로부터 각출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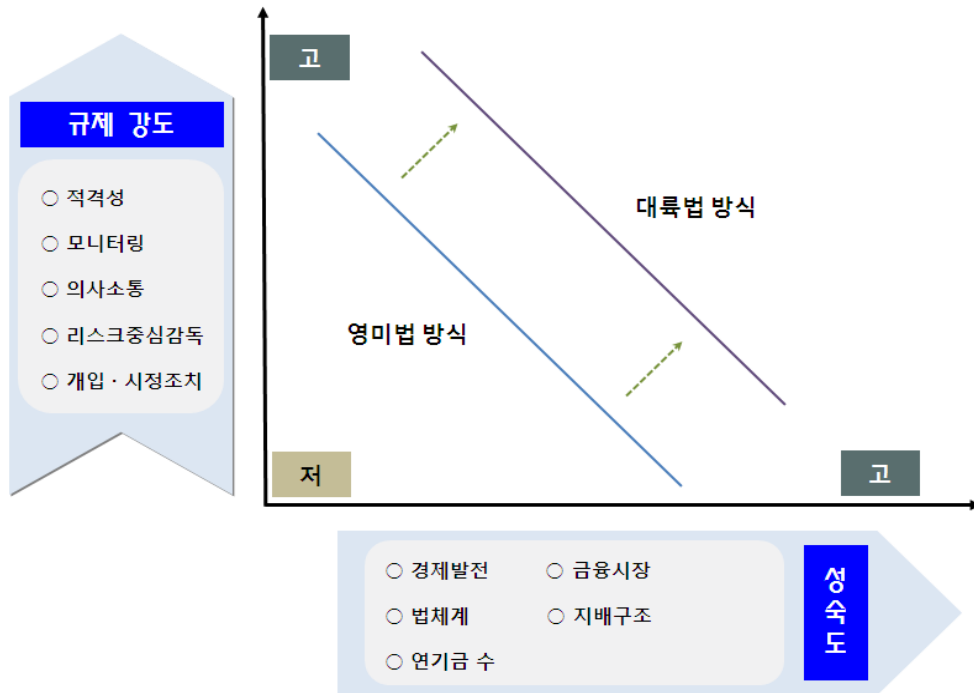
다. 연금감독 동향

■ Hinz & Mataoanu(2005)²⁾는 각국의 경제상황 등에 따라 감독수준의 차이는 존재하지만, 대체로 연금제도가 성숙단계에 진입하고 자산운용규제가 완화될수록 리스크중심 감독을 보다 지향하는 경향이 뚜렷하다고 주장함.

- Hinz & Mataoanu는 연금감독단계를 적격성(진입)관련 감독, 모니터링(감시)관련 감독, 의사소통(교육, 공시)관련 감독, 리스크중심 감독, 시정조치관련 감독 등으로 구분하여 조사한 결과 제도도입 초기에는 적격성 관련 감독이 상대적으로 엄격한 것으로 나타남.
- 이에 반해 운용규제 완화속도가 빠르고 퇴직연금 성숙도가 높으며 기금형 지배구조를 지향하는 국가일수록 상대적으로 리스크중심 감독 및 시정조치관련 감독 등에 보다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2) Hinz, P. Richard and Anca Mataoanu(2005), "Pension Supervision: Understanding International Practice and Country Context", Social Protection Discussion Paper Series, World Bank 등을 참조.

〈그림 2〉 퇴직연금 연금 감독 트렌드



자료: Hinz & Mataoanu(2005).

■ 이처럼 연금감독유형과 무관하게 연금제도가 성숙하고 규제가 완화된에 따라 적격성 관련 감독에서 점진적으로 리스크중심 감독으로 전환되고 있는 감독동향을 고려할 때 리스크중심 감독에 대한 중요성을 재인식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도 연금제도가 성숙단계에 접어들고 있으며 자산운용관련 규제 또한 점진적으로 완화된고 있어 리스크중심 감독에 대한 높은 관심이 요구됨.

3. 리스크중심 연금감독 변화 및 특징³⁾

OECD 주요 국가들은 자본시장의 불확실성 증대 등에 따른 근로자의 수급권보호차원에서 리스크중심 연금감독으로 전환함. 국가마다 리스크감독 수준의 차이는 존재하지만 대체로 리스크관리 내부규준을 제정하고 리스크중심 건전성규제를 강화하거나 리스크 점수제도(Risk Scoring System) 등으로 연금운용 리스크를 평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특징적임.

가. 리스크중심 연금감독 변화

■ 최근 자본시장의 변동성 증대, 금융기관의 수익성 저하, 은행·증권·보험감독기구의 통합현상, 감독자원 배분의 개선 및 유럽에서의 Solvency II 제도 도입 등과 같이 외부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퇴직연금의 감독도 리스크중심 감독으로 이행되고 있음.

〈표 6〉 리스크중심 연금감독 전환 배경

구분	네덜란드	덴마크	호주	멕시코
미적립위험, 급격한 자산가치의 하락으로 인한 DB(원리금보장형 DC)의 파산위험의 축소 정책	○	○		
자산가치의 하락으로 인한 DC 가입근로자의 피해 축소 정책				○
연금의 효율성 제고 노력(위험-수익률 관계)		○		○
금융상품 및 시장의 복잡성 증가	○	○	○	○
제한적인 감독역량의 효율적인 분배	○	○	○	○
은행/보험의 감독체계의 변화에 따른 영향 (통합감독체계에 따른 여파)	○	○	○	

자료: Brunner, G, Richard Hinz, and Roberto Rocha(2008), "Risk-based Supervision of Pension Funds: A Review of International Experience and Preliminary Assessment of the First Outcomes", presented in the 4th Contractual Savings Conference, Washington D.C.,.

3) 리스크중심 연금감독 변화 및 특징은 통합형 연금감독체계에 속하는 네덜란드, 덴마크, 호주 등과 특화형 연금감독체계에 속하는 멕시코 등을 대상으로 살펴보고자 함.

- 리스크중심 감독(Risk-Based Supervision)은 IOPS(International Organisation of Pension Supervisors)의 2006년 핵심 프로젝트로 진행되었으며, 2010년 11월 발표한 IOPS 감독 원칙⁴⁾에서도 리스크중심감독을 감독원칙으로 제시하였음.
- 리스크중심 감독의 핵심은 연금제도의 리스크를 식별하고 감소시키는데 집중되고 있으며, 주요 리스크로는 가입자의 급부를 상당히 감소하거나 어렵게 하는 부적절한 적립, 부정확한 기록관리, 부정 또는 사기 등이 포함됨.

■ OECD 국가들은 적립기준과 시장상황과의 연계를 통해 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리스크기준 자본을 보유하는 방향으로 확정급여형의 리스크감독을, 리스크관리를 통해 효율적 투자달성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확정기여형의 리스크 감독을 추진함.

- 리스크중심 감독으로의 전환은 통합형 연금감독체계에 속하는 국가뿐만 아니라 특화형 연금감독체계에 속하는 국가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음.

■ 리스크 중심 감독으로 전환한 주요 배경으로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미적립방지(네덜란드), 연금공급자의 재무건전성우려(덴마크), 자산가격의 하락에 대한 대비(멕시코) 등을 들 수 있음.

나. 리스크중심 연금감독 특징

1) 요인

■ 네덜란드, 덴마크, 호주, 멕시코 등은 자국의 환경에 맞추어 상이한 리스크중심 연금감독 수단을 개발하여 운용함.

- 네덜란드, 덴마크, 호주는 연기금 이사회가 지배구조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사회를 중심으로 리스크관리 계획이나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함.
- 멕시코는 감독기관의 특별규정에 따라 구체적인 위험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4) IOPS(2010), "IOPS PRINCIPLES OF PRIVATE PENSION SUPERVISION".

〈표 7〉 리스크기준 연금감독 요인

구분	내부 리스크관리 기준(설계 등)	리스크중심 건전성 기준	리스크점수 제도	시장의 역할 (규율/공시)	감독기관
네덜란드	• 이사회와 장기 리스크 관리에 대한 리뷰 • 연기금 사업계획서에 리스크 관리계획 포함	리스크중심 건전성 기준 개발 완료	전 금융기관에 대한 정성적/정량적 평가가 가능한 시스템 개발 완료	낮음/재무제표를 통해 높음	통합감독기관: 연금 전문 조직 운영
덴마크	이사회와 리스크관리 기준 설정 의무	혼합형 기준 지급여력+리스크기준 신호등 체계 (traffic light system)	부분적 개발	높음	통합감독기관: 연금 전문 조직 운영
호주	리스크관리 전략과 계획을 인가 요건화	DC를 위한 공식적인 건전성 기준 없음	전 금융기관에 대한 정성적/정량적 평가가 가능한 시스템 개발 완료	중간	통합감독기관
멕시코	감독법규에 따른 매우 구체적인 특정한 리스크관리 설계	DC를 위한 공식적인 기준 없음	부분적 개발: 운영리스크와 재무위험	중간/높음	독립감독기관

자료: Brunner, G, Richard Hinz, and Roberto Rocha(2008), "Risk-based Supervision of Pension Funds: A Review of International Experience and Preliminary Assessment of the First Outcomes", presented in the 4th Contractual Savings Conference, Washington D.C.,.

■ 네덜란드, 덴마크, 호주 등은 리스크중심 건전성기준을 마련하여 이에 기초한 연금의 리스크감독이 이루어지고 있음.

- 네덜란드는 세부적인 위험기준 건전성기준을 개발·운용하여 장수, 시장, 신용, 환율, 이자율 리스크 이외에 자산·부채의 불일치에 따른 리스크를 통제함.
- 덴마크는 리스크중심 연금감독 일환으로 신호등 체계(traffic light system)를 운용하고, 이에 기초하여 연기금자산의 가치 변동에 대한 탄력성 등을 관리함.

■ 호주 등 대부분의 국가는 연금제도의 특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리스크점수제도(risk scoring system)를 구축하여 운용함.

- 호주는 근로자가 투자리스크를 지는 DC형 퇴직연금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음에도 연금의 재무리스크를 리스크 점수를 통해 관리함.
- 호주 건전성감독청(APRA)은 투자전략, 자산배분 및 분산, 유동성을 포함한 투자운

영절차에 대한 감독 및 이에 따른 성과를 측정

2) 특징

〈리스크관리 내부기준〉

■ 네덜란드, 덴마크, 호주는 리스크관리를 위한 일부요건을 인가나 최초 등록절차에 포함시키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임.

- 따라서 연기금 도입을 위해서는 법령에서 규정한 리스크관리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다만, 이 같은 요건은 상세하게 주어지지는 않으며 연기금 규모에 따라 감독자 재량으로 조정이 가능함.

■ 반면, 멕시코는 연금의 리스크관리 기준을 법에 상세하게 규정하고 이에 기초하여 리스크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음.

- 모든 기금은 반드시 이사회 내 2개의 리스크관리 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며 각각 운영리스크와 재무리스크를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각각의 위원회는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해야 하며, 이 중 3명은 이사회 멤버가 지명하되, 최소한 1명은 독립적 지위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한편, 나머지 2명은 최고경영자(CEO: Chief Executive Officer)와 리스크관리임원(CRO: Chief Risk Officer)이어야 함.
 - CRO는 독립적인 리스크관리조직을 책임지고 운영리스크와 재무리스크 모두를 관장하며, CRO는 이사회, CEO 및 감독당국에 위험관리에 관한 사항을 보고할 의무가 있음.
 - CRO의 업무와 의무는 법규에 정해져 있으며 특히 최고투자책임자(CIO: Chief Investment Office)와의 관계도 법규에 의해 설정되어 있음.

〈표 8〉 리스크관리 내부 기준

구분	리스크관리 계획/전략	리스크관리 를 위한 이사회	이사회의 최소 참가인원	중앙 리스크관리 기능	CRO의 보고의무	CRO와 타 기능과의 관계	준법 책임자
네덜란드	사업계획서에 포함/인가시 제출	신뢰할만한 주체로서 장기적인 위험관리	규정 없음	반드시 연기금의 타 부서와 독립적	규정 없음	규정 없음	규정 없음
덴마크	이사회가 리스크관리 기준을 마련	규정 없음	규정 없음	규정 없음	규정 없음	규정 없음	규정 없음
호주	인가요건 세부사항은 기금규모에 따라 상이	규정 없음	규정 없음	규정 없음	규정 없음	규정 없음	규정 없음
멕시코	운영 및 재무리스크에 대한 관리절차를 문서화	2개의 이사회 산하 위원회 (운영/재무 리스크)	최소한 5인 멤버, 이중 3인은 이사회 멤버(독립, CEO, CRO)	중앙리스크 관리부서가 CRO책임 아래 운영 / 재무리스크 관리	CEO, 이사회 및 감독당국	구체적 으로 규정	준법 책임자 있음

자료: 한국노동연구원(2008), 『퇴직연금수급권 강화 등 선진화방안 법제화 연구』.

■ 멕시코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는 외견상 리스크관리 기준이 느슨한 것 같으나, 리스크점
수제도 등 다른 연금감독 요인에 의해 리스크중심 감독이 이루어짐.

〈리스크중심 건전성기준〉

■ 호주는 DC형 퇴직연금으로 급격히 전환되어 구체적으로 DC형 퇴직연금의 리스크에 대
한 건전성 기준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지만, 연기금이 공격적인 자산포트폴리오에 따른
리스크를 관리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철저한 감독을 수행함.

○ 멕시코는 최대 허용 VaR로서 연금의 재무건전성이 통제하고 있으며 현재 각 연기금
마다 두 개의 포트폴리오를 허용하고 있음.

- 기본 포트폴리오는 하루 최대 손실을 0.6% 미만인 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이보다
높은 위험/수익 포트폴리오의 경우 최대 VaR가 1.0%로 설정되어 있음.

- 만약 어떤 연기금이 허용한도를 초과하면 감독당국에서 즉각 개입하여 허용한도 내
로 환원되도록 자산구성을 변경시키도록 명령함.

〈표 9〉 리스크중심 건전성 기준

구분	부채의 측정 (책임준비금)		최소 건전성 요건	지급여력 (Solvency Buffers)
	장수리스크 처리	할인 요소		
네덜란드	그룹별 사망표(평균 수명의 상승 반영 + 예기치 못한 상승분)	시장수익곡선 (유로스왑곡선으로 측정)	- 책임준비금의 5% - 시장가로 매년 1회 측정 - 정상화 기간: 최대 3년	- 일년 이내 미적립 위험 최대 가능성: 2.5% - 지급여력은 자산군 별로 설정 - 정상화 기간: 최대 15년
덴마크	- 연기금별 사망표 (감독당국 또는 제리인 승인) - traffic light stress test(평균여명의 5% 상승 영향에 대한)	시장수익곡선 (유로스왑곡선으로 측정)	- EU 지급여력: 4%책임준비금+위험 자산의 0.3% - 시장가로 6개월마다 측정 - 정상화 기간: 1년	신호등체계 : 적색, 황색, 녹색 등으로 분류
호주	DC에 대한 공식적 기준 없음	DC에 대한 공식적 기준 없음	DC에 대한 공식적 기준 없음	DC에 대한 공식적 기준 없음
멕시코	DC에 대한 공식적인 기준 없음	DC에 대한 공식적인 기준 없음	- 공식적인 건전성요건은 없으나, VaR을 이용하여 DC의 가치하락 위험을 제한 - Historic VaR(500일 sample, 5% 신뢰도)를 두 가지 포트폴리오에 적용 - 기준포트폴리오: 1일 최대 손실: 0.6% - 위험포트폴리오: 1일 최대 손실: 1.0%	

자료: Brunner, G, Richard Hinz, and Roberto Rocha(2008), "Risk-based Supervision of Pension Funds: A Review of International Experience and Preliminary Assessment of the First Outcomes", presented in the 4th Contractual Savings Conference, Washington D.C.,.

■ 네덜란드의 연기금은 바젤Ⅱ에서 제시하는 기본모델 또는 감독당국에서 승인한 기준에 의해 임준비금의 30%에 해당하는 지급여력을 유지해야 함.

- 이에 따라 네덜란드의 연기금은 지급여력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자산 포트폴리오 중 주식 비중을 줄이고 채권 비중을 증가시키고 있음.
- 연기금으로 하여금 세밀한 방법과 다양한 모수를 사용하여 지급여력을 줄일 수 있으므로 연기금 스스로 내부 모델에 따라 지급여력을 유지하도록 유도함.

■ 덴마크의 지급여력 기준은 약간 덜 구체적이지만, 네덜란드와 상당히 유사함.

- 최소지급여력은 자산의 구성에 따른 스트레스 테스트 등을 참고하여 현재 부채의 크기에 따라 결정됨.

- 연기금을 포함한 모든 개별 금융기관에 대하여 매년 2회에 걸쳐 건전성 상태를 산정한 이후 신호등 체계에 따라 재무건전성을 강화하도록 유도함.
- 즉, 녹색등은 적절한 건전성 상태, 황색등은 건전성문제에 직면한 리스크가 있으며, 적색등은 심각하고 즉각적인 문제가 있음을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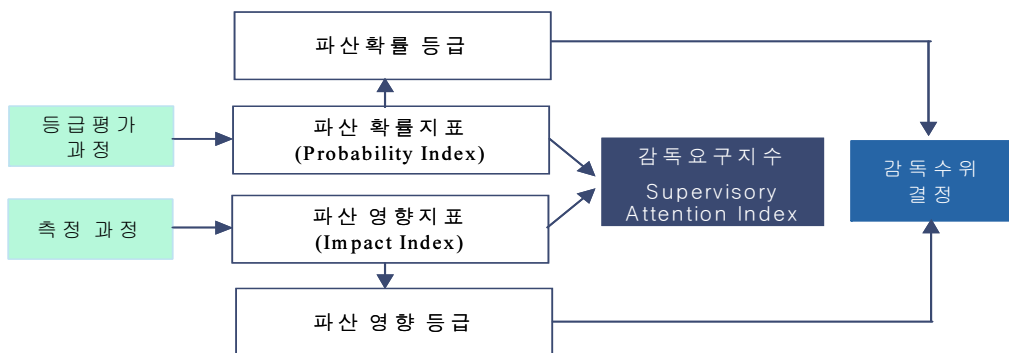
〈리스크점수 제도〉

■ 호주는 2002년 연기금의 파산확률을 최소화 하려는 목적에서 PAIRS(Probability and Impact Rating System)인 리스크점수제도와 SOARS(Supervisory Oversight and Response System)인 감독시스템을 도입됨.

○ PAIRS 시스템은 통계 분석과 감독적인 판단으로 결합되어 있으며, 금융기관이 수탁자에게 재정적인 보장을 할 수 없는 확률과 금융기관의 파산으로 인한 영향 측면을 고려하여 감독수위를 결정하게 됨.

- 금융기관의 파산 리스크는 개별회사의 고유리스크, 리스크 관리 및 통제능력, 감독당국의 개입이 없을 경우의 자본지원(capital support) 능력을 바탕으로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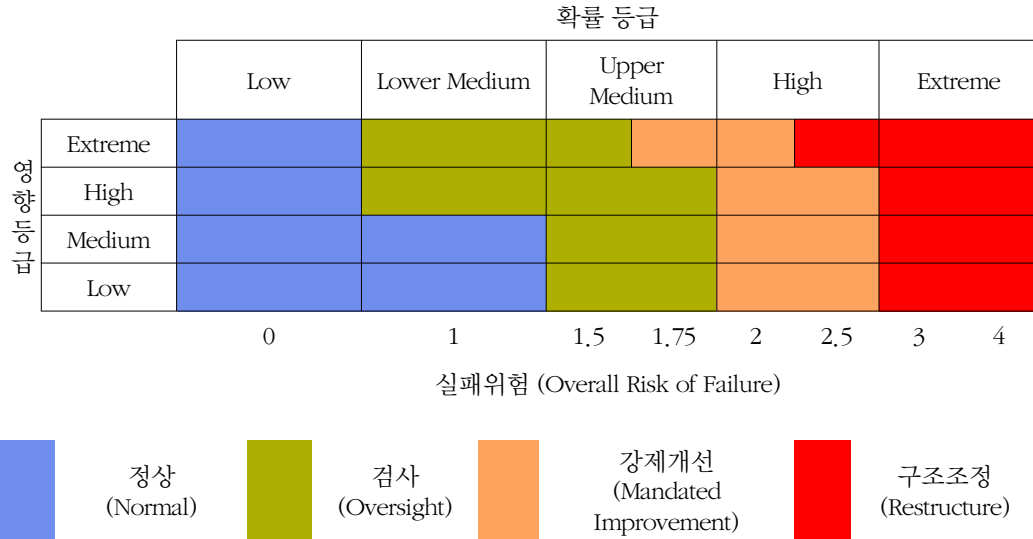
〈그림 3〉 PAIRS 모형의 구조



자료: APRA(<http://www.apra.gov.au>).

○ SOARS 시스템에서는 PAIRS에서 산출된 리스크 등급과 영향에 따라 감독수준을 결정하는데, 감독수준은 다음과 같이 4가지로 구분함.

〈그림 4〉 호주의 SOARS 감독



자료: APRA(2012), "Supervisory Oversight and Response System".

- 정상(normal)은 데이터 수집, 일상적인 임점검사를 수행하는 것이며, 검사(oversight)는 정보수집과 검사를 강화하거나 최저요구자본을 높일 수도 있음.
- 강제개선(mandated improvement)은 감독당국이 인정하는 리스크 범위를 벗어나는 수준으로서 불안정한 재무상태이므로 재무적 곤란과 경영상 곤란을 개선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요구함.
- 구조조정(restructure) 등급은 파산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감독당국이 영업활동을 제한하거나, 이사를 교체하는 등 감독활동을 통해 부실규모의 확대를 방지하고 가입자 손실을 최소화함.

〈표 10〉 리스크점수제도

구분	시스템 형태	목적	주요 요소	연금에 대한 특별 기능	감독 활용
네덜란드	통합감독기구에서 수행하는 전 금융기관에 대한 종합적인 시스템	- 모든 주요 위험을 파악 측정하고 이를 관리하는 능력 - 감독행위 결정 - 내부위험관리 능력을 제고	- 위험통제를 통한 총체적 또는 내재적 위험 파악 - 기본점수 사용 - 확률과 영향을 결합 - 단일 순위험 점수 산출	연기금과 보험회사에 적용하는 위험 기준 기준을 리스크 점수에 반영	일상적인 감독 수행에 활용
덴마크	조기경보지표	- 위험요인 파악 - 감독행위 결정 - 내부위험관리 능력을 제고	- 부분적으로 개발 - traffic light test에 보다 의존	traffic light로서 EU의 지급 여력 기준을 보완	- 일상적 감독 수행에 활용 - 황색등은 요구의 적색등은 제제조치 발동
호주	통합감독기구에서 수행하는 전 금융기관에 대한 종합적인 시스템	- 모든 주요 위험을 파악 측정하고 이를 관리하는 능력 - 감독행위 결정 - 내부위험관리 능력을 제고	- 위험통제를 통한 총체적 또는 내재적 위험 파악 - 기본점수 사용 - 확률과 영향을 결합 - 단일 순위험 점수 산출	DC에 대해서는 자본력 요소를 제외	리스크 점수를 감독에 활용 (SOARS)
멕시코	조기경보지표, 리스크점수제도 개발 중		개발 중	매일 VaR을 활용하여 한계를 설정	VaR를 초과하여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이를 보전할 의무

자료: Brunner, G, Richard Hinz, and Roberto Rocha(2008), "Risk-based Supervision of Pension Funds: A Review of International Experience and Preliminary Assessment of the First Outcomes", presented in the 4th Contractual Savings Conference, Washington D.C.,

■ 네덜란드는 2005년 네덜란드 국립은행(DNB: Dutch National Bank)이 FIRM (Financial Institutions Risk analysis Method)이라 불리는 전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집약적인 리스크 분석 시스템을 도입함.

○ DNB는 FIRM 시스템을 통해 개략적인 건전성을 평가하고 연기금 및 실제로 수행되고 있는 위험관리 대상이 되는 리스크에 대한 평가와 결합하며, 호주와 같이 위험평가 결과는 감독행위의 행태나 집중 정도를 결정함.

- FIRM 시스템은 4단계로 위험평가를 수행하게 되며 첫 번째 단계에서는 연기금에 대한 상세한 정보 파악이 이루어지며, 두 번째 단계에서는 관련 관리부서와 그 기능이 파악되면서 이에 대한 역할 비중이 결정됨.
- 세 번째 단계에서는 전체 리스크를 평가하고 점수화하며, 마지막 단계에서는 각 위험별로 위험통제의 질을 살펴본 이후 연기금의 위험에 대한 평가를 내림.

■ 멕시코는 운영리스크와 재무리스크에 대한 조기경보시스템을 개발하였으며 현재 저, 중, 고 등 세 단계로 위험을 분류하며 감독 시 발견되는 문제점을 감독함.

- 덴마크도 리스크점수제도를 개발해왔는데, 각 연기금의 보험리스크(대부분 장수리스크)뿐만 아니라 조직, 절차 및 내부통제에 대한 등급을 부여함.
- 덴마크의 감독당국은 이들 등급을 신호등체계(traffic light system)에 접목하여 감독에 활용하고 있는 실정임.

〈시장 규율〉

■ 위험기준 감독에서 시장 규율의 중요성은 기본적으로 연금제도의 형태와 감독당국에서 외부감사인 등 제3자에게 부여하는 역할 범위에 따라 결정됨.

■ 4개국 모두 외부감사로 하여금 재무제표의 정확도를 검증하도록 하고 있으며, 4개국 모두 외부감사에게 “내부고발(whistle-blowing)” 의무를 부여하여, 감독자에게 주요한 사항에 대한 보고를 하도록 하고 있음.

- 멕시코의 경우 보다 광범위한 공시 요건을 부여하고 있는데, 예컨대 매월마다 개인의 포트폴리오, 수익률, 수수료와 VaR 등을 포함함.
- 덴마크는 매년 개별 연금 공급자의 실적과 건전성 자료를 공시하며 상호 비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호주의 증권투자위원회는 연기금의 기금 멤버들이 투자전략을 세울 때 따라야 하는 상세한 투자상품 공시요건을 가지고 있음.
- 다만, 호주는 기금의 실적에 대한 공시는 그리 강하게 요구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최근 연금 가입자가 연금을 도중에 바꿀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 이후 급격한 연금 이동을 막기 위한 조치로 해석됨.

- 한편, 네덜란드의 연금제도는 폐쇄적인 제도로서 연기금의 실적에 대한 공시가 강하지 않은 상황임.

〈표 11〉 시장 규율

구분	회계 제도	감사 제도		공시 요건
		감사 범위	신뢰도	
네덜란드	자산과 부채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	재무제표	내부고발 의무	단일 사용자가 운영하는 연금(스폰서의 대차대조표 포함)
덴마크	자산과 부채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	재무제표	내부고발 의무(중대한 사실에 대한 감독자 보고 의무)	감독당국의 웹사이트에 광범위한 효율성 및 건전성에 관한 개별 지표
호주	자산에 대하여 순 시장가격 평가	재무제표 및 위험관리시스템	내부고발 의무	모든 연기금의 운영 및 재무제표
멕시코	시가평가(Mark to market)	재무제표 및 위험관리시스템	내부고발 의무	개별 포트폴리오, 수익률, 수수료와 VaR를 포함한 광범위한 공개

자료: Brunner, G, Richard Hinz, and Roberto Rocha(2008), "Risk-based Supervision of Pension Funds: A Review of International Experience and Preliminary Assessment of the First Outcomes", presented in the 4th Contractual Savings Conference, Washington D.C.,

- 따라서 전반적으로 덴마크와 멕시코에서 시장 규율이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에는 호주 그리고 네덜란드의 순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4. 요약 및 시사점

연금재정의 건전성 강화를 통한 근로자의 수급권 보호를 위해 원칙(규정)중심 연금감독에서 탈피하여 국제연금감독기구의 리스크중심 감독원칙에 기초하여 점진적으로 리스크중심 연금감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단기적으로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설정과 리스크관리계획 등을 수탁자의 책임으로 규정함과 더불어 신호등 체계, 리스크점수제도 등을 통해 연금재정의 건전성을 상시 평가·감독하는 리스크감독체계의 구축이 요구됨.

■ 우리나라, 호주 등은 은행, 연금, 증권 등을 통하여 운용하는 통합감독형태를 띄고 있는 반면, 네덜란드는 회사형 지배구조이기 때문에 보험감독에 기초한 감독형태를, 멕시코 등은 독립하여 감독하는 특화형 감독체제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임.

○ 호주는 통합형 감독체계를 지향하여 연금감독을 금융감독에 통합하여 감독하면서도 소비자보호 및 영업행위 규제는 분리하여 운용하는 복수감독형태를 지향하고 있으며, 멕시코는 일원형 감독형태를 지향하고 있음.

■ 이처럼 연금감독형태는 연금시장을 둘러싼 환경, 연금지배구조의 방식 등에 따라 차이가 존재하지만, 최근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감독 흐름은 리스크중심 감독체제로 전환되고 있다는 점임.

○ 즉, 규제에 의한 원칙중심 감독에서 사전적 리스크관리를 중시하는 리스크중심 감독으로 전환하는 추세임.

- 이러한 리스크중심 감독으로 전환한 배경으로는 급격한 자산가치의 하락으로 위한 파산리스크의 증대, 기업 등 연금공급자의 재무건전성 악화, 자산운용규제 완화에 따른 투자리스크의 증대 등을 들 수 있음.

■ 이러한 점에서 우리나라처럼 금융회사에 완전 위탁하여 운용하는 지배구조에서도 저금리에 따른 자산가치의 하락, 연금지급보장장치의 미흡 등을 고려해 리스크중심의 감독을 적극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그 이유는 기업 및 사업자의 자산운용부실에 따른 손실이 그대로 가입자에게 전가되어 가입자의 연금수급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임.

■ 따라서 금융위 등 감독당국은 기본적으로 규정(원칙)중심의 감독체계에서 탈피하여 국제연금감독기구(IOPS)의 가이드라인에 기초한 리스크중심 감독체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금융위원회 등 감독당국은 퇴직연금 감독규정 등 관련법규 개정을 통해 연금운용과 관련된 제반 리스크를 정의하고 이에 기초한 리스크관리 모범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이 경우 리스크관리모범기준 설정과 리스크관리계획 등을 수탁자의 책무로 규정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연금 리스크관리체계를 갖추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사업자의 리스크기준 건전성 강화를 위해 과도한 이율보증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하고 자산가치의 변화정도를 고려한 상시감독이 이루어지도록 신호등 체계(traffic light system)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신호등 체계에 의해 잉여자본(자산가치-책임준비금의 실제가치) 대비 초과 재무리스크 익스포저를 파악하여 초기에 재무위기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감독체계 마련도 검토되어야 할 것임.

- 특히, 연금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과도한 확정이율을 제시하는 사업자에 대해 운용상품에 내재된 리스크를 지급여력에 반영하는 방안 검토도 요구됨.

○ 더불어 장기적으로 리스크점수제도(Risk Scoring System)를 통해 연금리스크가 평가되고 감독이 이루어지도록 리스크감독체계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음.

- 호주처럼 연금 ALM 관리를 의무화하고 PAIRS(Probability and Impact Rating System) 시스템에 의한 SOARS((Supervisory Oversight and Response System)감독이 요구됨.

■ 결국, 연금재정의 건전성 강화를 통한 근로자인 가입자의 수급권보호를 위해 리스크중심 연금감독체제로의 전환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참 고 문 헌〉

금융감독원·미래에셋퇴직연금연구소(2010), 『가입자보호강화를 위한 퇴직연금 감독행위방향』.
 류건식·김동겸(2012), 『공사연금의 역할재정립 및 규제·감독체계개선방안』, 금융위 용역자료.
 방하남·김재현·한기정(2008), 『퇴직연금수급권 강화 등 선진화방안 법제화연구』, 노동부
 용역보고서.

방하남·김재현(2007), 『퇴직연금 재정 건전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체계적인 감독방안』,
 노동부.

APRA(2012), Supervisory Oversight and Response System.

Brunner, G, Richard Hinz, and Roberto Rocha(2008), “Risk-based Supervision of Pension Funds: A Review of International Experience and Preliminary Assessment of the First Outcomes”, presented in the 4th Contractual Savings Conference, Washington D.C.

Hinz, P. Richard and Anca Mataoanu(2005), “Pension Supervision: Understanding International Practice and Country Context”, Social Protection Discussion Paper Series, World Bank.

Hinz, P. Richard and Roberto Rocha(2006), “Risk-Based Supervision of Pension Funds: Summary of First Four Case Studies”, IOPS Conference.

IOPS(2010), “PRINCIPLES OF PRIVATE PENSION SUPERVISION”.

____(2012), “Guidelines for Supervisory Intervention, Enforcement and Sanctions”.

____(2012), “Pension Supervisory Authorities' Approaches and Structure”.

OECD(2005), “Good practices in pension supervision in the OECD area”, Fiona Stewart Bangkok.

Yu-Wei Hu and Stewart(2009), “Licensing Regulation and Supervisory Structure of Private Pension”, OECD Working Papers on Insurance and Private Pensions.

APRA(<http://www.apra.gov.au>).

<http://www.thepensionsregulator.gov.uk>

Ⅱ. 경제금융 동향

1. 세계경제

2012년 3/4분기 세계경제 성장률은 유럽 재정위기 지속, 고용여건 개선 지연, 무역 위축 등의 영향으로 전년동기대비 하락함.

- 2012년 3/4분기 세계경제 성장률¹⁾은 선진국과 신흥국 경제의 동반 부진으로 전년동기대비 2.3%를 기록하여 전분기대비 0.4%p 낮아짐.
 - 선진국경제는 고용여건 개선 부진, 정부 및 민간 부문 부채조정 등으로 전년동기대비 경제성장률이 전분기 1.5%에서 1.1%로 하락함.
 - 신흥국경제는 세계경기 둔화에 따른 해외수요 감소, 경기회복 불확실성에 따른 체감경기 악화로 전년동기대비 경제성장률이 전분기 5.3%에서 5.0%로 낮아짐.
- 3/4분기 세계경제 경기선행지수²⁾는 유럽 재정위기 지속에 따른 체감경기 둔화로 전분기 98.5에서 98.3으로 하락함.
 - 미국과 중국의 경기선행지수는 전분기와 같은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유로지역과 일본의 경기선행지수는 전분기보다 0.3p 하락함.
- 3/4분기 세계 무역규모 성장세는 세계경기 둔화와 유럽 재정위기 지속으로 선진국과 신흥국의 교역이 모두 부진해지면서 전년동기대비 둔화됨.
 - 세계 무역규모는 선진국과 신흥국의 무역규모가 전년동기대비 각각 0.1%, 3.5% 증가하여 전년동기대비 1.8% 증가에 그침.

1) 국제금융센터 인용 Goldman Sachs 재인용.

2) 세계경제는 OECD 국가들과 6개 주요 신흥국으로 구성. 2007.1=100 기준

- 미국과 일본의 무역규모는 전년동기대비 감소하였고 아시아 신흥국과 유로지역의 무역규모는 전년동기대비 둔화됨.

〈표 1〉 세계경제 주요 지표

구분	경제성장률 ¹⁾ (%)				경기선행지수 ²⁾				무역 규모 ³⁾ (%)			
	2011				2012				2011			
	연간	1/4	2/4	3/4	연간	1/4	2/4	3/4	연간	1/4	2/4	3/4
세계	3.1	2.9	2.7	2.3	99.1	98.7	98.5	98.3	5.8	2.0	3.0	1.8
선진국	1.5	1.7	1.5	1.1	99.2	99.0	99.0	98.8	4.2	0.9	1.8	0.1
신흥국	6.6	5.7	5.3	5.0	-	-	-	-	5.7	4.2	5.8	3.5
미국	1.8	2.4	2.1	2.6	99.0	99.4	99.5	99.4	1.3	1.7	7.4	-0.6
유로	1.4	-0.1	-0.5	-0.6	99.2	98.2	98.0	97.7	7.5	3.1	4.2	3.7
일본	-0.6	3.4	3.9	0.5	99.0	99.3	99.2	98.9	4.0	-0.7	-1.7	-1.4
중국	9.3	8.1	7.6	7.4	98.5	97.5	97.2	97.2	-	-	-	-
인도	6.5	5.3	5.5	5.3	99.6	98.9	98.1	97.3	-	-	-	-
브라질	2.8	0.8	0.5	0.9	98.5	97.4	98.0	98.2	-	-	-	-

주: 1)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2) 2007.1=100 기준, 세계: OECD 국가+6개 주요 신흥국, 선진국: OECD 국가, 3)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자료: 국제금융센터 인용 Goldman Sachs 재인용, 한국은행, OECD, CPB Netherlands Bureau for Economic Policy Analysis.

■ 3/4분기 세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국제유가, 곡물 및 원자재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세계경기 둔화에 따른 수요 감소로 전년동기대비 3.3%를 기록하여 전분기 3.5%보다 하락함.

- WTI 및 두바이 국제유가는 중동지역 긴장 고조에 따른 원유생산 감소로 3/4분기 배럴당 평균 100.1달러를 기록하여 전분기대비 2.3% 상승하였으며 CRB지수³⁾는 곡물 가격 상승 등으로 전분기대비 6.4% 상승함.
- 선진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분기 1.8%에서 1.7%로 낮아졌고, 신흥국은 같은 기간 6.0%에서 5.8%로 하락함.

3) 곡물, 원자재, 원유 등의 가격지수.

〈표 1〉 세계경제 주요 지표(계속)

구분	소비자물가 상승률 ¹⁾ (%)				구분	국제유가 및 원자재가격			
	2011	2012				2011	2012		
	연간	1/4	2/4	3/4		연간	1/4	2/4	3/4
세계	4.4	3.9	3.5	3.3	두바이 현물지수	107.2	116.7	103.5	107.9
선진국	2.7	2.4	1.8	1.7	WTI 현물지수	97.0	102.9	92.1	92.2
신흥국	7.1	6.2	6.0	5.8	CRB 상품지수 ²⁾	336.2	314.4	287.7	306.1

주: 1)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2) 1967=100 기준
 자료: IMF, 한국은행.

가. 미국경제

2012년 3/4분기 미국경제는 고용여건 개선, 민간 소비지출 증가, 주택경기 회복 조짐으로 전분기대비 0.8% 성장하는 완만한 회복세를 보임.

〈최근 동향 및 전망〉

■ 2012년 3/4분기 전분기대비 경제성장률은 민간소비, 주택투자 및 정부지출 증가로 전분기보다 0.5%p 상승한 0.8%를 기록함.

○ 민간소비는 고용여건 개선, 완만한 소득증가, 소비자 체감경기 상승 등의 영향으로 전분기대비 0.4% 증가함.

- 가처분소득은 전분기대비 0.5% 증가하였으며 저축률은 2/4분기 3.8%에서 3/4분기 3.6%로 하락함.

○ 민간투자는 투자심리 불안으로 설비투자가 여전히 부진하였으나 주택경기 회복 조짐에 따른 주택투자 증가에 힘입어 전분기대비 1.6% 증가함.

○ 수출은 재화수출 둔화로 전분기대비 0.5% 증가하여 성장세가 둔화되었으며 수입은 재화수입이 감소하면서 전분기대비 0.2% 감소함.

○ 정부지출은 연방 및 주정부 동반 증가로 인해 2010년 2/4분기 이후 처음으로 증가함.

〈표 2〉 미국의 실질 GDP 증가율

(단위: 전분기대비 증가율, %)

구분	2010	2011	2010		2011				2012		
	연간	연간	3/4	4/4	1/4	2/4	3/4	4/4	1/4	2/4	3/4
실질GDP	2.4	1.8	0.6	0.6	0.0	0.6	0.3	1.0	0.5	0.3	0.8
민간소비	1.8	2.5	0.6	1.0	0.8	0.2	0.4	0.5	0.6	0.4	0.4
서비스	1.0	1.9	0.5	0.6	0.5	0.5	0.4	0.1	0.3	0.5	0.1
재화	3.6	3.8	0.9	1.9	1.3	-0.2	0.3	1.3	1.2	0.1	0.9
민간투자	13.7	5.2	3.9	-1.5	-1.3	3.0	1.4	7.6	1.5	0.2	1.6
설비	0.7	8.6	1.9	2.2	-0.3	3.4	4.4	2.3	1.8	0.9	-0.5
주택	-3.7	-1.4	-8.1	0.4	-0.3	1.0	0.3	2.9	4.8	2.0	3.2
수출	11.1	6.7	2.3	2.4	1.4	1.0	1.5	0.4	1.1	1.3	0.5
수입	12.5	4.8	3.3	0.0	1.0	0.0	1.1	1.2	0.8	0.7	-0.2
정부지출	0.6	-3.1	-0.1	-1.1	-1.8	-0.2	-0.7	-0.6	-0.8	-0.2	1.0

자료: U.S. Department of Commerce(2012, 12), Bureau of Economic Analysis.

■ FOMC⁴⁾는 현재의 완만한 경기 회복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함.

○ 소비자 체감경기 개선과 주택경기 호전 징후는 경기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겠으나, 느린 고용 증가, 재정지출 급감⁵⁾ 우려에 따른 투자 부진 등은 경기회복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예상함.

○ FOMC는 2012년 성장률 전망치를 9월의 1.7~2.0%에서 1.7~1.8%로 조정함.

〈내수부문〉

■ 3/4분기 내수부문은 설비투자를 제외한 민간소비와 주택건설 부문에서 호전됨.

○ 소비자신뢰지수는 고용여건 개선, 소득증가 등의 영향으로 전분기 65.3에서 65.7로 상승하였고, 소매판매는 전분기대비 1.4% 증가함.

○ 민간기계수주는 투자심리 위축으로 전분기대비 7.7% 감소하였으나, 주택착공은 전분기대비 5.2% 증가함.

4) FOMC(2012, 12), Minutes of the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

5) 2013년 1월초 정부와 의회의 합의로 재정절벽은 회피되었으나 예산 자동삭감 수정과 채무상환선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못함.

〈표 3〉 미국의 주요 내수부문 지표

구분	2011	2011				2012			
	연간	1/4	2/4	3/4	4/4	1/4	2/4	3/4	10월
소매판매 증가율 ¹⁾ (%)	8.2	2.6	1.5	1.2	2.0	1.5	-0.4	1.4	0.7
소비자신뢰지수 ²⁾	58.1	66.9	61.5	50.3	53.6	67.5	65.3	65.7	72.2
민간기계수주액 ³⁾ (%)	17.2	3.8	6.7	-0.7	2.7	-3.3	-2.6	-7.7	2.0
주택착공호수 증가율 ³⁾ (%)	6.7	8.1	-1.8	7.4	10.5	5.4	2.9	5.2	6.9
주택가격지수 ⁴⁾	140.0	141.7	141.0	139.8	137.5	137.0	140.3	142.6	144.1

주: 1) 계절조정, 전분기대비, 월별통계는 3개월 이동평균 증가율, 2) Conference Board 1985=100, 3) 전분기대비, 월별 통계는 3개월 이동평균 증가율, 4) S&P/Case-Shiller 20대 도시 주택가격 계절조정, 2000.1=100
 자료: U.S. Department of Commerce; Bureau of Labor Statistics; The Conference Board.

■ 주택경기기는 여전히 침체된 수준이지만 정부의 부양 정책에 힘입어 회복 조짐을 보임.

- 주택가격지수는 전분기대비 1.6% 상승하였으며 기존주택판매는 2.8% 증가함.
- 주택담보대출 저금리 (재)융자 프로그램 등 주택경기 부양 정책으로 인해 주택 압류 매물이 감소하면서 기존주택 거래가 증가함.

〈생산부문〉

■ 생산부문 성장세는 해외수요 감소, 투자심리 위축 등으로 2분기 연속 둔화됨.

- 산업생산지수 상승률은 재정절벽 우려에 따른 기업투자 억제, 유로지역 및 아시아의 해외수요 감소 등의 영향으로 2/4분기 0.6%로 하락한데 이어 3/4분기 0.1%로 하락함.
- 제조업 구매자관리지수(PMI)는 국내외 주문, 재고, 생산 등 제조업 전반에 걸쳐 악화되어 전분기 52.7에서 50.3으로 하락함.

〈표 4〉 미국의 주요 생산부문 지표

구분	2011	2011				2012			
	연간	1/4	2/4	3/4	4/4	1/4	2/4	3/4	10월
산업생산지수 ¹⁾ (%)	4.1	1.1	0.3	1.4	1.2	1.4	0.6	0.1	-0.5
산업생산가동률 ²⁾	77.9	76.2	76.3	77.1	77.9	78.7	78.9	78.6	78.4
ISM제조업PMI	55.3	60.1	56.6	52.1	52.4	53.3	52.7	50.3	51.7
경기선행지수 ³⁾	104.0	113.4	114.7	93.8	94.2	95.2	95.5	95.6	96.0

주: 1) 전분기대비, 월별통계는 3개월 이동평균 증가율, 2) 2007=100, 3) 2004=100
 자료: U.S. Department of Commerce; Bureau of Labor Statistics; The Conference Board.

〈고용과 물가〉

■ 3/4분기 고용시장 여건은 실업률 하락, 일자리 수 증가, 실업수당 청구자 수 감소 등이 나타나면서 전분기보다 개선됨.

○ 실업률은 8.1%를 기록하여 전분기대비 0.1%p 하락한 반면, 구직포기자 및 비자발적 임시직 실업을 반영하는 포괄적실업률은 14.8%를 기록하여 전분기대비 0.1%p 상승함.

- 다만, 포괄적실업률은 9~10월 들어서는 하락함: 14.7%(9월) → 14.6%(10월)

○ 전분기대비 비농업 취업자 수는 전분기 20만 명에서 50만 5,000명으로 증가하였고, 월 평균 실업수당 청구자는 전분기 38만 2,000명에서 37만 명으로 감소함.

■ 3/4분기 전년동기대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에너지가격과 식료품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근원소비자물가 하락으로 전분기 보다 0.2%p 하락한 1.7%를 기록함.

○ 에너지가격과 식료품가격 상승률은 전년동기대비 -1.1%, 2.1%를 기록하여 전분기보다 각각 1.2%p, 0.8%p 상승함.

○ 전년동기대비 근원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의류, 주거비, 서비스 가격 등의 하락으로 2.0%를 기록하여 전분기대비 0.3%p 낮아짐.

- 의류 4.5% → 2.4%, 주거비 1.6% → 1.5%, 서비스가격 2.0% → 1.9%

〈표 5〉 미국의 주요 고용·물가 지표

구분	2011	2011				2012			
	연간	1/4	2/4	3/4	4/4	1/4	2/4	3/4	10월
실업률 ¹⁾ (%)	9.0	9.0	9.0	9.1	8.7	8.3	8.2	8.1	7.9
포괄적 실업률(u-6) ²⁾ (%)	15.9	15.9	16.0	16.2	15.6	14.8	14.7	14.8	14.6
비농업취업자 증감 ³⁾ (만 명)	46.0	57.6	38.9	38.3	49.2	67.7	20.0	50.5	13.8
실업수당 청구자수 ⁴⁾ (만 명)	40.9	41.4	42.4	41.0	39.0	36.9	38.2	37.0	36.7
소비자물가 상승률 ⁵⁾ (%)	3.2	2.1	3.4	3.8	3.3	2.8	1.9	1.7	2.2
근원 소비자물가 상승률(%)	1.7	1.1	1.5	1.9	2.2	2.2	2.3	2.0	1.9
생산자물가 상승률 ⁶⁾ (%)	6.0	4.9	6.9	6.9	5.4	3.4	1.1	1.5	2.3
근원 생산자물가 상승률(%)	2.4	1.8	2.2	2.7	3.0	3.0	2.7	2.5	2.1

주: 1) 16세 이상, 계절조정, 2) 구직포기자, 비자발적 파트타임 취업자 포함, 16세 이상, 계절조정, 3) 전분기대비 증감, 전월대비 증감, 4) 해당 기간의 청구자 수 평균, 5) 1982=100, 전년동기대비, 6) 1982=100, 전년동기대비
 자료: U.S. Department of Commerce; Bureau of Labor Statistics; The Conference Board.

나. 유로경제

2012년 3/4분기 유로경제는 재정위기 지속으로 소비와 투자 부진이 계속되는 가운데 수출 성장세 역시 둔화되면서 경기침체 국면이 지속됨.

〈최근 동향 및 전망〉

■ 2012년 3/4분기 전분기대비 경제성장률은 민간소비, 고정자본투자, 수출 부진의 영향으로 -0.1%를 기록함.

- 민간소비 지출은 고용 감소에 따른 가처분소득 감소, 소비자 체감경기 악화, 부채조정 등으로 인해 전분기대비 정체됨.
- 고정자본투자는 투자심리 위축과 주택담보대출 억제 등으로 인한 설비 및 주택 투자 동반 부진으로 전분기대비 0.7% 감소함.
- 정부지출은 재정긴축으로 전분기에 이어 감소세를 지속함.
- 수출은 역내 및 아시아 지역의 수요 감소로 전분기대비 0.9% 증가에 그쳐 성장세가 전분기대비 둔화되었고, 수입 역시 전분기대비 0.2% 증가에 그침.

〈표 6〉 유로지역의 실질 GDP 증가율

(단위: 전분기대비 증가율, %)

구분	2010	2011	2010		2011				2012		
	연간	연간	3/4	4/4	1/4	2/4	3/4	4/4	1/4	2/4	3/4
EA17 GDP	2.0	1.4	0.4	0.3	0.6	0.2	0.1	-0.4	0.0	-0.2	-0.1
민간소비	0.9	0.1	0.3	0.4	0.0	-0.4	0.2	-0.5	-0.3	-0.4	0.0
고정자본	-0.1	1.5	0.3	-0.7	1.9	-0.3	-0.3	-0.6	-1.2	-1.8	-0.7
정부지출	0.7	-0.1	0.1	0.0	0.1	0.1	-0.3	0.0	0.1	-0.1	-0.2
수출	11.2	6.3	2.1	1.5	1.3	1.2	1.3	0.0	0.5	1.6	0.9
수입	9.6	4.2	1.6	1.5	0.7	0.4	0.5	-1.4	-0.3	0.6	0.2

자료: Eurostat(2012. 12).

■ 지역별로는 독일, 프랑스, 영국이 플러스 성장세를 기록한 반면, 스페인, 이탈리아 등 남유럽 국가들은 마이너스 성장세를 보임.⁶⁾

- 3/4분기 독일, 프랑스 및 영국 경제는 민간소비와 수출을 중심으로 전분기대비 각각 0.2%, 0.2%, 0.9% 성장함.
- 특히, 영국은 하계 올림픽의 영향으로 전분기대비 호조를 보이면서 4분기 만에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되었음.
- 이탈리아(-0.2%)와 스페인(-0.3%) 경제는 민간소비와 투자 침체가 가속화되면서 경기 침체가 지속됨.

■ 유럽중앙은행(ECB)은 경기침체가 4/4분기에도 지속되겠으며 2013년 상반기 이후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함.

- 금융시장 불안정, 은행의 신용 축소, 해외수요 감소 등에 따른 소비자 및 기업의 체감 경기 악화로 유로지역 경기체감지수(ESI)가 3/4분기 86.4, 10월 84.3을 기록함으로써 경기침체는 4/4분기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
- ECB는 2012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9월의 -0.6~0.2%에서 -0.6~-0.4%로 하향 조정하였고 2013년 경제성장률을 -0.9~0.3%로 전망함.⁷⁾

〈내수부문〉

■ 2012년 3/4분기 소매판매는 주요국⁸⁾과 북유럽에서 증가하여 전분기대비 소폭 늘어났으나 소비자 체감경기는 금융시장 불안정, 고용여건 악화로 침체가 가속화됨.⁹⁾

- 소매판매는 남유럽(-0.7%)과 동유럽(-0.3%)에서 전분기대비 감소하였으나, 주요국(0.9%)의 호조, 북유럽(0.1%)의 증가세 전환으로 0.1% 증가함.
- 영국의 소매판매는 올림픽 특수로 전분기대비 1.4% 증가함.
- 소비자신뢰지수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전분기대비 하락하여 유로지역 평균적으로는 -24.0을 기록함.

6) 유럽 주요국의 경제지표는 〈표 7〉 유럽 주요국 실질 GDP증가율 참조.

7) ECB(2012. 12), Monthly Bulletin.

8) 독일, 프랑스, 영국.

9) 〈표 6〉 유로지역의 주요 경제지표 참조.

〈표 7〉 유로지역의 주요 경제지표

구분	2011	2011				2012			
	연간	1/4	2/4	3/4	4/4	1/4	2/4	3/4	10월
유로지역 ESI ¹⁾	101.0	106.9	105.2	98.4	93.6	94.1	91.1	86.4	84.3
소매판매 증가율 ²⁾ (%)	0.1	-0.1	-0.4	1.2	-0.2	-1.6	-0.8	0.1	-0.6
소비자신뢰지수 ³⁾	-14.6	-11.0	-10.7	-15.9	-20.6	-20.0	-19.7	-24.0	-25.7
산업생산 증가율 ⁴⁾ (%)	2.9	2.8	1.5	0.3	-11.0	-6.5	-0.5	0.4	-0.9
제조업기대지수 ⁵⁾	9.3	18.7	13.1	5.2	0.6	2.1	-3.5	-8.8	-11.2
실업률 ⁵⁾ (%)	10.2	9.9	10.0	10.2	10.6	10.9	11.3	11.5	11.7
소비자물가 상승률 ⁶⁾ (%)	2.7	2.5	2.7	2.7	2.9	2.7	2.5	2.5	2.5

주: 1) Economic Sentiment Indicator(경기채감지수), 1990~2000의 평균=100, 구성은 제조업(40%)+서비스업(30%)+소
비자신뢰(20%)+건설업(5%)+소매거래(5%), 2) 계절조정 2005=100, 전분기대비, 월별통계는 3개월 이동평균 전월
대비, 3) 향후 경기에 대한 긍정 응답자와 부정 응답자 비율(%)의 차이, 4) 비계절조정 2005=100, 전분기대비, 월
별통계는 3개월 이동평균 전월대비, 5) 계절조정, 6) 전년동기대비

자료: European Commission, Key euro area indicators(2012, 9); European Commission, Eurostat,

〈생산부문〉

■ 유로지역 산업생산은 독일의 증가세 전환에 힘입어 전분기대비 증가하였으나 산업생산
선행지수가 하락함으로써 4/4분기에는 생산부문 부진이 예상됨.

- 유로지역 산업생산은 독일의 증가세 전환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의 감소세 둔화
로 전분기대비 0.4% 증가함.
- 산업생산의 선행지수인 제조업기대지수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전분기대비 하락하여
-8.8을 기록함.

〈고용과 물가〉

■ 3/4분기 고용여건은 대부분의 지역에서 실업률이 정체 또는 상승하였고 취업자 수도 감소함으로써 전분기대비 악화됨.

- 유로지역 평균 실업률은 11.5%로 전분기보다 0.2%p 상승하였으며 취업자 수는 전분기 대비 0.2% 감소함.
- 주요국 실업률의 경우 영국만 전분기보다 하락하였고 독일과 프랑스는 같거나 상승함.
- 북유럽 국가들의 실업률은 0.1%p 하락하였으나 동유럽과 남유럽 국가들의 실업률은 전분기와 같거나 상승함.

〈표 8〉 유럽 권역별 실업률 및 소비자물가 상승률 추이

분기	실업률				소비자물가 상승률 ⁵⁾			
	주요국 ¹⁾	북유럽 ²⁾	동유럽 ³⁾	남유럽 ⁴⁾	주요국	북유럽	동유럽	남유럽
2012년 2/4 분기	7.9%	6.6%	10.1%	18.7%	2.4%	1.5%	3.5%	2.4%
2012년 3/4 분기	8.0%	6.5%	10.1%	19.4%	1.9%	1.6%	4.2%	2.5%

주: 1) 독일, 프랑스, 영국, 2) 북유럽: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 3) 동유럽: 폴란드, 루마니아,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헝가리, 4) 남유럽: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 포르투갈, 5) 전년동기대비
자료: Eurostat,

■ 2012년 3/4분기 전년동기대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분기와 같은 수준을 유지함.

- 유로지역 전년동기대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4분기와 같은 2.5%를 기록함.
 - 에너지가격 상승률은 8.0%로 전분기보다 1.3%p 상승한 반면, 식료품가격 상승률은 2.9%로 전분기보다 0.1%p 하락하였고 근원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분기와 같은 1.6%를 기록함.
- 지역별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경우 주요국에서는 전분기보다 낮아진 반면, 나머지 지역에서는 높아짐.

〈표 9〉 유럽 주요국 실질 GDP 증가율

(단위: 전분기대비 증가율, %)

구분	2010	2011	2010		2011				2012		
	연간	연간	3/4	4/4	1/4	2/4	3/4	4/4	1/4	2/4	3/4
독일 GDP	4.0	3.1	0.7	0.6	1.2	0.5	0.4	-0.1	0.5	0.3	0.2
민간소비	0.6	1.4	0.3	0.6	0.7	-0.5	1.3	-0.3	0.0	0.1	0.3
고정자본투자	5.5	6.4	1.4	-0.9	4.3	0.2	0.4	0.8	-0.8	-2.1	0.2
수출	13.7	8.2	2.0	1.0	2.7	0.5	2.1	-0.5	0.7	3.3	1.4
수입	11.7	7.8	0.9	1.3	2.3	2.2	1.7	-0.4	-0.7	2.2	1.0
프랑스 GDP	1.4	1.7	0.4	0.4	0.9	0.1	0.2	0.0	0.0	-0.1	0.2
민간소비	1.3	0.2	0.6	0.5	0.0	-0.8	0.3	-0.1	0.1	-0.1	0.3
고정자본투자	-1.4	3.5	1.3	0.2	1.5	0.4	0.3	1.3	-0.9	0.5	-0.2
수출	9.3	5.5	2.2	0.4	1.4	0.7	1.6	1.9	0.0	0.3	0.5
수입	8.3	5.2	3.8	0.2	2.8	-1.0	0.5	-1.2	0.5	1.6	-0.6
이탈리아 GDP	1.8	0.6	0.4	0.2	0.1	0.3	-0.1	-0.7	-0.8	-0.7	-0.2
민간소비	1.2	0.2	0.9	0.2	0.1	-0.1	-0.5	-1.2	-1.4	-1.2	-1.0
고정자본투자	2.0	-1.3	0.9	-1.1	0.2	-0.3	-1.1	-2.6	-4.1	-2.0	-1.4
수출	11.2	6.7	2.7	3.0	0.9	0.4	1.5	0.5	-0.5	1.0	0.5
수입	12.3	0.6	1.9	4.7	-1.2	-2.0	-1.2	-2.6	-3.5	-0.5	-1.4
스페인 GDP	-0.1	0.7	-0.1	0.1	0.3	0.2	0.0	-0.5	-0.4	-0.4	-0.3
민간소비	0.8	-0.1	-1.2	1.1	-0.7	-0.2	-0.6	-1.0	0.5	-0.9	-0.5
고정자본투자	-6.3	-5.1	-1.5	-1.3	-1.0	-1.2	-0.7	-3.3	-2.5	-3.0	-1.4
수출	13.5	9.1	3.0	1.8	1.0	1.2	3.5	0.1	-2.3	1.7	4.8
수입	9.0	-0.1	0.3	1.1	-1.0	-2.0	0.8	-2.8	-1.9	-1.3	2.4
영국 GDP	1.8	0.9	0.6	-0.4	0.4	0.1	0.6	-0.3	-0.2	-0.4	0.9
민간소비	1.3	-1.3	-0.2	0.3	-1.3	-0.3	-0.2	0.2	0.5	0.2	0.4
고정자본투자	3.5	-2.9	2.8	-1.7	-2.0	-0.4	0.3	-0.4	0.6	-0.5	-0.2
수출	6.4	4.6	0.9	3.3	1.4	-1.9	0.0	2.9	-1.7	-1.1	1.2
수입	8.0	0.5	2.1	1.5	-2.6	-0.2	0.1	1.6	-0.1	1.7	-0.4

자료: 유럽중앙은행, 독일통계청, 프랑스통계청, 이탈리아통계청, 스페인통계청, 영국통계청.

다. 일본경제

2012년 3/4분기 일본경제는 고용여건 개선에도 불구하고 해외수요 감소에 따른 수출 감소가 소비와 투자에 파급되어 내수부진을 가져오면서 5분기 만에 다시 마이너스 성장함.

〈최근 동향 및 전망〉

■ 2012년 3/4분기 전분기대비 경제성장률은 수출 감소 영향이 민간 투자와 소비에 파급되면서 -0.9%로 크게 하락함.

- 민간소비 지출은 수출 감소와 생산 조정으로 인한 소득 여건 악화, 소비진작 효과 소진¹⁰⁾ 등의 영향으로 전분기대비 0.4% 감소함.
- 주택투자 지출은 지진피해 지역 주택건설과 친환경 주택 지원제도로 전분기대비 0.9% 증가하였으나, 설비투자 지출은 체감경기 악화에 따른 기계투자 억제로 전분기대비 3.0% 감소함.
- 정부투자 지출은 지진 피해 복구 관련 사업 증가로 전분기대비 1.5% 증가함.
- 수출은 세계경제 성장세 둔화와 엔고의 영향으로 전분기대비 5.1% 감소하였으며, 수입은 화력발전 연료 수입 증가세 둔화와 국내 수요 부진으로 전분기대비 0.4% 감소함.

〈표 10〉 일본의 실질 GDP 증가율

(단위: 전분기대비 증가율, %)

구분	2010	2011	2010		2011				2012		
	연간	연간	3/4	4/4	1/4	2/4	3/4	4/4	1/4	2/4	3/4
실질 GDP	4.5	-0.7	1.3	-0.4	-1.9	-0.7	2.5	0.1	1.4	0.0	-0.9
민간소비	2.6	0.1	1.4	-0.3	-1.4	0.9	1.4	0.5	1.1	0.1	-0.4
설비투자	0.8	1.3	1.5	-2.1	0.2	-0.2	2.2	7.3	-2.4	0.1	-3.0
주택투자	-4.2	5.7	-0.2	4.5	2.1	-2.8	4.2	-0.1	-1.1	1.5	0.9
정부지출	2.2	2.0	0.2	0.6	0.1	0.4	0.1	0.5	1.4	0.5	0.6
정부투자	0.9	-3.5	0.9	-1.0	-4.0	0.6	-1.7	-1.3	7.8	5.4	1.5
수출	24.3	-0.1	2.0	-0.5	-0.5	-6.5	8.8	-3.8	3.3	0.8	-5.1
수입	11.2	6.3	2.2	0.3	1.4	-0.3	3.5	1.0	2.4	1.8	-0.4

자료: 일본 내각부(2012. 12).

10) 친환경 자동차 구입 보조금 종료(2012. 9. 21).

■ 일본중앙은행(BOJ)¹¹⁾은 세계경기 둔화 지속으로 일본경제가 3/4분기에 이어 4/4분기에도 마이너스 성장하여 경기침체 국면에 놓일 것으로 전망함.

- 일본의 주요 전망기관¹²⁾들은 4/4분기에는 지진피해 복구 주택 투자 증가세가 유지되겠으나 수출¹³⁾, 소비, 투자 부진으로 경제성장률은 전분기대비(연율) -0.1%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함.
- 일본은행은 세계경기 회복세가 나타나는 2013년 초에는 수출이 회복되면서 일본경제가 경기침체 국면을 벗어 날 것으로 예상함.

〈내수부문〉

■ 2012년 3/4분기 소비부문을 경기회복에 대한 불확실성 증대로 체감경기 개선이 지연되면서 전분기대비 위축됨.

- 소매판매는 전년동기대비로는 0.5% 증가하였으나 전분기대비로는 1.4% 감소하였고 특히, 자동차판매는 친환경자동차 보조금 효과 소진으로 전분기대비 3.1% 감소함.
- 소비자신뢰지수는 40.1을 기록하여 전분기대비 0.3p 하락함.

■ 2012년 3/4분기 투자부문을 대내외 수요 감소에 따른 민간기계수주액 감소와 주택착공 감소가 나타나면서 부진이 심화됨.

- 3/4분기 민간기계수주액¹⁴⁾은 해외수요 감소와 국내 제조업 부문 수요 감소로 전년동기대비 5.0% 감소함.
 - 해외수요 민간기계수주액은 전년동기대비 18.2% 감소하였고 국내 제조업 수요는 전년동기대비 9.3% 감소함.
- 주택착공호수는 2/4분기에는 대지진 피해 복구로 전년동기대비 6.2% 증가하였으나 3/4분기에는 전년동기대비 1.1% 감소함.

11) Bank of Japan(2012. 10), *Outlook for Economic Activity and Prices*.

12) 일본경제연구센터(40개 기관)를 대상으로 2012. 10. 25~11. 1 기간 중 설문조사한 결과임.

13) 수출은 최대 무역 상대국인 중국과의 관계 악화로 대중 수출 감소가 커져 4/4분기에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14) 선박·전력을 제외함.

〈표 11〉 일본의 주요 내수부문 경제지표

구분	2011	2011				2012			
	연간	1/4	2/4	3/4	4/4	1/4	2/4	3/4	10월
소매판매 증가율 ¹⁾ (%)	-0.3	-0.8	-1.7	-1.0	0.8	5.2	3.1	0.5	-1.2
소비자신뢰지수 ²⁾	37.7	40.5	34.4	37.3	38.5	40.0	40.4	40.1	39.7
주택착공호수 증가율 ³⁾ (%)	2.7	3.5	4.2	8.1	-4.5	3.7	6.2	-1.1	25.2
민간기계수주액 증가율 ⁴⁾ (%)	7.1	6.9	9.0	5.2	7.4	4.6	-2.4	-5.0	-4.6

주: 1) 전년동기대비, 2) 기준치=50, 3) 전년동기대비, 4) 변동성이 큰 선박·전력 제외, 전년동기대비
 자료: 일본 내각부, 경제산업성, 재무성, 총무성, 국토교통성.

〈생산부문〉

■ 2012년 3/4분기 광공업 생산은 대내외 수요 감소의 영향으로 2/4분기에 이어 전분기대비 감소함.

○ 광공업생산지수는 자동차, 일반 기계류, 전자제품 생산 등 주요 부문에서 위축되면서 전분기대비 4.2% 하락함.

- 자동차(-1.5% → 12.0%), 일반 기계류(-2.2% → -3.8%), 전자제품(-5.9% → -6.1%)

○ 전분기대비 가동률지수 증가율은 대내외 수요 감소로 -5.3%를 기록함.

〈표 12〉 일본의 주요 생산부문 경제지표

구분	2011	2011				2012			
	연간	1/4	2/4	3/4	4/4	1/4	2/4	3/4	10월
광공업생산 증가율 ¹⁾ (%)	-3.5	-1.5	-4.2	5.4	0.4	1.3	-2.0	-4.2	-1.4
- 가동률지수 증가율 ¹⁾ (%)	-3.9	-2.8	-7.1	9.6	2.1	3.1	-2.5	-5.3	-2.2
- 재고율지수 증가율 ¹⁾ (%)	6.4	-3.0	12.4	-3.8	-1.3	-1.7	7.7	5.0	-0.2

주: 1) 계절조정, 2005=100, 전분기대비, 월별통계는 3개월 이동평균 증가율.
 자료: 일본 내각부, 경제산업성, 재무성, 총무성, 국토교통성.

〈고용과 물가〉

■ 2012년 3/4분기 고용여건은 실업률, 취업자 수, 비자발적 실업자, 구직자 취업비율 등 모든 부문에서 개선됨.

- 실업률은 4.2%로 전분기 보다 0.2%p 하락하였으며, 비자발적 실업자는 전분기(10만 3,700명)보다 5만 명이 감소하였고, 비농업취업자는 전분기보다 17만 7,000명 증가함.
- 고용시장 수급관계를 나타내는 구직자 취업비율¹⁵⁾은 전분기 0.81%에서 0.83%로 개선됨.

■ 2012년 3/4분기 전년동기대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식료품 및 에너지 가격 상승률 하락, 수요 부진으로 전분기보다 0.6%p 낮은 -0.4%를 기록함.

- 전년동기대비 식료품 및 에너지 가격 상승률은 3/4분기에 각각 -0.6%, 2.0%를 기록하여 전분기보다 각각 1.2%p, 1.7%p 하락함.
-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수요도 부진하여 3/4분기 근원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분기보다 0.1%p 하락한 -0.6%를 기록함.

〈표 13〉 일본의 주요 경제지표

구분	2011	2011				2012			
	연간	1/4	2/4	3/4	4/4	1/4	2/4	3/4	10월
실업률(%)	4.6	4.8	4.7	4.4	4.5	4.5	4.4	4.2	4.1
비자발적 실업자(만 명) ¹⁾	112.8	119.7	114.0	108.7	109.0	105.3	103.7	98.7	91.0
비농업취업자 증감 ²⁾ (만 명)	2.3	16.0	-36.3	-8.0	30.7	25.7	-25.7	17.7	29.0
소비자물가 상승률 ³⁾ (%)	-0.3	-0.5	-0.4	0.1	-0.3	0.3	0.2	-0.4	-0.4
근원소비자물가 상승률 ³⁾ (%)	-0.9	-1.3	-0.9	-0.5	-1.1	-0.7	-0.5	-0.6	-0.5

주: 1) 연간화 통계, 2) 계절조정, 전분기(월)대비 증감, 3) 2010=100, 전년동기대비
 자료: 일본 내각부, 경제산업성, 재무성, 총무성, 국토교통성.

15) 내각부.

라. 중국경제

2012년 3/4분기 중국경제 성장률은 해외수요 감소에 따른 수출 부진과 소비자 및 기업 체감경기 악화에 따른 소비와 투자 지출의 둔화로 전분기 7.6%에서 7.4%로 하락함.

〈최근 동향 및 전망〉

■ 2012년 3/4분기 경제성장률은 소비와 투자가 부진해지는 가운데 수출이 크게 위축되면서 전년동기대비 7.4%를 기록함.

- 고정투자는 체감경기 하락으로 전년동기대비 20.5% 증가에 그쳤고, 소매판매는 전년 동기대비 13.5% 증가하여 성장세가 둔화됨.
- 수출은 對EU(-13.3%) 및 對미국(3.0%) 수출이 전년동기대비 각각 감소하거나 소폭 증가 하는데 그쳐 4.5% 증가하였으며, 수입은 국내 내수 부진으로 전년동기대비 1.5% 증가에 그침.

〈표 14〉 중국의 주요 경제지표

구분	2011	2011				2012			
	연간	1/4	2/4	3/4	4/4	1/4	2/4	3/4	10월
실질 GDP(%) ¹⁾	9.2	2.2 (9.7)	2.5 (9.5)	2.4 (9.1)	1.7 (8.9)	1.5 (8.1)	2.0 (7.6)	2.2 (7.4)	-
누계 고정자산투자 ²⁾ (%)	23.8	25.0	25.6	24.9	23.8	20.9	20.4	20.5	20.7
수출 증가율(%)	20.7	25.3	22.4	20.7	14.4	8.9	10.5	4.5	11.6
수입 증가율(%)	25.3	32.6	23.2	24.7	20.9	9.9	6.5	1.5	2.4

주: 1) 전분기대비, 괄호는 전년동기대비, 2) 도시지역 기준.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

■ 중국경제는 통화·재정 확대 정책 효과가 가시화되면서 4/4분기부터는 반등할 것으로 보이나 수출과 내수 회복세가 크지 않아 그 속도는 완만할 것으로 예상됨.

- 중국경제를 연착륙시키기 위한 정부의 경기부양책¹⁰⁾에 힘입어 3/4분기 중반부터 고정자산투자 증가세가 상승함.

- 전년동기대비 고정자산투자 증가율은 8월 13.2%를 기록한 이후 9월과 10월 14.2%, 14.5%로 상승함.
- IMF와 EU는 중국경제가 4/4분기에는 전년동기대비 7.7~ 8.1% 성장하여 2012년 경제 성장률이 7.7~7.8%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함.¹⁷⁾

〈내수부문〉

- 2012년 3/4분기 소매판매는 소득수준 개선과 정부의 가전 및 자동차 보조금 지급 정책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체감경기 악화로 전분기보다 위축됨.
 - 도시 및 농촌의 가계소득은 임금인상으로 3/4분기에도 두 자리 수로 증가함.
 - 도시 가계소득: (13.3% → 13.0%), 농촌 가계소득: (16.1% → 15.4%)
 - 소매판매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13.5%를 기록하여 전분기 13.9% 보다 0.4%p 하락함.
 - 특히 자동차, 통신장비 등 내구재에 대한 판매 증가율이 하락함.¹⁸⁾
 - 3/4분기 소비자신뢰지수는 99.5를 기록하여 전분기보다 2.7%p 하락함.
- 2012년 3/4분기 주택경기는 부동산 관련 투자 증가율은 둔화된 반면, 주택 가격이 상승세를 보임에 따라 혼조세를 보임.
 - 3/4분기 부동산 관련 고정투자는 부동산 과열 억제정책의 영향으로 전년동기대비 누계 증가율¹⁹⁾은 21.1%로 전분기보다 1.0%p 낮아짐.
 - 반면, 상업용 주택가격은 대출 금리 인하의 영향으로 전분기대비 상승함.
 - 2/4분기 상업용 주택가격은 주요 70개 도시 중 13개 도시에서 전분기대비 상승하였으나 3/4분기에는 39개 도시에서 전분기대비 상승함.

16) 중국인민은행은 2011년 말 이후 기준율 및 금리를 인하한데 이어, 역 RP(역환매조건부채권) 거래를 통해 유동성을 확대함. 2012년 상반기 5% 내외의 은행 간 콜금리(3개월)가 10월에는 3.5% 내외로 하락하였고, M2 증가율도 3/4분기 13.2%에서 4/4분기 14.1%로 상승함.

17) IMF(2012. 10), World Economic Outlook; European Commission(2012.11), European Economic Forecast.

18) 자동차(전년동기대비 누계 증가율): 2/4분기 9.1% → 3/4분기 6.9%; 통신장비: (전년동기대비 누계 증가율): 2/4분기 37.2% → 3/4분기 33.3%

19) 2011년 1/4~3/4분기 누계 고정투자대비 2012년 1/4~3/4분기 누계 고정투자 증가율.

〈표 15〉 중국의 주요 내수관련 지표

구분	2011	2011				2012			
	연간	1/4	2/4	3/4	4/4	1/4	2/4	3/4	10월
소매판매 증가율(%)	17.1	16.3	17.2	17.3	17.5	15.0	13.9	13.5	14.5
소비자신뢰지수	103.8	102.4	106.8	104.7	99.3	103.0	102.2	99.5	106.1
기업채감경지수	130.6	138.9	132.4	130.0	120.9	123.0	121.2	116.5	-

주: 전년동기대비.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

〈생산부문〉

■ 2012년 3/4분기 생산부문은 대내외 수요 감소, 제조업 부문 재고 정리, 수주잔고 감소 등으로 성장세가 전분기대비 둔화됨.

○ 3/4분기 산업생산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은 2/4분기보다 0.4%p 하락한 9.1%를 기록함.

○ 3/4분기 제조업 구매자관리지수(PMI)²⁰⁾는 전 부문에 걸쳐 위축이 심화되면서 3분기 만에 다시 50 이하로 하락함.

- PMI는 국내 신규주문, 수출주문, 재고, 부품구매, 고용 등에서 위축되면서 전분기보다 1.6p 하락함.

〈표 16〉 중국의 주요 생산관련 지표

구분	2011	2011				2012			
	연간	1/4	2/4	3/4	4/4	1/4	2/4	3/4	10월
산업생산 증가율(%)	13.8	14.9	13.9	13.8	12.8	11.7	9.5	9.1	9.6
구매자관리지수 ¹⁾	51.3	52.8	51.9	50.9	49.9	51.5	51.3	49.7	50.2

주: 1) 기준=50, 전년동기대비.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

20) PMI(Purchasing Managers' Index)를 구성하는 요인은 생산, 신규주문, 수출주문, 취업, 부품구매, 주문잔고, 납품업체 배송, 재고 등 11개 항목임.

〈물가〉

■ 2012년 3/4분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소비수요 둔화, 공공 주택 공급 확대에 따른 주거비 하락으로 2009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하락함.

○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동기대비)은 식료품가격, 주거비, 교통·통신비 하락으로 전분기(2.9%) 보다 둔화된 1.9%를 기록함.

- 식료품가격(5.7% → 2.8%), 주거비(1.7% → 2.2%), 교통·통신비(-0.1% → -0.6%) 등의 전년동기대비 상승률은 전분기대비 하락함.

■ 3/4분기 전년동기대비 생산자물가 상승률은 수요 감소와 에너지가격 및 원자재가격 하락으로 -3.3%를 기록함.

○ 전년동기대비 에너지가격 상승률은 전분기 1.7%에서 -2.0%로 크게 하락하였고 원자재가격 상승률 역시 전분기 -3.9%에서 -6.3%로 낮아짐.

〈표 17〉 중국의 주요 물가지표

구분	2011	2011				2012			
	연간	1/4	2/4	3/4	4/4	1/4	2/4	3/4	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5.4	5.1	5.7	6.3	4.6	3.8	2.9	1.9	1.7
생산자물가 상승률(%)	6.0	7.0	6.9	7.1	3.1	0.1	-1.4	-3.3	-2.8

주: 전년동기대비.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

2. 국내경제

〈성장 및 내수〉

2012년 3/4분기 실질GDP는 전년동기대비 1.5% 성장하는데 그쳤는데 이는 민간소비와 재화수출이 완만한 회복세를 보인 반면 설비투자와 건설투자가 감소세를 지속하였기 때문임.

■ 2012년 3/4분기 실질GDP는 수출이 개선되었으나 설비투자와 건설투자가 감소하는 등 내수 부진이 이어지면서 전년동기대비 1.5% 성장에 그침.

- 민간소비는 소득여건의 개선과 물가부담 완화 등으로 증가세를 나타냈으나 주택경기 부진과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부담이 그 폭을 제한하여 2/4분기보다 0.5%p 상승한 1.6% 증가율을 기록함.
- 설비투자는 민간소비 및 재화수출 부진과 대외경제여건의 불확실성 지속으로 6.5% 감소하였으며, 건설투자는 경기회복이 지연되면서 0.2% 감소하였음.
- 재화수출은 석유제품 등을 중심으로 2.9% 증가하여 2/4분기에 비해 완만한 회복세를 보였으나 증가폭은 1/4분기에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재화수입은 원유 및 천연가스 등이 증가하여 1.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표 18〉 실질 GDP와 지출 항목별 증가율

(단위: 전년동기대비, %)

구분	2011					2012		
	1/4	2/4	3/4	4/4	연간	1/4	2/4	3/4
실질 GDP	4.2 (1.3)	3.5 (0.8)	3.6 (0.8)	3.3 (0.3)	3.6	2.8 (0.9)	2.3 (0.3)	1.5 (0.1)
- 민간소비	2.9	3.0	2.1	1.1	2.3	1.6	1.1	1.6
- 설비투자	10.3	7.7	1.2	-3.3	3.7	8.6	-3.5	-6.5
- 건설투자	-11.0	-4.2	-4.0	-2.1	-5.0	1.5	-2.1	-0.2
- 재화수출 ³⁾	18.6	10.9	10.3	3.8	10.5	4.0	2.1	2.9
- 재화수입 ³⁾	13.8	10.0	8.0	3.5	8.7	4.6	-0.1	1.1

주: 1) 2000년 가격기준에서 2005년 연쇄가격 기준으로 전환됨.

2) ()는 계절조정이 반영된 전분기대비 증가율임.

3) F.O.B(본선인도가격)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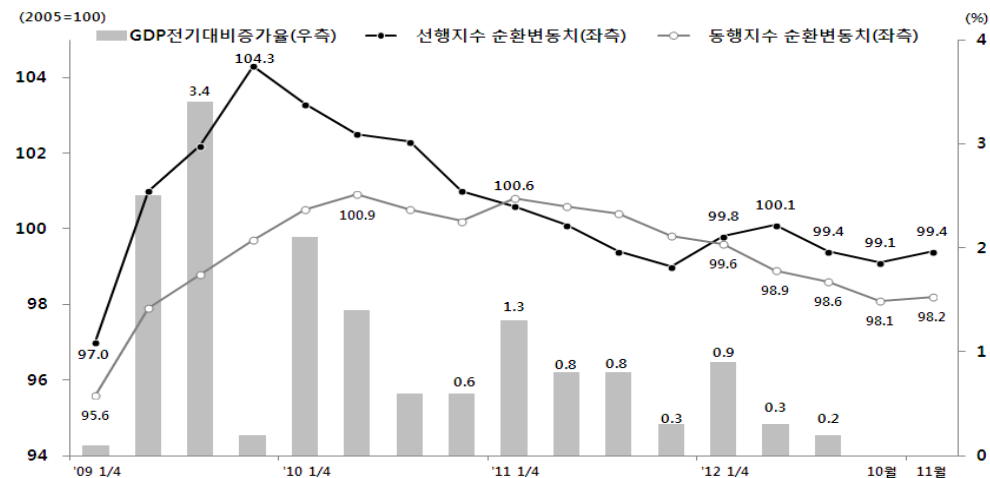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국민소득」.

■ 2012년 11월 경기동행지수와 경기선행지수는 각각 전월대비 0.6%, 0.7% 상승하였으며, 이에 대한 보조지표인 동행지수 순환변동치와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도 전월에 비하여 모두 상승하였음.

○ 경기동행지수는 건설기성액, 광공업생산지수, 소매판매액지수 등이 증가하여 전월 대비 0.8p 상승한 146.2를 기록하였으며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도 전월대비 0.1p 상승한 98.2로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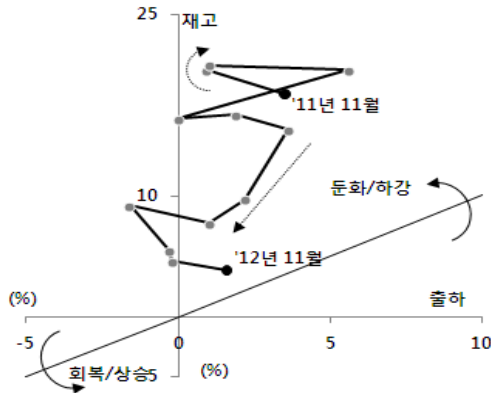
○ 11월 경기선행지수는 기계류내수출하지수, 건설수주액 등은 하락하였으나, 재고순환지표, 수출입물가비율 등이 증가하여 전월대비 1.0p 상승한 144.9를 기록하였고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도 전월보다 0.3p 상승한 99.4로 나타났음.

〈그림 1〉 GDP와 동행지수 순환변동치와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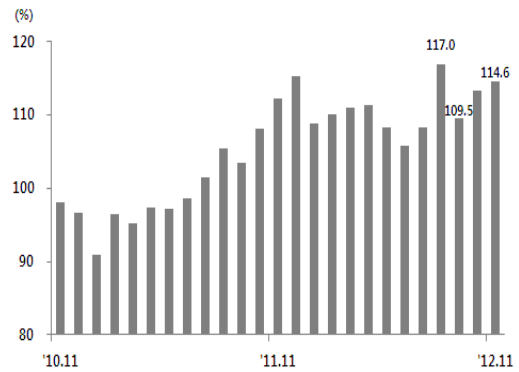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국민소득」;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그림 2〉 제조업 재고 출하 순환도



주: 재고출하 순환도는 X축에 출하 전년동월비(계절조정), Y축에는 재고 전년동월비(계절조정)를 표시하여 출하와 재고의 상호작용을 나타내고, 이를 이용하여 경기국면 변환을 판단하는 도표.

자료: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그림 3〉 제조업 재고/출하비율¹⁾

주: 1) 제조업의 출하지수에 대한 재고지수 비율
= (계절조정재고지수 ÷ 계절조정출하지수) × 100

자료: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 제조업 재고·출하순환을 보면 2012년 11월 제조업 출하 증가율은 1.6%로 2012년 10월 -0.2%에 비해 상승하였으며 재고 증가율은 전월 4.6%에서 3.8%로 하락하였음.

○ 제조업 재고/출하비율(재고율)은 114.6%로 전월대비 1.2%p 상승하였음.

■ 2012년 11월 소매판매지수는 내구재와 준내구재, 비내구재에 대한 수요가 모두 증가하면서 전년동기대비 3.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음.

○ 승용차, 가전제품 등 내구재 판매는 3/4분기동안 전년동기대비 6.1% 늘어났으며 10월과 11월에도 각각 9.0%, 6.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 의복 및 오락·취미·경기용품 등 준내구재 판매는 3/4분기 전년동기대비 1.8% 감소하였고, 10월에도 0.9% 감소세를 지속하였으나 11월에는 이른 추위²¹⁾로 의류 등이 판매 호조를 보이면서 7.3% 증가하였음.

○ 음식료품, 화장품 등 비내구재 판매는 3/4분기 0.4% 증가하였으며 10월에는 0.3% 감소하였고 11월에는 1.8% 증가하였음.

21) 11월 전국 평균기온은 6.6℃로 2003년 이후 가장 낮은 기온을 기록하였음.

〈표 19〉 소비 관련 지표 상승률

(단위: 전년동기(월)대비, %)

구분	2011				2012				
	2/4	3/4	4/4	연간	1/4	2/4	3/4	10월	11월
소매 판매	5.7	4.4	1.5	4.1	2.0	1.0	1.6	1.9	3.9
- 내구재	17.5	10.4	3.0	10.7	3.6	2.2	6.1	9.0	6.0
* 승용차	13.0	8.3	-7.7	5.5	-7.4	0.1	-1.7	14.7	17.5
- 준내구재	5.6	4.0	2.2	4.4	0.7	0.4	-1.8	-0.9	7.3
- 비내구재	-0.4	2.0	1.4	1.0	2.3	1.1	0.4	-0.3	1.8

자료: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 2012년 3/4분기 설비투자지수는 전년동기대비 7.1% 감소하였고 선행지표인 국내기계주주도 8.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10월 설비투자지수는 기계류가 3.8% 감소한 반면 운송장비가 13.8% 증가하여 1.0% 감소하는데 그쳤으나, 11월에는 기계류와 운송장비 모두에서 투자가 급감하여 9.3% 감소하였다.

○ 설비투자의 선행지표인 국내기계주주는 2012년 3/4분기 민간부문의 제조업에서 발주가 감소하면서 8.9% 감소하였다.

- 10월과 11월에는 각각 19.4%, 27.5% 감소하며 감소폭이 커졌다.

〈표 20〉 투자 관련 지표 상승률

(단위: 전년동기(월)대비, %)

구분	2011				2012				
	2/4	3/4	4/4	연간	1/4	2/4	3/4	10월	11월
설비투자지수	4.8	-3.5	-11.4	-3.7	9.3	-0.4	-7.1	-1.0	-9.3
- 기계류	7.0	-3.5	-10.7	-4.7	11.8	-1.4	-6.8	-3.8	-8.4
- 운송장비	-5.7	-3.2	-14.5	0.8	-2.9	4.8	-8.6	13.8	-12.6
국내기계주주	11.5	13.1	17.7	36.2	-2.4	-18.5	-8.9	-19.4	-27.5
건설투자	-6.8	-4.6	-4.0	-6.5	1.5	-1.4	-0.1	-	-
- 건설기성	-6.6	-8.4	-0.5	-6.7	-3.7	-10.8	-4.4	-11.7	-2.2
건축	-8.4	-8.0	-2.8	-8.4	-1.1	-13.1	-7.5	-13.3	-7.1
토목	-4.2	-8.8	2.2	-4.5	-6.9	-7.9	0.0	-9.6	3.8
- 국내건설수주	-1.7	1.5	22.4	4.0	36.6	0.8	-10.4	-22.8	-17.4
건축	-2.5	9.8	40.6	10.9	31.3	-4.3	-2.8	-15.7	-16.7
토목	0.1	-11.0	-1.1	-6.6	44.5	11.5	-24.4	-37.6	-18.8

자료: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 2012년 3/4분기 건설기성의 경우 건축공사는 7.5% 감소하였고 토목공사는 전년수준을 유지하여 4.4% 감소하는데 그쳤으나, 국내건설수주는 10.4% 감소하였는데 이는 토목부문이 24.4% 감소하였기 때문임.

- 2012년 10월 건설기성은 건축공사가 13.3%, 토목공사가 9.6% 감소하여 11.7% 감소하였으며 11월에는 토목공사가 증가세로 전환하면서 2.2% 감소하는데 그쳤음.
- 국내건설경기의 선행지표인 국내건설수주는 3/4분기 이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
 - 10월에는 건축과 토목 각각 15.7%, 37.6% 감소하여 22.8% 감소하였으며 11월에는 건축 16.7%, 토목 18.8% 감소하여 17.4% 감소하였음.

〈대외거래〉

■ 2012년 11월 수출(확정치)은 전년동월대비 3.8% 증가한 487억 달러, 수입은 0.9% 증가한 434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무역수지는 43억 8,000만 달러 흑자로 나타났음.

- 수출은 식료 및 직접소비재(9.1%), 원료 및 연료(7.1%), 경공업제품(2.7%), 중화학 공업품(3.4%) 모두 증가하였으나, 증가폭은 식료 및 직접소비재를 제외한 모든 품목이 2011년 4/4분기의 절반 이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음.
- 수입은 소비재(4.1%), 원자재(5.2%)는 증가한 반면 자본재(-9.1%)는 감소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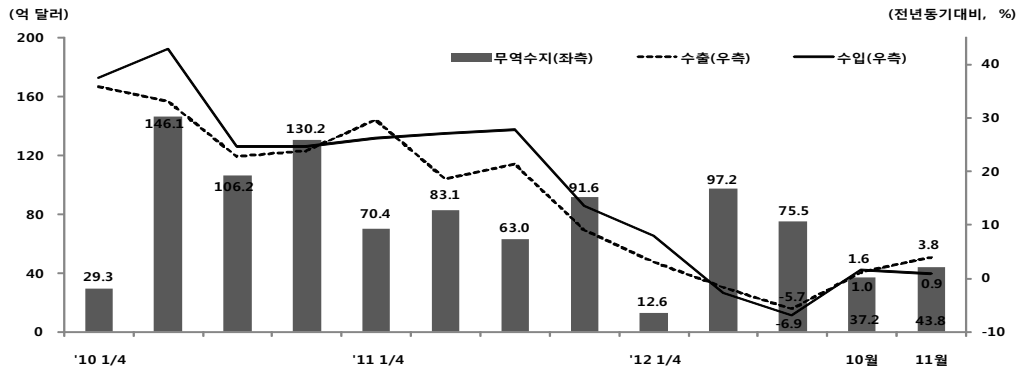
〈표 21〉 주요 품목별 수출입 증감률

(단위: 전년동기대비, %)

구분		2011					2012				
		1/4	2/4	3/4	4/4	연간	1/4	2/4	3/4	10월	11월
수출	식료 및 직접소비재	28.8	37.5	25.1	11.2	24.5	14.2	1.8	4.2	8.9	9.1
	원료 및 연료	64.8	73.5	66.1	40.2	60.2	23.4	-6.8	2.8	21.4	7.1
	경공업 제품	20.4	17.2	28.7	11.7	19.2	10.2	3.2	3.2	0.3	2.7
	중화학 공업품	27.5	14.1	15.5	6.3	15.2	-0.2	-2.1	-7.2	-1.5	3.4
	전 체	29.9	19.4	20.8	9.7	19.3	3.0	-1.7	-5.2	1.1	3.8
수입	소비재	28.9	28.1	32.4	14.6	25.6	6.3	-1.8	-2.3	6.8	4.1
	원자재	31.7	35.6	38.2	21.0	31.4	8.9	-0.8	-7.0	-1.4	5.2
	자본재	12.9	12.6	8.4	-0.7	7.9	4.8	-6.9	-10.1	6.7	-9.1
	전 체	26.3	27.1	27.7	13.4	23.3	7.6	-2.6	-7.4	1.7	0.9

자료: 관세청, 「수출입 동향」.

〈그림 4〉 대외거래지표 추이



자료: 관세청(통관 기준).

- 2012년 11월 지역별 수출입의 경우 미국, EU, 중남미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으로의 수출은 증가한 반면 수입은 동남아, 중동, 중남미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감소하였음.
- 동남아(17.3%), 중국(10.5%) 등 아시아 신흥국에 대한 수출은 전년대비 증가한 반면, 미국(-4.1%), EU(-13.9) 등 선진국으로의 수출은 감소하였음.
- EU(-9.7%), 미국(-13.1%), 중국(-7.8%)으로부터의 수입은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나, 중동(22.8%), 동남아(4.8%) 및 중남미(3.4%)로부터의 수입은 증가하였음.

〈표 22〉 주요 지역별 수출입 현황

(단위: 억 달러, %)

구분	수출				수입			
	11월	증감률	1~11월	증감률	11월	증감률	1~11월	증감률
미 국	51.8	-4.1	540.6	4.7	31.6	-13.1	402.9	-1.5
일 본	36.2	3.7	357.7	-0.5	53.4	-0.4	591.0	-5.4
E U	34.7	-13.9	455.6	-11.7	39.9	-9.7	454.4	4.8
동남아	120.0	17.3	1,155.3	4.3	56.7	4.8	626.6	-2.3
중 동	30.9	1.3	336.4	13.7	111.0	22.8	1,166.7	8.4
중 국	123.8	10.5	1,222.9	-0.2	69.1	-7.8	743.3	-6.6
중남미	24.7	-18.3	340.8	-7.6	17.7	3.4	181.8	-2.7

주: 증감률은 전년동기대비임.

자료: 관세청, 「수출입 동향」.

〈산업생산〉

■ 2012년 3/4분기 광공업 생산은 0.4% 증가하였으며, 서비스업 생산은 금융 및 보험업, 도매 및 소매업 등에서 증가하여 1.6% 늘어남.

○ 2012년 3/4분기 광공업 생산은 제조업(0.3%), ICT(3.6%)에서 증가하였으나 자동차(-10.5%)에서 큰 폭으로 감소하여 전분기에 비해 증가세는 둔화되었고, 10월에는 0.8% 감소로 전환하였다가 11월에 2.9% 증가하였음.

○ 2012년 3/4분기 서비스업 생산은 금융 및 보험업(2.7%), 도매 및 소매업(0.8%) 등이 상대적인 호조를 보였음.

- 10월 서비스업 생산은 전년동기대비 0.8% 증가하는데 그쳤으나 11월에는 2.0% 증가하였음.

〈표 23〉 산업생산지수의 증가율

(단위: 전년동기(월)대비, %)

구분	2011				2012				
	2/4	3/4	4/4	연간	1/4	2/4	3/4	10월	11월
광공업	7.2	5.3	5.0	6.9	3.8	1.5	0.4	-0.8	2.9
- 제조업	7.3	5.3	5.3	7.0	4.2	1.5	0.3	-0.8	2.9
- 자동차	11.9	16.0	12.6	13.8	10.5	4.8	-10.5	-3.4	1.3
- ICT	9.9	4.5	12.4	10.0	6.4	2.5	3.6	3.5	12.0
서비스업	3.2	4.5	2.7	3.3	2.5	1.7	1.6	0.8	2.0
- 도매 및 소매업	5.0	3.6	2.8	3.8	2.0	0.2	0.8	-0.6	1.5
- 운수업	3.5	4.2	0.9	3.9	0.3	0.7	0.6	0.5	3.0
- 숙박 및 음식점업	0.5	0.1	-1.3	-0.5	-0.8	0.2	0.7	-1.3	-0.3
- 금융 및 보험업	7.1	9.1	5.9	7.3	5.1	1.8	2.7	2.1	2.7
- 부동산 및 임대업	-10.8	-1.3	-6.0	-10.2	-8.1	-4.7	-2.7	0.3	1.3

자료: 통계청, 「산업활동 동향」.

〈물가 및 고용〉

2012년 3/4분기 소비자물가는 전년동기대비 1.6% 상승하였으며, 고용시장에서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취업자 수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음. 한편, 2012년 3/4분기 가계소득과 가계흑자액은 전년동기에 비해 늘어난 반면 실질소비지출은 전년동기에 비해 감소하였음.

■ 2012년 3/4분기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국내 경기 회복 지연에 따른 수요부진으로 전분기(2.4%)보다 상승폭이 크게 둔화된 1.6%를 기록하였음.

○ 전년동기대비 품목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살펴보면 농축수산물 1.3%, 공업제품은 1.8%, 전기·수도·가스는 6.1%, 집세는 4.0%, 공공서비스는 0.6%, 개인서비스는 0.6%로 나타남.

■ 2012년 3/4분기 소비자기대지수는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확대로 전분기보다 10.2p 낮아진 94.0으로 나타났음.

〈표 24〉 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소비심리

(단위: 전년동기대비, %)

구분	2011				2012				
	2/4	3/4	4/4	연간	1/4	2/4	3/4	10월	11월
소비자기대지수(p) ¹⁾	101.9	95.9	95.5	99.6	94.0	104.2	94.0	92.4	94.8
소비자물가지수	4.0	4.3	4.0	4.0	3.0	2.4	1.6	2.1	1.6
〈품목성질별 물가지수〉									
상품	5.4	6.1	5.4	5.7	4.1	4.0	2.2	3.0	2.0
- 농축수산물	9.1	9.5	2.8	9.2	2.3	5.8	1.3	5.9	2.9
- 공업제품	4.6	5.5	5.8	4.9	4.3	3.5	1.8	2.2	1.5
- 전기·수도·가스	4.4	4.6	6.8	4.8	5.7	4.6	6.1	3.7	3.7
서비스	2.8	2.9	2.7	2.7	2.2	1.3	1.1	1.4	1.3
- 집세	3.7	4.4	5.0	4.0	5.0	4.5	4.0	3.5	3.3
- 공공서비스	-0.4	-0.5	-1.0	-0.4	-0.2	0.7	0.6	1.1	1.3
- 개인서비스	3.9	3.9	3.8	3.7	2.4	0.6	0.6	0.7	0.7

주: 1) 소비자 기대 및 평가지수가 2008년 8월까지 통계청에서 작성된 후 2008년 9월부터 한국은행 소비자 동향지수로 개편되었으나, 자료의 연속성을 위해 '85,0/77.0 × 향후경기전망CSI(Consumer Sentiment Index)'로 산출함.

자료: 한국은행, 「소비자동향조사」; 통계청, 「소비자물가동향」 및 「소비자기대 및 평가지수」.

■ 2012년 3/4분기 전반적인 고용지표는 개선되었는데, 취업자 수는 제조업과 사업, 개인, 공공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증가하면서 2/4분기에 비해 증가율이 0.3%p 상승하였고 실업률을 또한 감소하였음.

○ 2012년 3/4분기 총 취업자 수는 전년동기대비 2.1% 증가하였고, 2012년 10월과 11월에는 각각 1.6%, 1.4%씩 증가함.

- 청년 취업자 수는 3/4분기 1.4%, 10월 2.4%, 11월 1.8% 감소하며 2/4분기에 이어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음.

○ 2012년 3/4분기 고용률은 60.0%, 10월 60.1%, 11월 59.7%로 11월에 소폭 감소하였으나 실업률은 같은 기간 3.0%, 2.8%, 2.8%로 나타났음.

- 청년실업률은 2012년 3/4분기에 6.8%를 나타내며 2/4분기에 비해 1.3%p 감소하였으나 10월에는 6.9%로 0.1%p 증가하였다가 11월에 6.7%로 다시 감소하였음.

■ 산업별로는 농림어업, 제조업을 포함한 광공업, SOC 및 기타서비스업의 취업자 수 모두 증가하였음.

○ 2012년 3/4분기 농림어업 부문 취업자 수는 전년동기대비 0.1% 증가하였으나, 2012년 10월 1.1% 감소하였으며 11월 다시 1.5% 증가하였음.

○ 2012년 3/4분기 제조업을 포함한 광공업 부문 취업자 수는 전년동기대비 2.1% 증가하였으며, 2012년 10월과 11월에도 각각 3.5%, 4.0% 증가세를 이어갔음.

○ SOC 및 기타서비스업의 취업자 수는 2012년 3/4분기에 이어 10월과 11월에도 증가세를 이어갔음.

- 2012년 3/4분기 건설업 취업자 수는 전년동기대비 0.9% 증가하였으나, 증가폭은 전 분기에 비해 1.0%p 감소하였고 10월과 11월에는 각각 0.1%, 1.9% 감소하였음.

- 반면 사업, 개인, 공공서비스 취업자수는 3/4분기 3.5% 증가하였으며 10월 2.3%, 11월 1.7% 증가하였으나 증가폭은 둔화되었음.

〈표 25〉 고용 관련 지표 상승률

(단위: 전년동기(월)대비, %)

구분	2011				2012				
	2/4	3/4	4/4	연간	1/4	2/4	3/4	10월	11월
총취업자	1.7	1.5	2.0	1.7	2.0	1.8	2.1	1.6	1.4
- 청년취업자	-1.9	0.0	-0.5	-0.9	0.1	-0.2	-1.4	-2.4	-1.8
고용률	59.9	59.5	59.4	59.1	57.8	60.2	60.0	60.1	59.7
실업률	3.4	3.1	2.9	3.7	3.8	3.3	3.0	2.8	2.8
- 청년실업률	7.9	6.7	7.1	7.6	8.2	8.1	6.8	6.9	6.7
〈산업별 취업자〉									
농림어업	0.2	-2.9	-1.5	-1.6	-2.6	-1.4	0.1	-1.1	1.5
광공업	2.7	-0.5	-2.0	1.5	-2.7	-1.6	2.1	3.5	4.0
- 제조업	2.8	-0.3	-1.8	1.6	-2.5	-1.6	2.1	3.6	4.0
SOC 및 기타서비스업	1.6	2.4	3.2	2.1	3.4	2.8	2.2	1.4	0.9
- 건설업	-2.3	-2.0	4.0	-0.1	4.9	1.9	0.9	-0.1	-1.9
- 도소매음식숙박	-0.1	1.0	1.8	0.4	1.8	2.6	2.1	1.4	1.4
- 전기, 운수, 통신, 금융	3.6	6.6	5.5	4.3	4.5	2.0	-0.4	0.0	-0.7
- 사업, 개인, 공공서비스	2.8	2.8	3.1	2.9	3.7	3.4	3.5	2.3	1.7

주: 1) 실업률은 '실업자 / 경제활동인구 × 100', 고용률은 '취업자 / 15세 이상 인구 × 100'로 정의됨.

2) 청년은 15~29세 기준임.

3) SOC는 전기가스수도 및 건설업을 포함함.

자료: 통계청, 「고용동향」.

■ 2012년 3/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과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 모두 전년동기대비 증가하였으며, 처분가능소득에서 소비지출을 차감한 흑자액도 증가하였음.

- 3/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414만 2,000원으로 전년동기대비 6.3% 증가하였으며, 실질소득도 4.6% 늘어남.
-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은 246만 7,000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0% 증가하였으나, 실질 소비지출은 0.7% 감소하였음.
- 2012년 3/4분기 월평균 처분가능소득은 335만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6.3% 증가하였고, 흑자액도 88만 3,000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4.8% 늘어남.
- 3/4분기 평균소비성향이 73.6%로 전년동기보다 1.2%p 하락하면서 저축능력을 나타내는 흑자율은 26.4%로 전년동기대비 1.2%p 상승함.

〈표 26〉 가계소득 및 소비지출 관련 지표 상승률

(단위: 전년동기대비, %, %p)

구분	2011				2012		
	2/4	3/4	4/4	연간	1/4	2/4	3/4
가구당 월평균 소득(만 원)	371.4	389.8	388.3	384.2	412.4	394.2	414.2
- 증가율	5.2	6.3	7.2	5.8	6.9	6.2	6.3
- 실질소득 증가율	0.9	1.5	3.3	1.9	3.8	3.7	4.6
처분가능소득(만 원)	301.3	315.1	318.0	311.9	333.3	321.9	335.0
- 증가율	4.4	6.3	7.2	5.5	6.8	6.8	6.3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만 원)	230.4	244.4	238.0	239.3	256.8	238.6	246.7
- 증가율	5.1	5.8	3.9	5.0	5.3	3.6	1.0
- 실질소비지출 증가율	1.7	2.0	-0.1	1.0	2.2	1.1	-0.7
흑자액(만 원)	70.9	70.8	80.1	72.7	76.5	83.3	88.3
- 증가율	4.6	7.7	21.7	8.3	12.2	17.5	24.8
평균소비성향	76.5	77.5	74.8	76.7	77.0	74.1	73.6
흑자율	23.5	22.5	25.2	23.3	23.0	25.9	26.4

주: 평균소비성향 = (소비지출 ÷ 처분가능소득) × 100

흑자율 = (흑자액 ÷ 처분가능소득) × 100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

3. 금융경제

〈금리〉

2012년 4/4분기 국고채 금리는 분기초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큰 폭으로 하락한 이후 연중 추가 금리인하에 대한 시장의 기대심리가 약화되며 소폭 상승 마감하였음. 기준금리는 4/4분기 중 한 차례 인하된 이후 2.75%로 유지되고 있음.

■ 기준금리는 10월 중 25bp 인하된 이후 2.75%로 동결 유지되고 있음.

- 금융통화위원회는 유로지역 재정위기 및 미국 재정긴축 문제 등으로 세계 경제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물가상승률이 농산물·석유류 가격하락과 수요압력 완화로 당분간 낮게 유지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기준금리를 2.75%로 동결한다고 밝힘.

■ 2012년 4/4분기 국고채(3년) 금리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 등으로 전분기 평균 2.88%에서 2.81%로 7bp 하락하였음.

- 국고채 금리는 10월 초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선반영되며 기준금리를 하회하며 최저치(10/10일 2.71%)를 기록하였으나, 이후 연중 기준금리 추가 인하에 대한 기대감 약화와 외국인 국채선물 순매도 영향으로 소폭 상승하며 마감하였음.
- 국고채 금리는 12월 중 미 연준의 추가 양적완화정책 발표로 상승하였으나, 이후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다시 부각되며 하향세를 나타내었음.

■ 양도성 예금증서(91일) 금리는 분기 초 기준금리 인하로 큰 폭으로 하락하며 전분기에 이어 국고채(3년) 금리를 하회하였으며, 신용스프레드는 전분기대비 소폭 하락하였음.

- 양도성 예금증서(91일)는 기준금리 인하로 전분기대비 33bp 하락하였음(3/4분기 평균 3.22% → 4/4분기 평균 2.89%).
- 국고채 금리(3년)는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금리 하락폭이 크지 않아 '국고채(3년)-양도성 예금금리' 간 스프레드는 전분기 평균 -34bp에서 -0.08bp로 축소되었음.

- ‘회사채(AA-)-국고채(3년)’간 스프레드는 시장금리 하락으로 회사채 발행여건이 개선되고, 웅진사태 이후 BBB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 우려가 증가하며 상대적으로 우량채권에 대한 수요가 강세를 띠면서 전분기평균 56bp에서 50bp로 축소되었음.

〈표 27〉 금리 및 스프레드 추이

(단위: %)

구분	10년 4/4	11년 4/4	12년 3/4	12년 4/4	전분기 대비	전년동기 대비
기준금리	2.50	3.25	3.00	2.75	-0.25	-0.50
CD(91일)	2.73	3.56	3.22	2.89	-0.33	-0.67
국고채(3년)	3.30	3.41	2.88	2.81	-0.07	-0.60
회사채(3년, AA-)	4.16	4.26	3.44	3.31	-0.13	-0.95
스프레드(국고3년/CD)	0.57	-0.15	-0.34	-0.08	0.26	-0.07
스프레드(회사채-국고채)	0.86	0.85	0.56	0.50	-0.06	-0.35

주: 금리는 분기 평균값임.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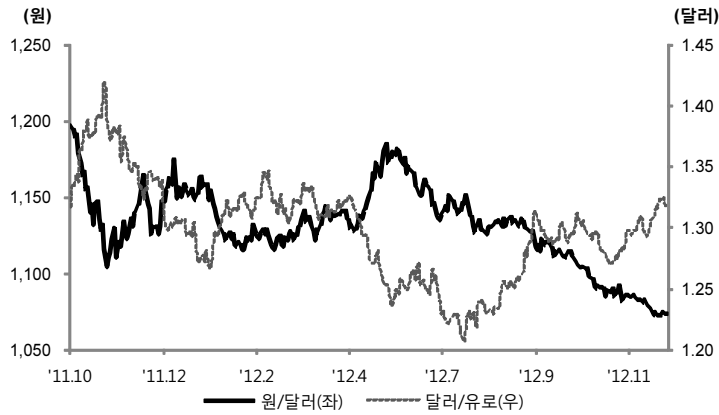
〈환율〉

2012년 4/4분기 원/달러 환율은 달러약세 지속 및 수출기업 달러 매도수요가 이어지며 지속적인 하락세를 나타내었음. 분기 평균환율은 1,091원으로 3/4분기 평균환율 1,134원 보다 43원 하락하였음.

■ 원/달러 환율은 미 연준의 추가부양책에 따른 달러화 약세 전망과 수출업체 달러 매도 등으로 하락하였음.

- 10월 원/달러 환율은 안전자산 선호 약화와 현대중공업의 사우디 발전소 수주 및 수출업체들의 원화수요(달러 매도)로 하락(월평균 1,106.9원)
- 11월 원/달러 환율은 미 오바마 대통령 재선에 따른 양적완화 정책기조 유지에 대한 기대감과 수출업체들의 원화수요(달러 매도)로 하락(월평균 1,087.5원)
- 12월 원/달러 환율은 년 말 수출업체 달러 매도 및 외국인 주식 매수자금 유입으로 하락(월평균 1,076.9원)

〈그림 5〉 환율 추이



자료: Bloomberg.

■ 달러화는 안전통화 선호 약화와 추가 경기부양책 시행 등에 대한 우려로 유로화 대비 약세를 나타내었으며, 3/4분기 평균 1.25 달러에서 4/4분기 평균 1.30 달러를 기록하였음.

- 10월 달러화는 무디스의 스페인 신용등급 유지와 미 경제지표 호조 등으로 안전통화 선호 심리가 약화되며 유로화 대비 약세 마감(월평균 1.30 달러)
- 11월 달러화는 미 경제지표 개선 및 유로존 경기둔화 우려 등으로 유로화 대비 강세 마감(월평균 1.28 달러)
- 12월 달러화는 그리스 구제금융 조건 합의에 따른 유로존 우려 완화와 재정절벽 협상 난항에 대한 우려 등으로 유로화 대비 약세 마감(월평균 1.31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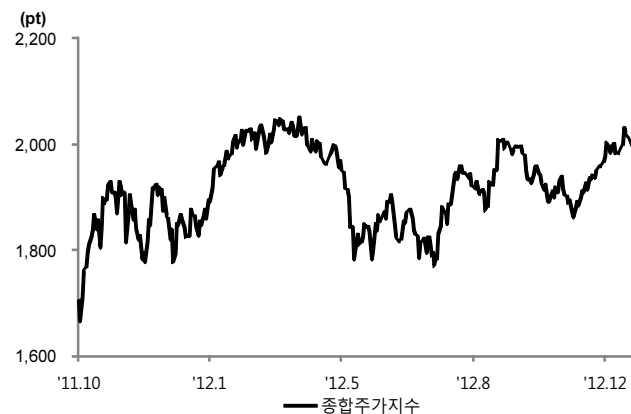
〈주가지수〉

2012년 4/4분기 종합주가지수는 경제지표 및 기업실적 발표와 투자주체별 매매동향에 연동되며 보합권 움직임을 나타내었음(4/4분기 증가 1,997 포인트).

■ 2012년 4/4분기 주가는 특정한 모멘텀 없이 기업실적과 경제지표 발표에 따라 소폭의 등락을 거듭하며 전분기 증가 1,996포인트보다 1포인트 높은 1,997 포인트를 기록하며 마감하였음.

- 종합주가지수는 주요국 경기부양책에 대한 기대감과 기업실적 등에 따라 등락을 거듭하였으며, 거래대금 감소로 외국인 매매동향에 연동되는 움직임을 보임.
- 10월 종합주가지수는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경기둔화 전망 및 3/4분기 국내 기업실적 악화에 대한 우려감 등으로 전월대비 하락 마감(10월 증가 1,912 포인트)
- 11월 종합주가지수는 주요국 경제지표 호조 및 국내 산업활동지표 개선 등으로 전월대비 소폭 상승 마감(11월 증가 1,932 포인트)
- 12월 종합주가지수는 미국의 추가 경기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및 외국인 순매수 전환 및 저가매수세 유입 등으로 상승 마감(12월 증가 1,997 포인트)

〈그림 6〉 주가지수 추이



자료: Bloomberg.

〈자금흐름〉

2012년 3/4분기 보험권 순수수신은 전분기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은행권 순수수신은 소폭 감소하였으며, 증권·투신은 순유입을 기록하였음.

■ 2012년 3/4분기 보험권 총순수수신은 전분기 대비 25.1% 증가하였음.

- 생명보험 순수수신은 수입보험료가 크게 증가하며 전분기대비 37.4% 증가하였음.
- 손해보험 순수수신은 원수보험료가 다소 크게 감소하며 전분기대비 -13.5%의 감소세를 나타내었음.

■ 2012년 3/4분기 은행 순수신은 전분기 대비 5.9% 감소하였으며, 투신은 3분기 연속 자금 순유입을 기록하였음.

- 은행권 수신은 수시입출식 예금을 중심으로 감소하였으나 이후 꾸준히 자금이 재유입이 되었으며, CD순발행 규모는 전분기에 이어 지속적인 감소를 나타내었음.
- 증권사 수신은 고객예탁금과 CMA 유입액이 증가하며 큰 폭의 자금 유입을 보임.
- 투신권 수신은 MMF 및 주식형을 중심으로 자금 유출이 있었으며, 파생상품 및 특별자산펀드 등이 증가하며 전체적으로 순자금유입을 나타내었음.

〈표 28〉 금융기관 순수신 추이

(단위: 억 원)

구분	2010	2011				2012		
	4/4	1/4	2/4	3/4	4/4	1/4	2/4	3/4
보 험	97,513	95,956	109,637	117,629	123,927	122,280	139,507	174,488
- 생 보	68,578	64,883	78,241	89,732	97,036	96,041	105,806	145,350
- 손 보	28,935	31,073	31,396	27,897	26,891	26,239	33,701	29,138
은 행	274,211	201,600	145,827	242,881	263,282	269,108	120,525	113,355
- 일 반	150,020	123,112	162,787	197,704	173,064	190,485	108,131	54,395
- 신 탁	124,191	78,488	-16,960	45,177	90,218	78,623	12,394	58,960
증 권	18,619	34,410	-33,405	34,901	10,078	44,117	-33,365	67,718
투 신	-111,569	-131,059	-10,171	80,566	-105,662	50,029	83,820	32,104
총 금	9,480	-10,921	-40,343	-2,093	-52,656	11,809	-490	-17,161

주: 보험의 순수신은 수입(원수)보험료에서 지급보험금(원수손해액)을 차감하여 산출함.
 자료: 보험개발원; 한국은행.

Ⅲ. 국내보험시장 동향

1. 보험산업 총괄

가. 수입보험료

FY2012 2/4분기 보험산업 수입보험료는 생명보험이 고성장하면서 28.5% 증가한 44조 8,000억 원을 기록하였으며 농협보험을 제외하고도 20.8%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함.

■ FY2012 2/4분기 보험산업의 수입(원수)보험료는 손해보험이 장기보험을 중심으로 고성장을 이어갔으나 증가율은 전분기에 비해 소폭 둔화된 반면, 생명보험의 수입보험료가 생존보험과 생사혼합보험을 중심으로 급증하면서 28.5% 증가한 44조 8,000억 원을 기록함.

-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세제개편에 따른 생존보험과 생사혼합보험 수입보험료의 급증으로 전년동기대비 35.9% 증가한 28조 1,000억 원을 기록하였으며, 농협생명보험을 제외할 경우에도 24.5% 증가함.
-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자동차보험 저성장에도 불구하고 장기보험과 연금부문의 고 성장에 힘입어 17.8% 증가한 16조 7,000억 원을 기록하였으며, 농협손해보험 제외할 경우에는 15.4% 증가에 그침.

〈표 1〉 보험산업 수입보험료

(단위: 조 원, %)

구분	FY2011					FY2012		
	1/4	2/4	3/4	4/4	연간	1/4	2/4 (농협포함)	2/4 (농협제외)
생명보험	21.1	20.7	23.7	22.4	87.8	24.5	28.1	25.8
	(9.5)	(7.7)	(1.5)	(5.6)	(5.8)	(16.5)	(35.9)	(24.5)
손해보험	14.1	14.2	16.6	16.1	61.0	16.8	16.7	16.4
	(16.5)	(16.0)	(13.6)	(21.0)	(16.7)	(19.4)	(17.8)	(15.4)
합계	35.1	34.9	40.3	38.5	148.8	41.3	44.8	42.1
	(12.2)	(10.9)	(6.1)	(11.5)	(10.0)	(17.6)	(28.5)	(20.8)

주: 1) 주요지표의 각 하단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임.

2) 손해보험의 경우 원수보험료 기준임.

3) 특별계정이 포함됨.

4) 반올림에 따른 오차(rounding error)가 존재함.

자료: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생·손보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나. 총자산

FY2012 2/4분기 말 보험산업 총자산은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의 자산증가세 둔화로 전분기대비 4.8% 증가한 675조 원을 기록함.

■ FY2012 2/4분기 말 보험산업 총자산 규모는 손해보험 자산이 전분기보다 둔화된 5.4%의 증가율을 기록하였고 생명보험 자산 증가율이 4.7%를 기록하면서 전체적으로 4.8% 증가한 675조 원을 나타냄.

- 생명보험 총자산은 생존보험과 생사혼합 보험 등 일반계정 수입보험료 급증으로 인해 책임준비금이 크게 증가하면서 4.7% 증가한 529조 원에 이름.
- 손해보험 총자산은 일반계정 원수보험료 고성장으로 책임준비금이 증가하고 퇴직연금 호조세로 특별계정 자산도 늘어나면서 전분기대비 5.4% 증가한 146조 원을 기록함.

〈표 2〉 보험산업 총자산

(단위: 조 원, %)

구분	FY2011					FY2012		
	1/4	2/4	3/4	4/4	연간	1/4	2/4 (농협포함)	2/4 (농협제외)
생명보험	425.0	429.4	442.7	458.2	458.2	505.4	529.2	489.1
	(2.0)	(1.0)	(3.1)	(3.5)	(10.0)	(10.3)	(4.7)	(4.8)
손해보험	112.8	116.5	123.3	129.8	129.8	138.5	146.0	143.2
	(10.3)	(3.3)	(5.9)	(5.3)	(27.0)	(6.7)	(5.4)	(5.1)
합계	537.8	545.9	565.9	588.0	588.0	643.9	675.2	632.3
	(3.7)	(1.5)	(3.7)	(3.9)	(13.3)	(9.5)	(4.8)	(4.9)

주: 1) 주요지표의 각 하단 수치는 전분기대비 증가율임.

2) 특별계정이 포함됨.

3) 반올림에 따른 오차(rounding error)가 존재함.

자료: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생·손보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다. 수익성

FY2012 2/4분기 보험산업 자본이익률의 경우 생명보험 자본이익률은 전분기와 동일한 반면 손해보험 자본이익률은 전분기대비 하락하면서 전년동기대비 0.2%p 상승한 2.3%를 기록함.

■ FY2012 2/4분기 보험산업 전체 자본이익률은 생명보험의 자본이익률이 전년동기대비 소폭 상승한 반면 손해보험의 자본이익률은 다소 하락하면서, 전년동기대비 0.2%p 상승한 2.3%를 기록하였음.

- 생명보험산업에서는 보험영업이익 증가폭이 컸으나 책임준비금전입액이 크게 증가하지 않아 자본이익률이 전년동기대비 0.6%p 상승한 1.9%를 기록함.
- 손해보험산업에서는 투자영업이익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보험영업손실이 증가하며 전년동기대비 0.4%p 하락한 3.2%를 기록함.

〈표 3〉 보험산업 자본이익률

(단위: %)

구분	FY2010	FY2011					FY2012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생명보험	12.8	2.8	1.3	1.8	2.5	8.9	1.9	1.9
손해보험	16.1	5.9	3.6	2.5	1.9	15.4	4.0	3.2
합계	13.8	3.8	2.1	2.1	2.3	10.8	2.6	2.3

주: 1) 생명 및 손해보험회사는 농협생명, 화재보험 진입으로 FY2012 1분기부터 각각 24개, 18개 국내외 보험회사를 분석대상으로 함.

2) 분기 자본이익률 = 당분기 당기순이익 / 기중자본

3) 연간 자본이익률 = 누적 당기순이익 / ((전회계연도 말 자본 + 당기 말 자본 - 누적 당기순이익) / 2)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각 월호.

2. 생명보험

가. 수입보험료 및 총자산

〈생명보험 개요〉

■ FY2012 2/4분기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단체보험 수입보험료의 낮은 증가에도 불구하고 일반저축성보험을 중심으로 한 개인보험 수입보험료가 급증하면서 전년동기대비 35.9% 증가(농협생명보험 제외 시 24.5%)한 28조 1,000억 원을 기록함.

○ 개인보험 수입보험료는 사망보험의 저성장과 변액보험 수입보험료 감소에도 불구하고 세제개편에 따른 수요확대로 생존보험과 생사혼합보험이 급성장하면서 전체적으로 37.5%(농협생명보험 제외 시 25.5%) 증가 함.

○ 단체보험 수입보험료는 퇴직연금 수입보험료가 증가세로 전환되면서 전체적으로 1.5% 증가함.

■ FY2012 2/4분기 생명보험 총자산은 일반계정 수입보험료 증가로 책임준비금이 크게 증가하고 전분기대비 주가지수 상승으로 특별계정 자산이 5.3% 증가하면서 전체적으로 4.7% 증가함.

〈표 4〉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및 총자산

(단위: 조 원, %)

구분	FY2011					FY2012		
	1/4	2/4	3/4	4/4	연간	1/4 (농협포함)	2/4 (농협포함)	2/4 (농협제외)
수입보험료	21.1 (9.5)	20.7 (7.7)	23.7 (1.5)	22.4 (5.6)	87.8 (5.8)	24.5 (16.5)	28.1 (35.9)	25.8 (24.5)
총 자산	425.0 (2.0)	429.4 (1.0)	442.7 (3.1)	458.2 (3.5)	458.2 (10.0)	505.4 (10.3)	529.2 (4.7)	489.1 (4.8)

주: 1) 수입보험료는 분기별 통계로서 변액보험 및 퇴직보험·연금 특별계정을 포함한 실적임.

2) 하단은 증가율이며, 총자산은 전분기대비, 수입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임.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종목별 수입보험료 현황〉

■ FY2012 2/4분기 개인보험 수입보험료는 변액보험 수입보험료의 감소세가 심화된 반면 사망보험이 플러스 성장을 지속하고 생존보험과 생사혼합보험 수입보험료가 급증하면서 37.5%(농협생명보험 제외 시 25.5%)의 높은 증가세를 기록함.

- 사망보험 수입보험료는 6.5%(농협생명보험 제외 시 1.7%) 증가하면서 플러스 증가세를 지속하였으며, 종신보험 수입보험료가 8.0% 증가하면서 사망보험의 성장을 견인함.
- 생존보험 수입보험료는 2012년 8월 발표된 세제개편안에 의하면 2013년부터 즉시연금에 대한 세제혜택이 축소되는데, 이로 인해 세제혜택 축소 전 가입수요가 급증하면서 107.5%(농협생명보험 제외 시 80.9%)의 높은 증가율을 나타냄.
 - 2012년 8월 8일 발표된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10년 이상 유지하는 저축성보험 계약이라도 10년 내 인출금액에 대해서는 과세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으며, 이에 따라 종신연금도 10년 내 인출금액에 대해 연금소득세가 부과됨.
 - 생존보험 초회보험료 중 월납 초회보험료는 139.4% 증가하고 일시납 초회보험료는 497.2% 증가함.
- 생사혼합보험 수입보험료 또한 2013년부터 중도인출분에 대해 과세하기로 함에 따라 제도변경 전 가입수요가 물리면서 대형 3사를 중심으로 91.7%(농협생명보험 제외 시 60.9%)의 급증세를 나타냄.
 - 생사혼합보험 초회보험료는 244.6% 증가하였으며, 대형 3사의 경우 500.5%의 급증세를 나타냄.
- 변액보험 수입보험료는 주식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변액연금 수익률 논란 이후 특별한 수요확대 요인이 나타나지 않으면서 5.4% 감소하였으며, 초회보험료는 53.1% 감소함.
 - 변액보험 종목별로는 변액연금과 변액유니버설보험이 각각 5.5%, 6.4%의 감소세를 나타낸 반면 변액종신보험 수입보험료는 3.7% 증가함.
 - 한편, 일반저축성보험 수입보험료가 급증하면서 일반저축성보험 수요가 변액저축성보험 수요를 일부 대체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FY2012 2/4분기 단체보험 수입보험료는 퇴직보험과 일반단체보험의 수입보험료가 감소한 반면 퇴직연금 수입보험료가 8.8% 증가하면서 전체적으로 1.5% 증가함.

○ 퇴직연금은 2분기 연속 30%대의 감소를 나타낸 후 3분기 만에 증가세로 돌아섬.

〈표 5〉 생명보험 종목별 수입보험료

(단위: 억 원, %)

구분		FY2011					FY2012		
		1/4	2/4	3/4	4/4	연간	1/4 (농협포함)	2/4 (농협포함)	2/4 (농협제외)
생존	보험료	40,937	43,061	43,773	51,654	179,425	58,357	89,359	77,907
	증가율	1.5	3.1	-1.2	16.1	5.0	42.6	107.5	80.9
	구성비	19.4	20.8	18.5	23.1	20.4	23.8	31.8	30.2
사망	보험료	71,520	71,649	71,772	72,171	287,112	76,376	76,309	72,887
	증가율	-0.3	-0.3	-0.2	0.8	0.0	6.8	6.5	1.7
	구성비	34.0	34.6	30.3	32.2	32.7	31.1	27.1	28.3
생사 혼합	보험료	27,350	28,489	29,406	37,134	122,378	46,073	54,615	45,826
	증가율	13.1	14.5	7.4	29.0	16.3	68.5	91.7	60.9
	구성비	13.0	13.8	12.4	16.6	13.9	18.8	19.4	17.8
변액 보험	보험료	52,972	54,714	52,149	53,102	212,937	52,354	51,775	51,775
	증가율	17.8	20.0	3.1	0.3	9.7	-1.2	-5.4	-5.4
	구성비	25.2	26.4	22.0	23.7	24.2	21.3	18.4	20.1
개인계	보험료	192,778	197,913	197,100	214,061	801,852	233,160	272,058	248,395
	증가율	6.4	7.5	1.5	8.2	5.9	20.9	37.5	25.5
	구성비	91.5	95.6	83.2	95.6	91.3	95.1	96.7	96.4
단체	보험료	17,839	9,040	39,798	9,831	76,508	12,126	9,175	9,175
	증가율	59.9	12.5	1.4	-31.0	5.3	-32.0	1.5	1.5
	구성비	8.5	4.4	16.8	4.4	8.7	4.9	3.3	3.6
합계	보험료	210,617	206,953	236,899	223,891	878,360	245,286	281,233	257,569
	증가율	9.5	7.7	1.5	5.6	5.8	16.5	35.9	24.5

주: 1) 단체보험은 퇴직보험·연금 특별계정이 포함됨.

2)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분기) 또는 전년대비(연간)임.

3) 반올림에 따른 오차(rounding error)가 존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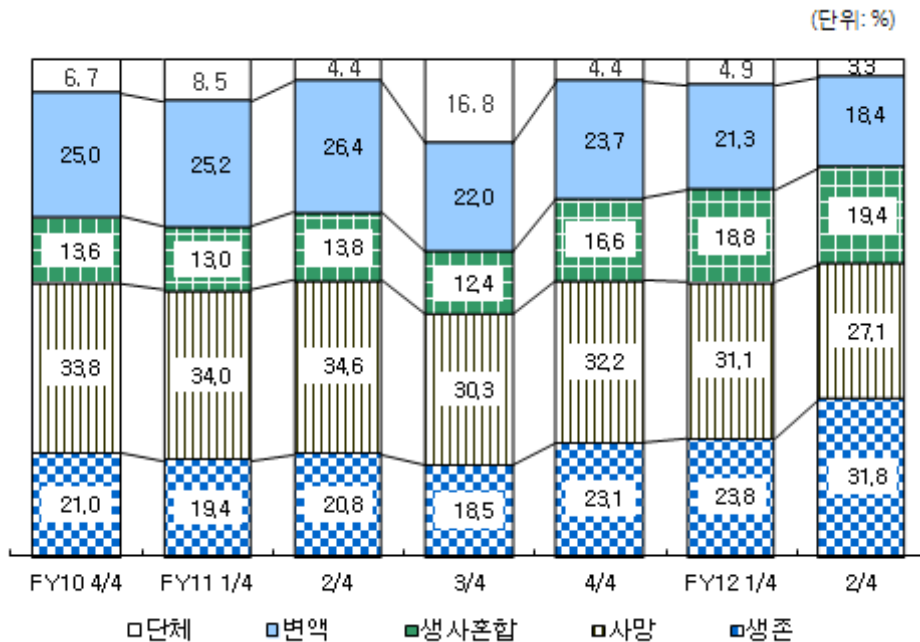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종목별 수입보험료 구성비〉

■ FY2012 2/4분기 생명보험 종목별 수입보험료 구성비의 경우 수입보험료가 급증한 생존보험과 생사혼합보험의 비중이 크게 상승하고 사망보험, 변액보험, 단체보험의 비중은 하락함.

- 생존보험 비중은 전년동기대비 11.0%p 증가한 31.8%로 생명보험 상품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생사혼합보험 비중은 5.6%p 증가한 19.4%로 나타남.
- 사망보험 비중은 전년동기대비 7.5%p 하락한 27.1%로 나타났으며, 변액보험과 단체보험은 수입보험료 부진과 농협생명 진입 효과¹⁾로 전년동기대비 각각 8.0%p 1.1%p로 하락한 18.4%, 3.3%로 나타남.

〈그림 1〉 생명보험 종목별 수입보험료 구성비 변동 추이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1) 농협생명보험은 변액보험과 단체보험을 취급하지 않고 있음.

〈회사그룹별 시장점유율〉

■ FY2012 2/4분기 수입보험료 기준 시장점유율은 농협생명보험 진입 효과에도 불구하고 상위 3사의 수입보험료가 크게 증가하면서 상위 3사와 국내중소형사의 시장점유율이 상승하고 외국사의 점유율이 크게 하락함.

- 상위 3사는 생존보험과 생사혼합보험에서 생명보험 전체 성장률을 크게 상회하는 높은 성장세를 나타내면서 전년동기대비 0.1%p 확대된 50.9%의 점유율을 나타냈으며, 중소형사의 점유율은 농협생명진입 효과로 4.1%p 상승한 33.2%를 나타냄.
- 외국사의 점유율은 수입보험료가 급증한 저축성보험에서의 상대적 부진과 농협생명 진입 효과로 4.2%p 하락한 15.9%를 기록함.

■ FY2012 2/4분기 허핀달지수는 상위 3사의 점유율 상승으로 전년동기대비 0.0040 포인트 상승한 0.1176으로 나타남.

〈표 6〉 생명보험시장 시장점유율(수입보험료 기준)¹⁾

(단위: %)

구분	FY2011					FY2012		
	1/4	2/4	3/4	4/4	연간	1/4 (농협포함)	2/4 (농협포함)	2/4 (농협제외)
상위 3개사	52.7	50.8	53.6	50.1	51.8	45.8	50.9	55.5
국내중소형사 ³⁾	27.3	29.1	28.6	30.6	28.4	37.2	33.2	27.1
외국사 ⁴⁾	20.0	20.1	17.8	19.3	19.8	17.0	15.9	17.4
허핀달지수 ²⁾	0.1219	0.1136	0.1258	0.1111	0.1179	0.1031	0.1176	0.1318

주: 1) 퇴직보험·연금 및 변액보험 특별계정 수입보험료를 포함한 실적임.

2) 허핀달지수는 각사 시장점유율을 제곱한 값을 합한 수치로서 시장집중도를 나타내며, 지수가 0.18 이상인 경우에는 시장이 상당히 집중되어 있다고 판단함.

3) 외국사는 지분변동을 기준, 2012년 12월 말 알리안츠 등 9개사이며 ING, 카디프는 국내지분이 있으나 외국사로 간주함.

4) 국내중소형사(12개사)는 상위 3사와 외국사를 제외한 보험회사로 함.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보험금 지급률 및 사업비율〉

■ FY2012 2/4분기 생명보험산업의 보험금 지급률은 사망보험과 변액보험의 지급률이 상승한 반면 생존보험, 생사혼합보험, 단체보험의 지급률이 하락하면서 전년동기대비 8.3%p 낮아진 48.3%로 나타남.

- 사망보험은 사망급여 및 입원급여의 증가로 지급률이 전년동기대비 3.9%p 상승한 56.9%를 나타냈으며, 변액보험 지급률은 수입보험료 감소와 함께 해약환급금이 증가하면서 전년동기대비 9.5%p 상승한 57.5%를 나타냄.
- 수입보험료가 급증한 생존보험과 생사혼합보험의 지급률은 전년동기대비 각각 30.7%p, 1.7%p 감소한 30.1%, 44.0%를 기록함.

■ 수입보험료 대비 실제 지출한 사업비율은 전년동기대비 3.7%p 하락한 14.0%로 나타났으며, 해지율은 전년동기보다 0.1%p, 소폭 상승한 5.4%를 기록함.

〈표 7〉 생명보험 보험금 지급률, 사업비율 및 해지율

(단위: %)

구분	FY2010	FY2011					FY2012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보험금 지급률	64.7	62.9	56.6	59.0	56.9	58.9	56.9	48.3
개 인 계	56.8	54.0	52.3	51.1	53.0	52.6	53.9	45.6
- 생 존	55.7	54.5	60.8	58.9	51.2	56.1	44.1	30.1
- 사 망	51.3	50.4	53.0	53.2	56.7	53.3	55.0	56.9
- 생사혼합	55.3	44.8	45.7	45.0	39.1	43.3	65.3	44.0
- 변 액	66.6	63.3	48.0	45.0	59.3	53.9	53.1	57.5
단 체	147.2	158.4	152.5	98.5	143.2	124.6	113.9	127.7
사 업 비 율	16.2	16.5	17.7	15.5	16.7	16.6	15.4	14.0
해 지 율	10.5	2.8	5.3	7.9	10.2	10.2	2.8	5.4

주: 1) 보험금 지급률 = 지급보험금 / 수입보험료, 사업비율 = 실제사업비 / 수입보험료
 해지율 = (효력상실액 + 해지액) / (연초보유계약액 + 신계약액)

2) 해지율은 누계치임.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나. 경영수지

〈총수익 · 총비용〉

■ FY2012 2/4분기 생명보험산업 당기순이익은 보험영업이익과 투자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하여 전년동기대비 78.3% 증가한 9,250억 원을 기록함.

- 보험영업이익의 경우 보험영업비용이 지급보험금 21.8%, 사업비 20.0% 증가로 인해 19.5% 증가한 반면, 보험영업수익은 개인보험료의 증가로 52.2% 증가하면서 전년동기대비 175.2% 증가함.
- 투자영업이익은 투자영업비용이 금융자산처분손실 및 평가손실의 감소로 57.8% 감소한 반면, 투자영업수익은 2.2% 소폭 증가하는데 그치며 전년동기대비 28.2% 증가하였음.

〈표 8〉 생명보험산업 총수익 및 총비용

(단위: 십억 원, %)

구분		FY2010	FY2011					FY2012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총수익	보험영업	59,070	14,438	14,788	14,957	16,688	60,872	18,563	22,505
	투자영업	19,594	5,247	5,481	4,402	4,894	20,024	5,656	5,600
	영업외	3,975	898	903	902	961	3,664	984	1,000
	소 계	82,639	20,583	21,173	20,261	22,543	84,560	25,204	29,105
총비용	보험영업	46,730	10,864	11,683	11,756	12,397	46,700	14,023	13,958
	투자영업	2,860	1,044	1,657	258	348	3,308	1,049	699
	영업외	657	176	238	171	153	738	165	168
	소 계	50,247	12,084	13,578	12,186	12,898	50,746	15,236	14,825
수지차	보험영업	12,340 (57.5)	3,575 (9.8)	3,105 (-10.3)	3,201 (20.6)	4,291 (44.6)	14,172 (14.8)	4,540 (27.0)	8,547 (175.3)
	투자영업	16,734 (21.6)	4,203 (1.8)	3,824 (0.2)	4,144 (2.3)	4,546 (-4.0)	16,717 (-0.1)	4,608 (9.6)	4,901 (28.2)
	영업외	3,319	721	666	730	808	2,926	820	832
	소 계	32,392	8,499	7,595	8,075	9,645	33,814	9,968	14,280
	책임준비금전입	26,979	7,126	6,944	7,090	8,291	29,452	8,909	13,103
법인세		1,394	281	132	253	325	992	215	252
당기순이익		4,019 (63.7)	1,091 (-15.1)	519 (-38.2)	732 (-21.2)	1,029 (6.6)	3,371 (-16.1)	844 (-22.6)	925 (78.3)

주: 1) 보험영업 및 투자영업 실적은 특별계정을 제외한 일반계정 실적임.

2) () 안은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임.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각 월호.

〈자산 운용〉

■ FY2012 2/4분기 운용자산 이익률과 일반계정자산 이익률은 글로벌 금융불안 및 저금리 등의 영향으로 각각 전년동기대비 0.4%p, 0.2%p 하락한 4.8%와 4.5%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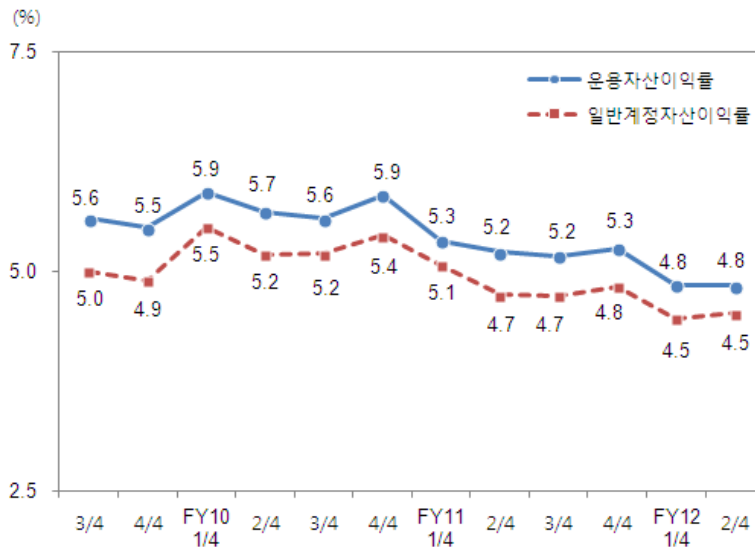
- 운용자산 중 유가증권 이익률은 전년동기대비 0.4%p 하락한 4.4%인데, 이는 전체 유가증권 중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매도가능증권의 운용수익률이 0.8%p 정도 하락하였기 때문임.

○ 대출채권 이익률은 전년동기대비 0.2%p 하락한 7.0%였으며, 부동산 이익률은 전년동기와 유사한 3.8%를 기록함.

■ 일반계정 투자자산 비중은 유가증권 69.1%, 대출채권 17.6%, 현금과 예금 3.9%, 부동산 3.2%임.

○ 전년동기에 비해 대출채권 비중은 소폭 줄어든(1.9%p) 반면, 만기보유증권의 증가로 유가증권 비중은 소폭 증가함(2.9%p).

〈그림 2〉 운용자산 이익률 추이



주: 1) 분기별 누적치이며 운용자산은 일반계정자산에서 비운용자산을 제외한 것임.

2) 운용자산의 투자이익률은 각 사의 업무보고서 재산이용명세서를 기준으로 하였음.

3) 운용자산 이익률 = (운용자산이익 × 2) / (기초자산 + 기말자산 - 운용자산이익) × (연기준 환산)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표 9〉 생명보험산업 자산운용 포트폴리오

(단위: %, 억 원)

구분	FY2011						FY2012			
	2/4		3/4		4/4		1/4		2/4	
	구성비	이익률	구성비	이익률	구성비	이익률	구성비	이익률	구성비	이익률
현 금 과 예 금	3.8	3.9	4.0	3.8	4.1	3.8	3.9	3.6	3.9	3.5
유 가 증 권	66.0	4.8	65.9	4.7	66.3	4.8	68.1	4.4	69.1	4.4
○ 당기손익인식증권	1.9	-3.0	1.5	0.3	1.6	2.6	2.2	2.4	2.5	5.2
- 주 식	0.1	-35.9	0.1	-24.5	0.1	-8.0	0.1	-31.4	0.1	-2.2
- 채권 등	0.8	-1.6	0.8	2.3	0.7	4.1	0.8	4.5	0.8	8.3
- 수익증권	1.0	-0.6	0.6	1.4	0.8	2.7	1.3	4.2	1.6	4.1
○ 매도가능증권	50.2	5.0	50.4	4.8	51.4	4.7	47.6	4.3	49.3	4.2
- 주 식	4.4	1.5	4.9	0.9	5.3	1.9	4.7	0.3	4.8	-0.1
- 채권 등	43.2	5.1	43.2	5.0	43.5	5.0	40.3	4.8	41.9	4.7
- 수익증권	2.6	9.1	2.4	8.3	2.5	5.8	2.6	2.5	2.6	3.4
○ 만기보유증권	13.0	5.1	13.1	5.2	12.5	5.4	17.0	5.2	15.9	5.2
- 채권 등	13.0	5.1	13.1	5.2	12.5	5.4	17.0	5.2	15.9	5.2
- 수익증권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 관계·종속기업투자주식	0.9	1.7	0.8	1.2	0.9	7.2	1.4	4.2	1.4	2.5
대 출 채 권	19.5	7.2	19.3	7.4	18.9	7.4	18.1	6.9	17.6	7.0
부 동 산	3.7	3.8	3.7	3.6	3.7	3.5	3.3	3.6	3.2	3.8
운 용 자 산 계	93.0	5.2	92.9	5.2	93.0	5.3	93.3	4.8	93.7	4.8
비 운 용 자 산	7.0	-1.5	7.1	-0.9	7.0	-0.6	6.7	-0.9	6.3	0.0
일 반 계 정 자 산 계 (자 산 운 용 률)	100.0 (81.7)	4.7	100.0 (81.9)	4.7	100.0 (81.3)	4.8	100.0 (83.2)	4.5	100.0 (83.1)	4.5
특 별 계 정 자 산	18.3	-5.8	18.1	-2.3	18.7	0.9	16.8	-5.4	16.9	3.0
총 자 산	100.0	2.7	100.0	3.4	100.0	4.1	100.0	2.8	100.0	4.3
총 자 산 규 모	4,293,992		4,426,524		4,582,041		5,052,803		5,291,873	

주: 1) 이익률은 누계실적임.

2) 자산구성비는 일반계정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수익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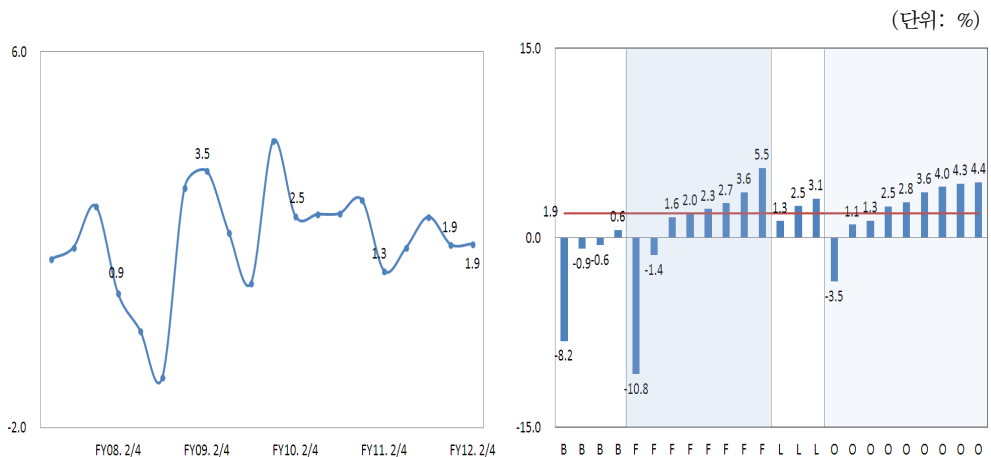
1) 자본이익률(기중자본대비 당기순이익)²⁾

■ FY2012 2/4분기 생명보험산업 자본이익률은 전년동기대비 0.6%p 상승한 1.9%를 기록했으며, 전분기대비 동일한 수준을 유지함.

○ 대부분의 외국사와 중소형사의 자본이익률은 산업평균(1.9%)을 상회하였으며, 방카사의 자본이익률은 산업평균을 하회하였음.

○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일부 중소형사, 외국사, 방카사는 음(-)의 자본이익률을 보임.

〈그림 3〉 생명보험산업 자본이익률 현황



주: 1) 오른쪽 그림은 FY2012 2/4분기 생명보험회사별 자본이익률임.

2) B, F, L, O는 각각 방카사, 외국사, 대형사, 중소형사를 의미함.

3) 회사별 자본이익률 분포에서 표시된 실선은 산업수준의 자본이익률을 의미함.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2) 보험회사 경영성과지표 중 하나인 자본이익률(R_t / E_t^o : 기중자본대비 당기순이익)을 매출이익률(R_t / S_t : 매출액대비 당기순이익), 자산회전율(S_t / A_t^o : 기중자산대비 매출액), 레버리지비율(A_t^o / E_t^o : 기중자본대비 기중자산)로 분해하여 분석하며, 분석대상은 이번 분기부터 농협생명보험의 진입으로 24개 회사임.

■ FY2012 2/4분기 생명보험산업 자본이익률은 전년동기대비 당기순이익이 하락한 방카사를 제외한 모든 그룹에서 상승하였으며, 전분기대비 기준으로는 중소형사와 방카사의 자본이익률이 하락하였음.

- 대형사와 외국사는 당기순이익이 하락하여 자본이익률이 각각 전년동기대비 0.7%p, 0.6%p, 전분기대비 0.2%p, 0.1%p 상승함.
- 중소형사의 자본이익률은 전년동기대비로는 0.1%p 소폭 상승하였으나 전분기대비로는 0.7%p 하락하였음.
- 방카사의 자본이익률은 전년동기대비 1.5%p 하락하였으며 전분기대비로는 1.6%p 하락함.

〈표 10〉 생명보험산업 자본이익률 추이

(단위: %)

구분	FY2010	FY2011					FY2012	
	연간 ²⁾	1/4	2/4	3/4	4/4	연간 ²⁾	1/4	2/4
대형사	13.6	2.6	1.2	1.4	2.2	7.5	1.7	1.9
중소형사	5.7	4.4	2.1	2.5	3.6	13.5	2.9	2.2
외국사	13.1	3.1	1.5	3.3	2.6	11.4	2.0	2.1
방카사	3.7	-0.8	-0.3	0.1	1.3	0.4	-0.2	-1.8
전체	12.4	2.8	1.3	1.8	2.5	8.7	1.9	1.9

주: 1) 분기 자본이익률 = 당분기 당기순이익 / 기중자본

2) 연간 자본이익률 = 누적 당기순이익 / ((전회계년도 말 자본 + 당기 말 자본 - 누적 당기순이익) / 2)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FY2012 2/4분기 생명보험산업 자본이익률 상승은 매출이익률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자산회전율의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남.

- 방카사의 경우 레버리지비율과 자산회전율은 모두 상승한 반면 매출이익률은 소폭 하락하였으며, 자본이익률은 전년동기대비 개선되었음.
- 대형사와 외국사 모두 매출이익률이 큰 폭으로 하락하고 레버리지비율 역시 하락하였으나 자산회전율이 개선되며 전년동기대비 상승하였음.
- 한편, 중소형사는 레버리지비율은 변동이 없었으나 매출이익률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자본이익률은 전년동기대비 하락하였음.

〈표 11〉 생명보험산업 자본이익률 분해

(단위: 배, %)

구분	레버리지비율			자산회전율			매출이익률		
	FY2011 2/4	FY2012 1/4	FY2012 2/4	FY2011 2/4	FY2012 1/4	FY2012 2/4	FY2011 2/4	FY2012 1/4	FY2012 2/4
대형사	8.5	8.4	8.3	4.7	4.5	5.6	6.5	4.5	4.1
중소형사	12.4	12.6	12.4	8.8	8.2	8.2	4.1	2.3	2.2
외국사	7.4	7.2	6.9	6.8	6.4	6.7	6.2	4.3	4.5
방카사	11.0	13.2	12.8	9.6	9.7	9.8	-0.8	-0.2	-1.4
전체	8.9	8.9	8.9	5.8	6.1	6.5	5.5	3.5	3.3

주: 1) 레버리지비율(배) = 기중자산 / 기중자본
 2) 자산회전율(%) = 영업수익 / 기중자산
 3) 매출이익률(%) = 당기순이익 / 영업수익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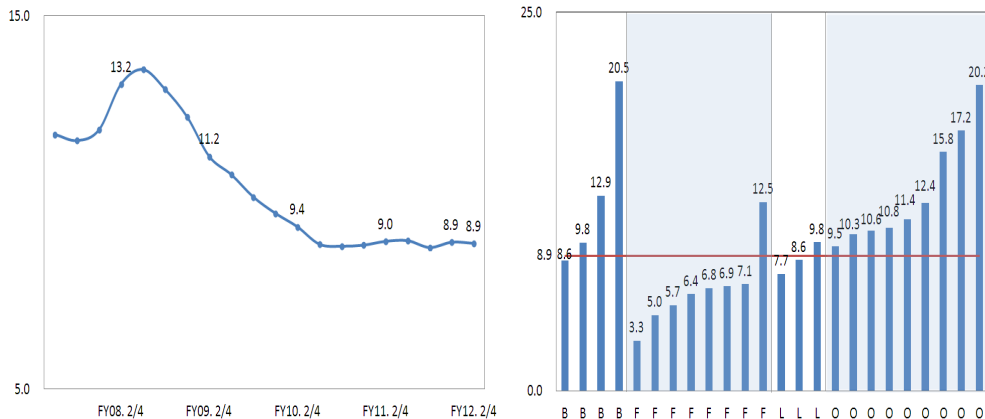
① 레버리지비율(기중자본대비 기중자산)

■ FY2012 2/4분기 생명보험산업 레버리지비율은 8.9배로 전년동기와 유사한 수준임.

○ 대형사와 외국사 레버리지비율은 평균 수준을 하회하고 있고, 방카사 및 중소형사는 평균 수준을 상회하고 있음.

〈그림 4〉 생명보험산업 레버리지비율 현황

(단위: 배)



주: 1) 오른쪽 그림은 FY2012 2/4분기 생명보험회사별 레버리지비율임.
 2) B, F, L, O는 각각 방카사, 외국사, 대형사, 중소형사를 의미함.
 3) 회사별 레버리지비율 분포에서 표시된 실선은 산업수준의 레버리지비율을 의미함.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FY2012 2/4분기 회사그룹별 생명보험산업 레버리지비율은 8.9배로 전분기와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였음.

○ 전분기대비 기준으로 대형사, 중소형사, 외국사, 방카사 모두 레버리지비율이 소폭 하락하였음.

〈표 12〉 생명보험산업 레버리지비율 추이

(단위: 배)

구분	FY2010	FY2011					FY2012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대형사	10.8	8.5	8.7	8.7	8.4	11.0	8.4	8.3
중소형사	15.7	12.4	12.4	12.6	12.6	15.2	12.6	12.4
외국사	10.7	7.5	7.3	7.2	7.2	10.2	7.2	6.9
방카사	16.8	11.0	11.3	11.9	12.5	15.7	13.2	12.8
전체	11.4	8.9	9.0	9.0	8.8	10.8	8.9	8.9

주: 레버리지비율 = 기중자산 / 기중자본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FY2012 2/4분기 생명보험산업의 자산증가율과 자본증가율은 농협생명보험이 포함되며 각각 23.2%, 31.0%로 큰 폭의 상승세를 나타냈음.

○ 전분기대비 기준으로 전체 자산은 4.7% 증가한 반면 자본은 10.8% 증가함에 따라 산업 전체 레버리지비율이 소폭 하락하였음.

〈표 13〉 FY2012 2/4분기 생명보험산업 자산 및 자본증가율

(단위: %)

구분	자산증가율		자본증가율	
	전년동기대비	전분기대비	전년동기대비	전분기대비
대형사	12.5	4.5	22.6	10.7
중소형사	73.3	4.7	92.3	9.2
외국사	12.6	4.9	20.8	11.7
방카사	28.1	7.3	28.6	19.3
전체	23.2	4.7	31.0	1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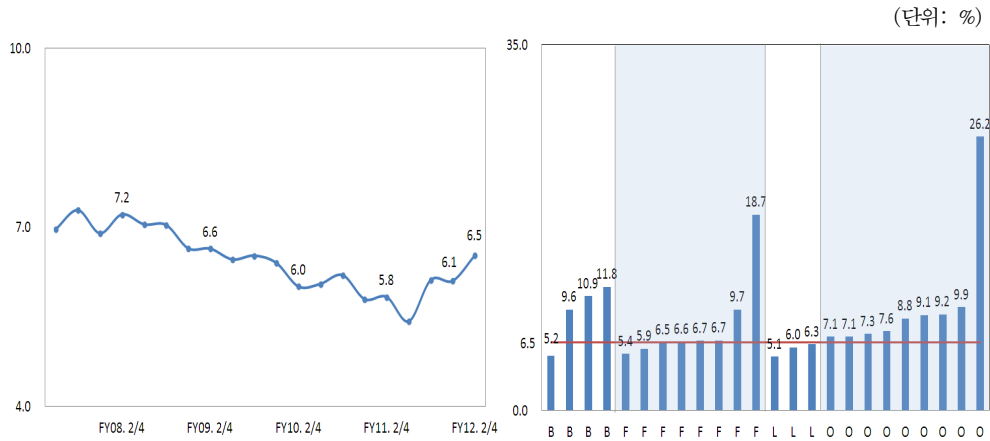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② 자산회전율(기중자산대비 매출액)

■ FY2012 2/4분기 자산회전율은 투자영업회전율이 소폭 하락하였으나 보험영업회전율이 증가하며 전년동기대비 소폭 상승한 6.5%를 기록하였음.

- 대형사의 자산회전율은 5.6%를 기록하였으며, 중소형사, 외국사, 방카사는 각각 8.2%, 6.7%, 9.8%를 기록함.
- 대형사의 자산회전율이 전년동기대비 0.9%p 상승한 반면 중소형사의 자산회전율은 0.7%p 하락하였음.
- 외국사, 방카사의 자산회전율은 각각 6.7%, 9.8%로 전분기대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함.

〈그림 5〉 생명보험산업 자산회전율 현황



주: 1) 오른쪽 그림은 FY2012 2/4분기 생명보험회사별 자산회전율임.

2) B, F, L, O는 각각 방카사, 외국사, 대형사, 중소형사를 의미함.

3) 회사별 자산회전율 분포에서 표시된 실선은 산업수준의 자산회전율을 의미함.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전년동기대비 보험영업회전율은 0.9%p 차이로 큰 폭 상승하였으며 투자영업회전율은 0.3%p 차이로 하락하였음.

○ 전분기대비로는 보험영업회전율은 0.5%p 상승하였으며 투자영업회전율은 0.1%p 하락하였음.

〈표 14〉 생명보험산업 자산회전율 분해

(단위: %)

구분	자산회전율			보험영업			투자영업		
	FY2011 2/4	FY2012 1/4	FY2012 2/4	FY2011 2/4	FY2012 1/4	FY2012 2/4	FY2011 2/4	FY2012 1/4	FY2012 2/4
대형사	4.7	4.5	5.6	3.1	3.1	4.3	1.6	1.4	1.3
중소형사	8.9	8.2	8.2	7.3	6.8	6.9	1.6	1.4	1.3
외국사	6.6	6.4	6.7	5.2	5.1	5.4	1.4	1.3	1.3
방카사	9.8	9.7	9.8	8.4	8.6	8.6	1.4	1.1	1.2
전체	5.8	6.1	6.5	4.3	4.7	5.2	1.6	1.4	1.3

주: 1) 자산회전율 = 영업수익 / 기중자산

*영업수익 = 보험영업수익 + 투자영업수익

2) 보험영업회전율 = 보험영업수익 / 기중자산

3) 투자영업회전율 = 투자영업수익 / 기중자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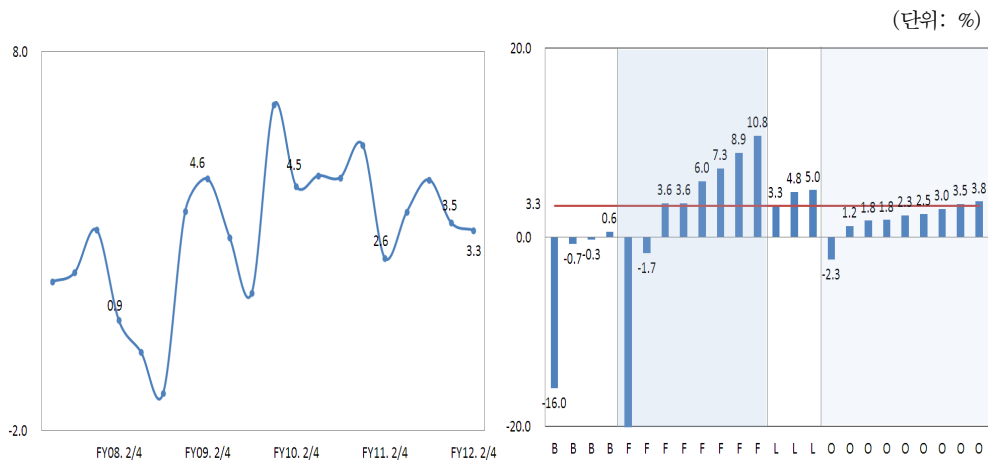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③ 매출이익률(매출액대비 당기순이익)

■ FY2012 2/4분기 생명보험산업 매출액이익률은 전년동기대비 기준으로 매출액과 당기순이익이 모두 증가하며 3.3%을 기록함.

○ 대형사와 다수 외국사의 매출이익률이 각각 4.1%, 4.5%로 산업평균을 상회하는 가운데 방카사와 중소형사 대부분은 부진한 매출이익률 수준을 나타냄.

〈그림 6〉 생명보험산업 매출이익률 현황



주: 1) 오른쪽 그림은 FY2012 2/4분기 생명보험회사별 매출이익률임.

2) B, F, L, O는 각각 방카사, 외국사, 대형사, 중소형사를 의미함.

3) 회사별 매출이익률 분포에서 표시된 실선은 산업수준의 매출이익률을 의미함.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FY2012 2/4분기 생명보험산업 보험영업이익률은 크게 증가한 반면 투자영업이익률은 소폭 하락하면서 전분기대비 매출이익률은 다소 하락함.

○ 보험영업이익률은 대형사, 중소형사, 외국사, 방카사 모두 큰 폭으로 개선되었음.

○ 투자영업이익률은 대형사, 외국사, 방카사의 경우 소폭 하락하였으며 중소형사의 경우 소폭 개선되었음.

〈표 15〉 생명보험산업 매출이익률 분해

(단위: %)

구분	매출이익률			보험영업			투자영업		
	FY2011 2/4	FY2012 1/4	FY2012 2/4	FY2011 2/4	FY2012 1/4	FY2012 2/4	FY2011 2/4	FY2012 1/4	FY2012 2/4
대형사	2.9	4.5	4.1	7.6	13.3	30.3	23.0	24.5	20.6
중소형사	1.9	2.3	2.2	29.7	22.7	32.7	12.6	14.2	13.6
외국사	3.2	4.3	4.5	9.5	16.2	20.1	16.9	16.5	16.8
방카사	-0.2	-0.2	-1.4	45.3	49.8	51.2	12.9	11.1	11.0
전체	2.6	3.5	3.3	15.3	18.7	30.4	18.9	19.0	17.4

주: 1) 매출이익률 = 당기순이익 / 영업수익 * 당기순이익 = 영업이익 + 영업외이익 + 특별계정이익 - 법인세비용

2) 보험영업이익률 = 보험영업이익 / 영업수익 * 영업수익 = 보험영업수익 + 투자영업수익

3) 투자영업이익률 = 투자영업이익 / 영업수익 * 영업수익 = 보험영업수익 + 투자영업수익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다. 판매채널

〈모집형태별 초회보험료〉

■ FY2012 2/4분기 모집형태별 초회보험료 비중은 저축성 보험 판매 급증과 농협생명보험의 진입으로 방카슈랑스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임직원, 설계사, 대리점의 비중은 모두 감소함.

○ FY2012 2/4분기 방카슈랑스 비중은 방카슈랑스를 통한 생존보험과 생사혼합보험의 판매가 급증하고 방카슈랑스 비중이 절대적인 농협생명보험이 진입하면서 전년동기대비 22.5%p 상승한 72.5%를 기록함.

○ 반면 임직원, 설계사, 대리점의 비중은 각각 10.1%p, 9.9%p, 2.0%p 하락한 2.6%, 19.6%, 5.3%를 나타냄.

〈표 16〉 생명보험 모집형태별 비중(초회보험료 기준)

(단위: %, 억 원)

구분	FY2011					FY2012		
	1/4	2/4	3/4	4/4	연간	1/4 (농협포함)	2/4 (농협포함)	2/4 (농협제외)
임직원	22.7	12.7	32.5	7.3	21.3	5.3	2.6	2.7
설계사	27.0	29.5	23.5	23.4	24.7	19.3	19.6	21.5
대리점	9.5	7.3	7.2	6.7	7.1	5.4	5.3	6.1
중개사	0.0	0.0	0.0	0.0	0.0	0.0	0.0	0.0
방카슈랑스	40.3	50.0	36.5	62.3	46.6	69.9	72.5	69.6
기타	0.4	0.4	0.3	0.3	0.3	0.1	0.0	0.0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33,748	29,400	42,032	42,889	148,510	45,622	82,265	70,749

주: 합계의 하단 수치는 전체 초회보험료 규모임.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모집조직〉

■ FY2012 2/4분기 생명보험산업의 모집조직의 경우 임직원 수와 설계사 수가 증가하였으나 대리점 수는 감소함.

- 임직원 수는 전분기대비 521명 증가한 29,586명으로 나타났으며, 국내중소형사에서 감소하였으나 상위 3사와 외국사에서 증가함.
- 설계사 수는 전분기에 비해 1,589명 증가하였으며, 전속설계사는 2,268명 증가한 반면 교차설계사는 679명 감소함.
 - 전속설계사 수는 국내중소형사에서 46명 감소하고 상위 3사에서 387명 증가에 그친 반면 외국사에서는 1,927명이 증가함.
- 대리점 수는 개인대리점과 법인대리점이 각각 110개, 6개 감소하면서 전체적으로 116개가 감소한 8,865개를 나타냄.

〈표 17〉 생명보험 모집조직 규모

(단위: 명, 개)

구분	FY2010	FY2011				FY2012	
	4/4	1/4	2/4	3/4	4/4	1/4	2/4
임 직 원	26,586	26,717	27,339	27,340	27,963	29,065	29,586
설 계 사	146,065	147,671	150,161	152,294	153,189	156,149	157,738
- 전속	132,117	134,574	138,024	141,034	141,499	144,736	147,004
- 교차	13,948	13,097	12,137	11,260	11,690	11,413	10,734
대 리 점	9,846	9,610	9,511	9,089	8,965	8,981	8,865
- 개인	6,364	6,177	6,176	5,857	5,712	5,624	5,514
- 법인	3,482	3,433	3,335	3,232	3,253	3,357	3,351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3. 손해보험

가. 원수보험료 및 총자산

〈손해보험 개요〉

■ FY2012 2/4분기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자동차보험의 마이너스 성장에도 불구하고 장기 손해보험과 연금부문의 고성장으로 전년동기대비 17.8% 늘어난 16조 7,265억 원을 기록하였으며, 농협손해보험을 제외하면 15.4% 늘어난 16조 3,770억 원을 시현함.

○ 장기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방카슈랑스 채널 중심의 저축성보험 증가세가 계속되고, 상해 및 질병보험과 재물보험이 양호한 실적을 시현함에 따라 24.0% 증가한 10조 619억 원을 기록함.

- 농협손해보험을 제외하면 20.4% 증가한 9조 7,762억 원임.

○ 연금부문 원수보험료의 경우 개인연금의 호조세가 지속되고 퇴직연금이 큰 폭의 증가세를 기록함에 따라 전체 41.6% 증가한 1조 4,691억 원을 기록함.

○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는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율 둔화와 요율 인하 등의 영향으로 2.9% 감소한 3조 2,157억 원을 기록함.

- 농협손해보험을 제외하면 3.0% 감소한 3조 2,122억 원임.

○ 일반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농협손해보험의 시장 진입 등으로 14.4% 증가한 1조 9,798억 원을 시현하였으며, 농협손해보험을 제외하면 10.9% 증가한 1조 9,195억 원을 나타냄.

■ FY2012 2/4분기 말 손해보험 총자산은 일반계정자산과 특별계정자산이 모두 늘어나면서 전분기대비 5.4% 증가한 145조 9,694억 원을 기록하였으며, 농협손해보험을 제외하면 5.1% 증가한 143조 2,302억 원을 시현함.

○ 일반계정자산은 원수보험료 고성장으로 책임준비금이 늘어남에 따라 5.2% 증가(농협 제외 시 5.0% 증가)하였으며, 특별계정자산은 퇴직연금이 큰 폭의 증가세를 보임에 따라 7.7%나 증가함.

〈표 18〉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및 총자산

(단위: 조 원, %)

구분	FY2011					FY2012		
	1/4	2/4	3/4	4/4	연간	1/4 (농협포함)	2/4 (농협포함)	2/4 (농협제외)
원수보험료	14.1 (16.5)	14.2 (16.0)	16.6 (13.6)	16.1 (21.0)	61.0 (16.7)	16.8 (19.4)	16.7 (17.8)	16.4 (15.4)
장기손보	7.7 (15.3)	8.1 (16.9)	8.7 (20.4)	9.7 (31.3)	34.1 (21.2)	9.8 (28.1)	10.1 (24.0)	9.8 (20.4)
연금부문	1.4 (61.4)	1.0 (43.8)	2.8 (11.2)	1.4 (15.3)	6.7 (24.8)	1.6 (14.4)	1.5 (41.6)	1.5 (41.6)
자동차	3.2 (9.1)	3.3 (8.3)	3.3 (2.2)	3.3 (1.1)	13.0 (5.1)	3.3 (2.0)	3.2 (-2.9)	3.2 (-3.0)
일반손해	1.8 (10.1)	1.7 (14.2)	1.8 (9.5)	1.8 (17.7)	7.1 (12.7)	2.1 (16.9)	2.0 (14.4)	1.9 (10.9)
총 자산	112.83 (10.3)	116.5 (3.3)	123.3 (5.9)	129.8 (5.3)	129.8 (27.0)	138.5 (6.7)	146.0 (5.4)	143.2 (5.1)

주: 1) () 안은 증감률이며, 총자산의 경우 전분기대비, 원수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임.

2) 연금부문은 개인연금, 퇴직보험, 퇴직연금 실적을 포함함.

3) FY2011 1/4분기 총자산 및 증가율은 IFRS의 변경된 계정을 기준으로 계산한 실적임.

4) 반올림에 따른 오차(rounding error)가 존재함.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종목별 원수보험료 현황〉

1) 장기손해보험

■ FY2012 2/4분기 장기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저축성보험, 상해보험, 재물보험의 고성장으로 전년동기대비 24.0% 늘어난 10조 619억 원을 기록하였음.

○ 저축성보험 원수보험료는 안정적인 계속보험료 유입과 방카슈랑스 채널을 중심으로 한 신규 판매 증가로 53.4% 늘어난 3조 2,186억 원을 기록함.

- 상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실손의료보험 제도 변화³⁾ 전 가입수요가 늘어나면서 18.2%나 증가한 2조 3,813억 원을 기록하였으며, 질병보험 원수보험료도 초회보험료가 크게 증가하여 9.3% 증가한 1조 6,927억 원을 시현함.
- 운전자보험과 재물보험 원수보험료는 농협손해보험의 실적 추가로 각각 7.3%, 26.2% 증가한 6,129억 원, 9,392억 원을 기록하였으나, 농협손해보험 실적을 제외할 경우에는 운전자보험은 1.1% 감소, 재물보험은 9.8% 증가에 그침.

■ FY2012 2/4분기 장기손해보험 초회보험료는 저축성보험의 신규 판매 증가세와 상해 및 질병보험의 호조세로 전년동기대비 77.6% 늘어난 1조 703억 원을 기록함.

- 저축성보험 초회보험료는 타금융권 대비 금리경쟁력이 유지됨에 따라 방카슈랑스 채널을 중심으로 95.8% 증가한 9,189억 원을 기록함.
- 상해보험과 질병보험 초회보험료는 실손의료보험 제도 변경 이전에 가입을 원하는 수요가 늘어나면서 각각 36.6%, 59.8% 증가한 579억 원, 377억 원을 기록함.
- 운전자보험 초회보험료는 농협손해보험 시장 진입 등으로 68.7% 증가한 110억 원을 기록한 반면, 재물보험 초회보험료는 전년 동기간 고성장에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31.7% 감소한 306억 원을 시현함.

3) 단독상품 출시, 갱신주기 단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실손의료보험 종합대책이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표 19〉 장기손해보험 종목별 원수보험료

(단위: 억 원, %)

구분			FY2011					FY2012		
			1/4	2/4	3/4	4/4	연간	1/4 (농협포함)	2/4 (농협포함)	2/4 (농협제외)
원 수 보험료	상 해	보험료	20,363	20,151	21,152	21,889	83,554	23,029	23,813	23,457
		증가율	15.2	10.3	11.5	11.6	12.1	13.1	18.2	16.4
	운전자	보험료	5,749	5,711	5,679	5,642	22,781	6,146	6,129	5,651
		증가율	3.2	1.8	0.7	-1.3	1.1	6.9	7.3	-1.1
	재 물	보험료	6,264	7,444	7,536	7,749	28,993	9,315	9,392	8,177
		증가율	25.2	42.1	34.5	30.3	33.1	48.7	26.2	9.8
	질 병	보험료	15,261	15,484	15,713	16,033	62,490	16,426	16,927	16,927
		증가율	12.8	11.3	9.1	8.6	10.4	7.6	9.3	9.3
	저축성	보험료	17,882	20,988	25,224	33,372	97,465	31,437	32,186	31,379
		증가율	27.5	35.3	52.5	102.7	55.8	75.8	53.4	49.5
	통합형	보험료	11,077	11,188	11,400	11,752	45,417	11,926	12,072	12,072
		증가율	4.5	5.3	6.2	8.8	6.2	7.7	7.9	7.9
	자산 연계형	보험료	222	201	173	136	732	103	99	99
		증가율	-17.2	-31.2	-32.6	-43.0	-30.6	-53.6	-50.7	-50.7
초 회 보험료	상 해	보험료	460	424	490	602	1,976	562	579	560
		증가율	-11.2	-7.8	-5.4	9.3	-3.4	22.1	36.6	32.1
	운전자	보험료	66	65	72	76	279	101	110	98
		증가율	-48.0	-39.8	-30.7	-62.0	-48.3	52.7	68.7	50.9
	재 물	보험료	355	448	415	345	1,565	399	306	300
		증가율	59.5	73.3	37.3	9.9	42.5	12.3	-31.7	-33.0
	질 병	보험료	310	236	273	331	1,150	302	377	377
		증가율	29.6	-26.1	-7.0	-3.9	-3.9	-2.6	59.8	59.8
	저축성	보험료	2,851	4,694	7,216	13,715	28,476	10,294	9,189	8,766
		증가율	-4.0	35.0	125.3	432.9	132.9	261.0	95.8	86.7
	통합형	보험료	102	157	146	198	603	153	142	142
		증가율	-2.4	48.1	51.1	94.6	47.5	49.7	-9.8	-9.8
	자산 연계형	보험료	0	0	-2	0	-2	0	0	0
		증가율	-99.7	-95.0	1,013.8	-100.0	-70.5	-84.9	-69.7	-69.7
계 속 보험료	상 해	보험료	4,145	6,025	8,609	15,269	34,048	11,811	10,703	10,244
		증가율	-0.7	27.4	90.6	273.6	94.5	184.9	77.6	70.0
	운전자	보험료	19,902	19,727	20,663	21,286	81,578	22,467	23,234	22,896
		증가율	16.0	10.8	11.9	11.7	12.6	12.9	17.8	16.1
	재 물	보험료	5,683	5,646	5,607	5,566	22,502	6,046	6,019	5,552
		증가율	4.4	2.6	1.3	0.9	2.3	6.4	6.6	-1.7
	질 병	보험료	5,909	6,996	7,120	7,403	27,428	8,916	9,086	7,877
		증가율	23.6	40.4	34.3	31.5	32.6	50.9	29.9	12.6
	저축성	보험료	14,951	15,248	15,440	15,701	61,340	16,124	16,550	16,550
		증가율	12.5	12.2	9.4	8.9	10.7	7.8	8.5	8.5
	통합형	보험료	15,031	16,293	18,009	19,657	68,989	21,143	22,997	22,613
		증가율	36.0	35.3	35.0	41.5	37.1	40.7	41.1	38.8
	자산 연계형	보험료	10,975	11,031	11,254	11,554	44,813	11,773	11,931	11,931
		증가율	4.6	4.9	5.8	8.0	5.8	7.3	8.2	8.2
소 계	자산 연계형	보험료	222	201	175	136	734	103	99	99
		증가율	-19.1	-31.2	-31.9	-43.0	-30.9	-53.6	-50.7	-50.7
소 계	소 계	보험료	72,672	75,141	78,267	81,303	307,384	86,571	89,916	87,518
		증가율	16.3	16.1	15.7	17.0	16.3	19.1	19.7	16.5

주: 기간별 수치는 분기별 실적이며, 자산연계형은 FY2009 3/4분기부터 초회와 계속보험료로 구분됨.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FY2012 2/4분기 누적 기준 장기손해보험 해지율은 효력상실액 및 해지액과 보유계약액이 동일한 비율로 늘어남에 따라 전년동기와 같은 6.4%를 기록함.

- 저축성보험 해지율은 보유계약액이 전년동기 수준을 유지한 반면 효력상실액 및 해지액이 줄어들어 전년동기대비 0.5%p 감소한 6.6%를 기록함.
- 상해보험과 운전자보험 해지율은 신규 판매 확대에 의한 효력상실액 및 해지액 증가로 각각 0.4%p, 0.3%p 상승한 6.0%, 6.1%를 나타냄.

〈표 20〉 장기손해보험 해지율

(단위: %)

구분	FY2011				FY2012	
	1/4	2/4	3/4	4/4	1/4	2/4
상 해	3.2	5.6	8.0	10.5	3.1	6.0
운전자	3.0	5.8	8.4	11.1	3.2	6.1
재 물	5.0	10.8	15.1	18.8	5.1	9.2
질 병	3.2	6.1	8.8	11.4	3.1	6.0
저축성	3.7	7.1	10.4	13.6	3.5	6.6
통합형	2.3	4.4	6.7	8.9	2.6	5.2
계	3.3	6.4	9.3	12.1	3.4	6.4

주: 1) 해지율 = (효력상실액 + 해지액) / 보유계약액 (= 연초보유계약액 + 신계약액)

2) 기간별 수치는 누계치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2) 연금부문(개인연금 및 퇴직연금)

■ FY2012 2/4분기 연금부문 원수보험료는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이 모두 호조세를 나타내어 전년동기대비 41.6% 증가한 1조 4,691억 원을 시현함.

- 개인연금 원수보험료는 노후소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소득공제 한도 400만 원 상향 조정⁴⁾ 등 제도적 지원이 계속됨에 따라 25.6% 늘어난 1조 296억 원을 기록하였으며, 분기 기준 원수보험료가 처음으로 1조 원을 넘어섬.
- 퇴직연금 원수보험료는 손해보험회사들의 실적 개선 노력 등에 힘입어 102.3%나 증가한 4,389억 원을 기록함.

4) 연금저축 소득공제 한도가 2011년 1월부터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됨.

〈표 21〉 개인연금 및 퇴직연금 원수보험료

(단위: 억 원, %)

구분		FY2010	FY2011					FY2012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개인 연금	보험료	24,697	7,586	8,200	9,145	9,343	34,273	9,857	10,296
	증가율	38.4	37.2	40.9	41.9	35.2	38.8	29.9	25.6
	구성비	46.1	53.0	79.0	32.6	66.2	51.2	60.2	70.1
퇴직 보험	보험료	5,284	516	4	92	224	835	1	6
	증가율	-39.1	-46.3	-98.6	-97.7	102.3	-84.2	-99.8	48.5
	구성비	9.9	3.6	0.0	0.3	1.6	1.2	0.0	0.0
퇴직 연금	보험료	23,616	6,218	2,169	18,857	4,547	31,791	6,516	4,389
	증가율	190.9	160.7	93.2	26.6	-12.8	34.6	4.8	102.3
	구성비	44.1	43.4	20.9	67.1	32.2	47.5	39.8	29.9
합계	보험료	53,598	14,320	10,373	28,094	14,114	66,900	16,375	14,691
	증가율	54.7	61.4	43.8	11.2	15.3	24.8	14.4	41.6
	구성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수치이며, 구성비는 연금부문 합계 중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3) 자동차보험

■ FY2012 2/4분기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는 대부분의 담보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함에 따라 전년동기대비 2.9% 감소한 3조 2,157억 원을 기록하였으며, 이는 자동차 내수 시장 부진에 따른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율 둔화와 요율 인하 등에 기인함.

- 대인배상 I 원수보험료는 요율 인하 및 할인형 상품⁵⁾ 증가 등으로 6.9% 줄어든 7,991억 원을 시현함.
- 종합보험 원수보험료는 차량 대형화 및 고급화에 따른 대물 담보 증가에도 불구하고 정률제 시행에 따른 자차 담보 감소세 등으로 2.0% 감소한 2조 2,676억 원을 기록함.
- 이륜자동차 원수보험료는 이륜자동차 보험가입 의무화 효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 이면서 28.6% 늘어난 211억 원을 나타냄.

5) 주행거리연동 특약, 블랙박스 할인, 서민우대 자동차보험 등이 있음.

〈표 22〉 자동차보험 담보별 원수보험료

(단위: 억 원, %)

구분		FY2010	FY2011					FY2012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대인 I		34,613 1.2	8,502 -0.4	8,584 -1.7	8,311 -5.5	8,028 -6.0	33,426 -3.4	8,111 -4.6	7,991 -6.9
종합 보험	대인 II	12,914 4.3	3,247 1.9	3,402 4.7	3,360 2.9	3,313 3.2	13,323 3.2	3,288 1.3	3,274 -3.8
	대물	33,679 14.2	8,979 14.5	9,535 16.4	9,857 12.0	9,970 12.6	38,342 13.8	10,280 14.5	10,259 7.6
	자차	33,173 22.5	8,575 16.0	8,754 9.4	8,455 -3.2	8,453 -6.5	34,237 3.2	7,973 -7.0	7,749 -11.5
	자손	4,394 10.2	1,115 5.8	1,177 9.2	1,164 2.4	1,117 -0.8	4,572 4.1	1,128 1.2	1,144 -2.8
	무보험	1,139 2.6	272 -2.9	279 -3.0	265 -8.5	258 -8.4	1,074 -5.7	254 -6.4	250 -10.3
	소계	85,299 15.2	22,188 12.3	23,148 11.3	23,101 3.9	23,111 2.7	91,548 7.3	22,923 3.3	22,676 -2.0
	외화표시	102 -5.9	27 0.4	30 47.8	39 14.3	25 23.9	122 19.2	30 9.9	23 -24.2
이륜자동차		569 11.6	173 10.3	164 13.0	149 7.9	151 17.9	637 12.1	268 54.6	211 28.6
기타		3,552 6.0	1,087 30.7	1,202 36.8	1,202 33.1	1,191 27.0	4,682 31.8	1,284 18.1	1,256 4.5
합계		124,134 10.6	31,977 9.1	33,128 8.3	32,803 2.2	32,507 1.1	130,415 5.1	32,615 2.0	32,157 -2.9

주: 1) 기간별 수치는 해당기간에 대한 실적치이며, 하단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임.

2) 이륜자동차는 대인배상 I 과 종합보험을 합산한 수치임.

3) 기타는 취급업자종합보험, 운전면허교습생보험 및 농기계보험 등의 실적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FY2012 2/4분기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대인배상 I 손해율이 크게 악화되었으나 종합보험 손해율이 개선되어 전년동기대비 1.2%p 하락한 82.1%를 기록함.

○ 대인배상 I 손해율은 요율 조정으로 인한 경과보험료 감소에도 불구하고 발생손해액 증가로 6.1%p 상승한 86.5%를 기록함.

- 종합보험 손해율은 ‘자기부담금 정률제’ 등 손해보험 업계와 정부의 손해율 개선 노력으로 자차 담보의 발생손해액이 줄어들어 3.4%p 낮아진 80.7%를 기록함.

〈표 23〉 자동차보험 담보별 손해율

(단위: %)

구분	FY2010	FY2011					FY2012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대인 I	73.5	73.2	80.4	90.5	81.3	81.3	82.6	86.5
종합보험	대인 II	74.6	86.5	88.9	91.2	88.1	88.7	101.8
	대물	86.1	87.5	89.6	93.2	88.7	89.8	85.4
	자차	86.5	78.7	79.0	70.4	66.8	73.7	59.6
	자손	77.2	66.0	72.5	91.0	90.3	80.1	73.0
	무보험	34.6	47.6	60.6	68.3	64.6	60.1	50.6
	소계	83.2	82.3	84.1	83.7	80.1	82.6	77.3
외화표시	71.5	71.9	84.4	87.8	54.9	75.0	71.2	104.8
이륜자동차	85.4	89.2	92.2	89.7	81.9	88.3	95.9	86.4
기타	81.0	74.4	85.1	81.6	79.9	80.4	65.3	81.0
합계	80.3	79.6	83.3	85.4	80.6	82.2	78.2	82.1

주: 1) 기간별 수치는 해당기간에 대한 손해율이며, FY2011부터 IFRS가 적용됨.

2) 손해율은 경과손해율(발생손해액 / 경과보험료)임.

3) 이륜자동차는 대인배상 I 과 종합보험을 합산한 수치임.

4) 기타는 취급업자종합보험, 운전면허교습생보험 및 농기계보험 등의 실적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4) 일반손해보험

- FY2012 2/4분기 일반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화재보험과 특종보험의 양호한 증가세에 힘입어 전년동기대비 14.4% 증가한 1조 9,798억 원을 기록하였으며, 농협손해보험을 제외하면 10.9% 늘어난 1조 9,195억 원을 시현함.

- 화재보험 원수보험료는 농협손해보험 실적 포함으로 주택물건과 일반물건이 모두 늘어남에 따라 26.7% 증가한 758억 원을 시현하였으나, 농협손해보험을 제외할 경우 4.2% 증가에 그친 623억 원을 기록함.⁶⁾
- 해상보험 원수보험료는 선박보험이 수요회복 및 기저효과 등으로 26.2%나 증가하였으나 적하보험이 물동량 증가세 둔화 등으로 3.4% 증가에 그치고, 해양책임, 운송보험 등도 마이너스 실적을 기록함에 따라 전체 3.7% 증가한 2,217억 원을 시현함.
- 보증보험 원수보험료는 건설경기 부진에 따른 이행보증 실적 부진과 통신 서비스 관련 신용보험 성장세 둔화로 4.8% 증가한 3,810억 원을 기록함.
- 특종보험 원수보험료는 농협손해보험 실적 포함에 힘입어 15.5% 증가한 1조 1,867억 원을 시현하였으며, 농협손해보험을 제외하면 11.2% 증가함.
 - 기술보험 원수보험료는 건설경기 부진으로 5.0% 감소한 832억 원을 기록함.
 - 종합보험 원수보험료는 가계 물건 감소(-21.0%)에도 불구하고 비중이 큰 기업성 물건(14.1%)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11.9% 증가한 4,272억 원을 시현함.
 - 기타 특종보험 원수보험료는 농협손해보험 진입으로 도난 물건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81.1% 증가한 2,022억 원을 기록하였으며, 농협손해보험을 제외하였을 경우 53% 증가함.

6) FY2012 2/4분기 기준 손해보험 전체 화재보험 원수보험료 가운데 농협손해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은 17.7%임.

〈표 24〉 일반보험 종목별 원수보험료

(단위: 억 원, %)

구분		FY2011					FY2012		
		1/4	2/4	3/4	4/4	연간	1/4 (농협포함)	2/4 (농협포함)	2/4 (농협제외)
화재	보험료	624	598	758	656	2,636	782	758	623
	증가율	0.4	-0.7	-2.7	-0.2	-0.9	25.3	26.7	4.2
	구성비	3.5	3.5	4.1	3.7	3.7	3.8	3.8	3.2
해상	보험료	2,393	2,138	1,833	2,335	8,699	2,356	2,217	2,202
	증가율	14.8	8.5	-5.5	35.2	12.7	-1.5	3.7	3.0
	구성비	13.6	12.4	10.0	13.3	12.3	11.4	11.2	11.5
보증	보험료	3,547	3,634	3,908	4,083	15,172	4,081	3,810	3,798
	증가율	11.0	22.0	14.4	17.2	16.1	15.1	4.8	4.5
	구성비	20.1	21.0	21.3	23.2	21.4	19.8	19.2	19.8
특종	보험료	10,409	10,270	11,026	9,525	41,230	12,377	11,867	11,424
	증가율	7.7	13.7	10.8	12.5	11.1	18.9	15.5	11.2
	구성비	59.1	59.3	60.0	54.1	58.2	60.1	59.9	59.5
해외 원보험	보험료	636	667	854	1,007	3,164	997	1,147	1,147
	증가율	46.9	17.4	21.8	61.6	36.1	56.6	72.1	72.1
	구성비	3.6	3.9	4.6	5.7	4.5	4.8	5.8	6.0
합계	보험료	17,608	17,307	18,380	17,606	70,901	20,593	19,798	19,195
	증가율	10.1	14.2	9.5	17.7	12.7	16.9	14.4	10.9

주: 1)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수치임.

2) 부수사업의 원수보험료는 제외되었으며, 특종보험은 권원보험의 원수보험료를 포함함.

3) 기간별 수치는 해당기간에 대한 실적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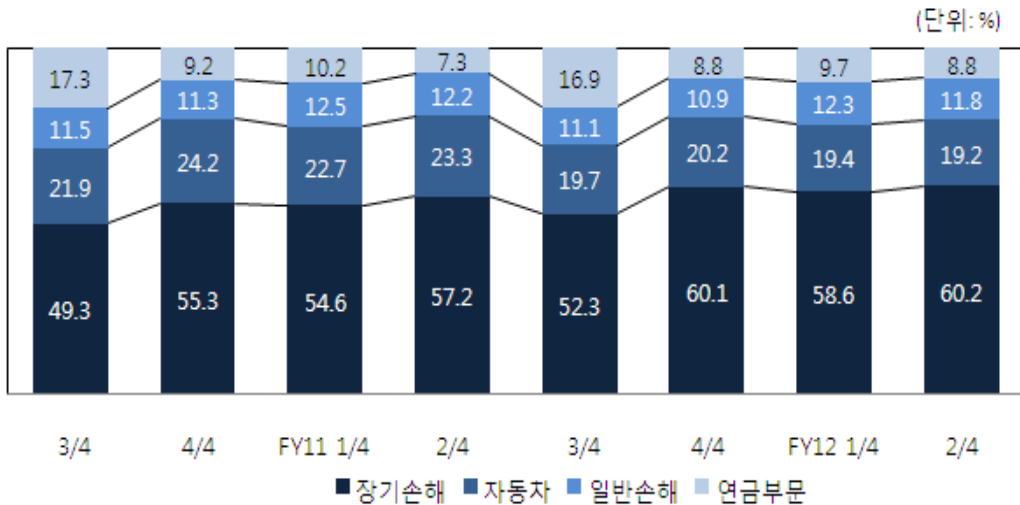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종목별 원수보험료 구성비〉

■ FY2012 2/4분기 원수보험료 기준 장기손해보험과 연금부문 비중은 전년동기대비 확대된 반면 자동차보험과 일반손해보험 비중은 축소됨.

- 장기손해보험 비중은 저축성보험 고성장으로 3.0%p 증가한 60.2%를 기록하였고, 연금부문 비중도 개인연금과 퇴직보험의 호조세로 1.5%p 증가한 8.8%를 나타냄.
- 자동차보험 비중은 요율 인하에 따른 자동차보험 저성장이 지속되면서 4.1%p 축소된 19.2%를 기록함.
- 일반손해보험 비중은 10%를 상회하는 양호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장기손해보험의 상대적인 고성장으로 0.4%p 축소된 11.8%를 나타냄.

〈그림 7〉 손해보험 종목별 원수보험료 구성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회사그룹별 시장점유율〉

■ FY2012 2/4분기 원수보험료 기준 회사그룹별 시장점유율은 기타 국내사 점유율이 농협 손해보험 시장 진입으로 전년동기대비 늘어난 반면 상위 4사, 전업사, 외국사 점유율이 축소되었으며, 허핀달지수는 0.0015 감소한 0.1473을 기록함.

- 상위 4사 점유율은 저축성보험과 연금 판매 증가에도 불구하고 기타 국내사 실적에 농협손해보험이 포함됨에 따라 0.7%p 축소된 70.1%를 기록함.
- 기타 국내사 점유율은 농협손해보험 실적 포함으로 1.6%p 확대된 25.4%를 기록하였으나, 농협손해보험 실적을 제외할 경우에는 전년동기와 같은 23.8%를 나타냄.
- 전업사 점유율은 기타 국내사 점유율 확대로 0.3%p 낮아진 2.3%를 기록하였으며, 외국사 점유율은 저조한 증가세가 지속되어 0.6%p 낮아진 2.3%를 나타냄.

〈표 25〉 손해보험산업 회사그룹별 시장점유율

(단위: %)

구분	FY2011					FY2012		
	1/4	2/4	3/4	4/4	연간	1/4 (농협포함)	2/4 (농협포함)	2/4 (농협제외)
상위 4사	71.2	70.8	72.5	72.2	71.7	69.8	70.1	71.6
국내 기타사	23.6	23.8	22.8	22.9	23.3	25.5	25.4	23.8
전업사	2.5	2.6	2.4	2.5	2.5	2.4	2.3	2.3
외국사	2.7	2.9	2.3	2.4	2.6	2.2	2.3	2.3
전 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온라인사	2.6	2.8	2.3	2.3	2.5	2.1	2.2	2.2
허핀달지수	0.1520	0.1488	0.1504	0.1492	0.1501	0.1434	0.1473	0.1532

주: 1) 국내 기타사에는 국내 중소형사뿐만 아니라 국내 온라인사가 포함되었으며, 전업사는 보증사와 국내 및 외국계 재보사를 포함함. 외국사는 차티스(舊 AIG), ACE, 페더럴, 퍼스트어메리칸권원보험, 미쓰이스미토모뿐만 아니라 AXA손보, 에르고다움다이렉트와 같은 외국계 온라인사도 포함되었음. 온라인사는 주로 자동차보험에 주력하는 더케이손보, 현대하이카, 에르고다움다이렉트, AXA손보 실적을 따로 구분하여 파악한 것임.

2) 허핀달지수는 각 사 시장점유율을 제곱한 값을 합한 수치로 시장집중도를 나타내며, 지수가 0.18 이상인 경우에는 시장이 상당히 집중되어 있다고 판단함.

3) 원수보험료 실적은 일반계정 및 특별계정 I, II를 모두 포함함.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손해율과 합산비율〉

■ FY2012 2/4분기 손해보험 손해율은 자동차보험 손해율의 소폭 개선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종목의 손해율이 악화됨에 따라 전년동기대비 1.7%p 상승한 82.4%를 기록함.

○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발생손해액이 전년동기대비 0.3% 감소함에 따라 1.2%p 개선된 82.1%를 기록함.

○ 그러나 대부분 종목의 손해율은 발생손해액 증가율이 경과보험료 증가율보다 크게 나타남에 따라 악화됨.

■ FY2012 2/4분기 사업비율은 장기손해보험과 자동차보험 사업비율 상승으로 전년동기대비 0.5%p 높아진 18.7%를 기록함.

○ 장기손해보험 사업비율은 저축성보험 호조세로 인한 순사업비 증가(27.6%)가 보유보험료 증가(24.1%)보다 더 크게 나타남에 따라 0.5%p 높아진 17.3%를 기록함.

○ 자동차보험 사업비율은 순사업비가 전년동기대비 4.8% 증가한데다 보유보험료가 저성장세 지속으로 3.2% 감소함에 따라 1.7%p 상승한 21.9%를 나타냄.

■ FY2012 2/4분기 합산비율은 손해율과 사업비율의 동반 상승으로 2.2%p 높아진 101.1%를 기록함.

〈표 26〉 손해보험 손해율 및 합산비율

(단위: %)

구분		FY2010	FY2011					FY2012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손해율	장기손해보험	81.2	81.7	82.6	83.2	84.6	83.1	84.3	84.5
	자동차보험	80.3	79.6	83.3	85.4	80.6	82.2	78.2	82.1
	화재보험	38.8	47.4	61.0	66.3	62.6	59.0	59.1	68.2
	해상보험	83.7	58.7	42.2	63.5	60.2	57.2	64.3	49.7
	보증보험	9.2	43.9	43.0	65.0	67.5	55.0	61.0	68.6
	특종보험	62.2	61.6	69.2	70.9	69.6	68.0	61.1	79.8
	해외원보험	41.1	43.5	56.6	53.8	55.5	53.3	53.6	55.7
	해외수재보험	68.4	54.4	78.5	112.1	131.0	95.0	65.5	57.3
	전체	77.6	78.2	80.7	82.7	82.8	81.2	80.4	82.4
사업비율		22.0	18.3	18.2	18.1	18.9	18.4	18.2	18.7
합산비율		99.6	96.5	98.9	100.8	101.7	99.6	98.6	101.1

주: 1) 손해율, 사업비율 및 합산비율은 개인연금, 퇴직보험 및 퇴직연금을 제외한 분기치이며, FY2011부터 IFRS가 적용됨.

2) 손해율 = 발생손해액 / 경과보험료, 사업비율 = 순사업비 / 보유보험료, 합산비율 = 손해율 + 사업비율

3) 장기손해보험 손해율은 위험손해율 개념이 아닌 재무손해율(적립보험료 및 각종 환급금 감안) 개념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나. 경영수지

〈총수익 · 총비용〉

■ FY2012 2/4분기 손해보험산업 당기순이익은 보험영업이익이 크게 감소하였으나 투자영업이익이 증가하며 전년동기대비 6.1% 증가한 6,865억 원의 흑자를 기록함.

○ 보험영업에서는 전년동기대비 보험영업수익이 17.2% 증가하였으나, 환급금, 사업비 및 보험료적립금 증가로 보험영업비용도 19.6% 증가함에 따라 전분기대비 적자규모가 증가하였음.

- 투자영업에서는 이자수익, 당기손익인식금융상품 평가이익 및 대손충당금 환입의 감소로 투자영업수익이 3.5% 감소하였으나, 금융자산평가손실 등 투자영업비용도 54.4%로 크게 감소하여 투자영업이익은 전년동기대비 33.3% 증가한 1조 2,717억 원 흑자를 기록함.

〈표 27〉 손해보험산업 총수익 및 총비용

(단위: 십억 원, %)

구분		FY2010	FY2011					FY2012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총수익	보험영업	47,615	12,899	13,624	14,358	15,349	56,229	15,681	15,971
	투자영업	4,740	1,439	1,646	1,158	1,342	5,584	1,491	1,588
	기타	3,345	244	255	708	367	1,574	492	288
	소계	55,700	14,582	15,525	16,224	17,058	63,388	17,664	17,847
총비용	보험영업	48,204	12,651	13,676	14,613	15,853	56,795	15,703	16,354
	투자영업	1,005	420	693	155	262	1,529	377	316
	기타	3,351	268	279	752	407	1,705	523	315
	소계	52,560	13,339	14,648	15,520	16,522	60,030	16,602	16,985
수지차	보험영업	-589	247	-53	-255	-504	-566	-22	-382
	투자영업	3,735	1,019	953	1,003	1,080	4,055	1,115	1,272
	기타	-5	-23	-23	-44	-40	-131	-32	-27
	소계	3,140	1,243	877	704	536	3,358	1,061	862
법인세		710	280	230	232	165	906	251	176
당기순이익		2,031	963	647	472	371	2,452	810	686
		(31.8)	(8.6)	(64.4)	(80.4)	(-24.2)	(20.7)	(-15.9)	(6.1)

주: 1) 기간별 수치는 퇴직보험과 퇴직연금을 제외한 실적임.

2) () 안은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임.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자산운용〉

- FY2012 2/4분기 일반계정 자산 기준 운용자산별 비중은 유가증권 52.4%, 대출채권 18.0%, 현금과 예금 5.9%, 부동산 4.5% 순임.
 - 유가증권의 항목별 비중은 매도가능증권 43.7%, 만기보유증권 3.7%, 당기손익인식증권 3.5%, 관계·종속기업 투자주식 1.5% 순으로 나타남.
 - 일반계정자산 중 부동산과 대출채권의 비중은 전년동기대비 감소하였으나, 현금과 예금 및 유가증권의 비중은 확대됨.

- FY2012 2/4분기 손해보험산업의 운용자산이익률은 현금과 예금 및 운용자산의 비중이 높은 유가증권 이익률이 모두 하락하면서 전년동기대비 소폭 하락하면서 0.2%p 하락한 4.5%를 기록함.
 - 유가증권 중 당기손익인식증권의 이익률이 크게 상승했으나 전체 유가증권 중 비중이 높은 매도가능증권의 이익률이 하락하면서 전체 유가증권 이익률은 0.2%p 하락한 4.5%를 기록함.
 - 현금과 예금 이익률은 1.7%p 하락하며 3.6%를 보인 반면, 부동산은 0.5%p 하락하며 0.9%를 나타냄.

〈표 28〉 손해보험산업 자산운용 포트폴리오

(단위: %, 억 원)

구분	FY2011						FY2012			
	2/4		3/4		4/4		1/4		2/4	
	구성비	이익률	구성비	이익률	구성비	이익률	구성비	이익률	구성비	이익률
현금과 예금	5.7	5.3	6.0	3.8	6.3	3.6	6.8	3.8	5.9	3.6
유가증권	49.9	4.7	49.9	4.6	51.0	4.7	51.1	4.1	52.4	4.5
○ 당기손익인식증권 ³⁾	4.0	-0.7	3.7	1.2	3.7	2.1	3.3	3.3	3.5	5.8
- 주 식	0.3	-32.4	0.3	-25.1	0.2	-17.1	0.1	-21.3	0.1	11.3
- 채 권 등	1.4	8.0	1.2	7.7	2.1	5.0	2.0	4.9	2.1	6.7
- 수익증권	2.4	-0.3	2.3	2.2	1.4	2.1	1.3	3.6	1.3	3.3
○ 매도가능증권	41.6	5.2	41.8	5.0	42.7	4.9	42.4	4.2	43.7	4.5
- 주 식	3.7	2.1	4.1	1.9	4.5	2.9	4.2	-0.3	4.2	0.3
- 채 권 등	28.8	5.7	28.9	5.4	35.0	5.3	34.7	4.9	35.8	5.2
- 수익증권	9.1	5.1	8.8	5.0	3.2	3.6	3.5	3.4	3.7	2.6
○ 만기보유증권	3.0	5.4	3.1	5.4	3.0	5.5	3.8	5.4	3.7	5.4
- 채 권 등	2.8	5.4	2.8	5.4	3.0	5.5	3.8	5.4	3.7	5.4
- 수익증권	0.3	6.2	0.3	5.1	0.0	0.0	0.0	0.0	0.0	0.0
○ 투자주식 ⁴⁾	1.2	4.4	1.4	3.1	1.5	2.7	1.5	-0.2	1.5	0.9
대출채권	18.5	5.6	18.7	5.7	18.5	5.8	18.1	5.8	18.0	5.7
부동산	5.4	1.4	5.3	1.3	5.0	1.3	4.8	1.3	4.5	0.9
운용자산	79.6	4.7	80.0	4.6	80.7	4.6	80.7	4.3	80.9	4.5
비운용자산	20.4	-0.1	20.0	0.0	19.3	0.0	19.3	-0.1	19.1	-0.1
일반계정자산	100.0	3.7	100.0	3.7	100.0	3.7	100.0	3.4	100.0	3.6
일반계정자산	96.7	3.7	96.6	3.7	96.2	3.7	96.3	3.4	96.2	3.6
특별계정자산	3.3	-	3.4	0.0	3.8	0.0	3.7	0.0	3.8	0.0
총자산	100.0	3.6	100.0	3.5	100.0	3.5	100.0	3.3	100.0	3.4
총자산 규모	1,164,544		1,232,944		1,298,013		1,385,178		1,459,065	

주: 1) 운용자산 이익률 = (운용자산이익 × 2) / (기초자산 + 기말자산 - 운용자산이익) × 연기준환산

2) 자산구성비는 일반계정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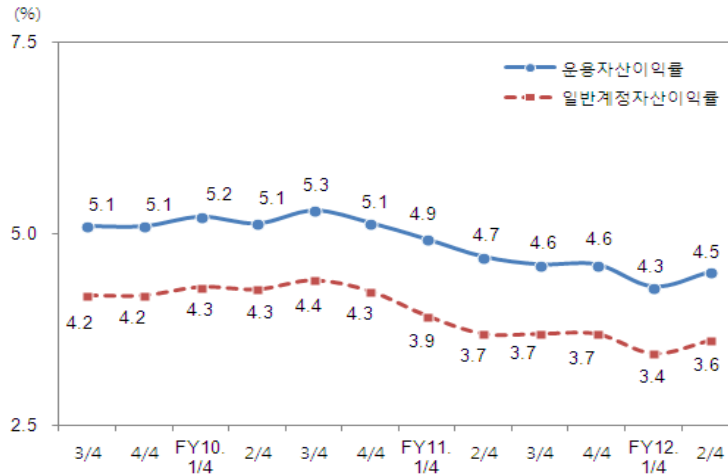
3) FY2011 1/4 분기 이후 단기매매증권에서 당기손익인식증권으로 계정 명칭이 변경됨.

4) 투자주식은 관계·종속기업 투자주식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기준금리 하락과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FY2012 2/4분기 일반계정자산 이익률은 전년동기대비 0.1%p 하락한 3.6%로 나타남.

〈그림 8〉 운용자산과 일반계정자산 이익률 추이



주: 1) 분기별 누적치이며 일반계정자산이익률은 비운용자산까지 포함한 것임.
 2) 운용자산 이익률 = (운용자산손익 × 2) / (기초자산 + 기말자산 - 운용자산손익) × 연기준환산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수익성〉

1) 자본이익률(기중자본대비 당기순이익)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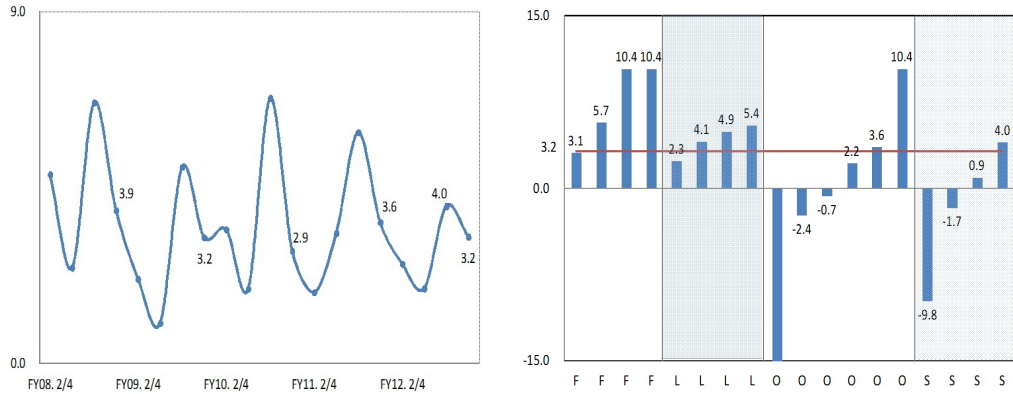
- FY2012 2/4분기 손해보험산업 자본이익률은 전년동기대비 0.2%p 하락한 3.2%를 기록하였으며 전분기대비로는 1.0%p 하락함.

○ 대형사와 외국사 대부분은 양(+)의 자본이익률을 기록하였으나, 일부 대형사 및 외국사와 전업사는 당기순손실로 음(-)의 자본이익률을 시현함.

7) 보험회사 경영성과지표 중 하나인 자본이익률(R_t / E_t^o : 기중자본대비 당기순이익)을 매출이익률(R_t / S_t : 매출액대비 당기순이익), 자산회전율(S_t / A_t^o : 기중자산대비 매출액), 레버리지비율(A_t^o / E_t^o : 기중자본대비 기중자산)로 분해하여 분석하며, 분석대상은 이번 분기부터 농협손해보험의 진입으로 국내외 18개 회사임.

〈그림 9〉 손해보험산업 자본이익률 현황

(단위: %)



주: 1) 오른쪽 그림은 FY2012 2/4분기 회사별 자본이익률 분포임.

2) F, L, O, S는 각각 외국사, 대형사, 중소형사, 전업사를 의미함.

3) 회사별 자본이익률 분포에서 표시된 실선은 산업수준의 자본이익률을 의미함.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FY2012 2/4분기 손해보험회사 그룹별 자본이익률에서는 중소형사와 외국사가 전년동기 대비 크게 상승하였으나, 전업사의 이익률이 크게 하락하고 대형사의 이익률도 소폭하락 하면서 전년동기대비 동일한 수준을 유지함.

○ 대형사의 자본이익률이 전년동기대비 0.4%p 하락한 3.4%를 기록하였으며, 중소형사와 외국사의 자본이익률은 전년동기대비 각각 2.6%p, 2.5%p 상승한 3.4%, 5.8%를 기록함.

○ 한편 전업사 자본이익률은 보험영업이익의 악화로 전년동기대비 3.8%p 하락한 -0.9%를 기록함.

〈표 29〉 손해보험산업 자본이익률 추이

(단위: %)

구분	FY2010	FY2011					FY2012	
	연간 ²⁾	1/4	2/4	3/4	4/4	연간	1/4	2/4
대형사	14.8	5.8	3.8	2.7	3.6	17.6	4.3	3.4
중소형사	3.1	6.3	0.8	2.8	-0.4	9.9	3.4	3.4
외국사	-1.8	9.1	3.3	3.6	0.5	20.9	2.6	5.8
전업사	-31.4	4.7	2.8	-2.4	-0.6	4.2	5.4	-0.9
전체	11.3	5.9	3.4	2.6	3.0	16.4	4.2	3.2

주: 1) 분기 자본이익률 = 당분기 당기순이익 / 기중자본

2) 연간 자본이익률 = 누적 당기순이익 / ((전회계년도 말 자본 + 당기 말 자본 - 누적 당기순이익) / 2)

3) FY2011 4/4분기까지는 17개사, FY2012 1/4분기는 농협손해보험 포함하여 18개사임.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FY2012 2/4분기 손해보험산업의 자본이익률의 경우 전년동기대비 매출이익률과 레버리지 비율이 상승하였으나 자산회전율이 감소하면서 소폭 하락하였음.

○ 대형사는 전년동기대비로 자산회전율과 매출이익률이 하락하며 자본이익률이 소폭 하락하였으며 전분기대비로도 자산회전율과 매출이익률이 악화되며 하락하였음.

○ 중소형사, 외국사는 매출이익률 상승으로 전년동기대비 자본이익률이 상승하였으나, 전업사는 매출이익률이 크게 악화되며 자본이익률이 전년동기대비, 전분기대비 모두 하락함.

〈표 30〉 손해보험산업 그룹별 자본이익률 분해

(단위: 배, %)

구분	레버리지비율			자산회전율			매출이익률		
	FY2011 2/4	FY2012 1/4	FY2012 2/4	FY2011 2/4	FY2012 1/4	FY2012 2/4	FY2011 2/4	FY2012 1/4	FY2012 2/4
대형사	6.5	6.7	6.7	13.8	13.1	12.7	4.2	4.9	4.0
중소형사	13.3	13.9	13.2	14.7	14.8	13.8	0.4	1.7	1.9
외국사	2.5	2.4	2.4	22.1	23.2	23.7	6.1	4.7	10.3
전업사	4.9	4.6	4.5	18.8	17.5	17.7	3.1	6.7	-1.1
전체	7.1	7.4	7.4	14.1	13.5	13.1	3.3	4.1	3.5

주: 1) 레버리지비율(배) = 기중자산 / 기중자본

2) 자산회전율(%) = 영업수익 / 기중자산

3) 매출이익률(%) = 당기순이익 / 영업수익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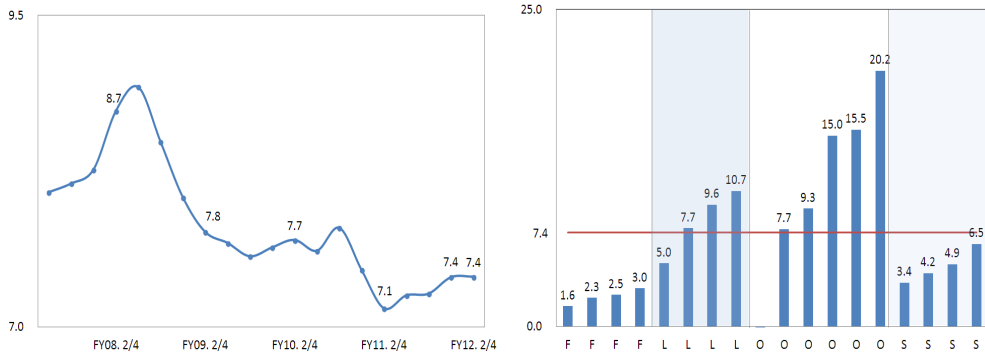
① 레버리지비율(기중자본대비 기중자산)

■ FY2012 2/4분기 손해보험산업 레버리지비율은 7.4배로 전년동기대비 소폭 상승하였음.

○ 손해보험회사 그룹별로는 대부분의 중소형사 및 대형사가 산업평균수준(7.4배)을 상회하고 있으나 외국사 및 전업사들은 평균수준을 하회하고 있음.

〈그림 10〉 손해보험산업 레버리지비율 현황

(단위: 배)



주: 1) 오른쪽 그림은 FY2012 2/4분기 회사별 레버리지비율 분포임.

2) F, L, O, S는 각각 외국사, 대형사, 중소형사, 전업사를 의미함.

3) 회사별 레버리지비율 분포에서 표시된 실선은 산업수준의 레버리지비율을 의미함.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FY2012 2/4분기 손해보험 그룹별 레버리지비율은 전기대비 동일한 수준을 유지

○ 전기대비로는 대형사와 외국사가 각각 6.7배, 2.4배로 변화가 없었음.

〈표 31〉 손해보험산업 레버리지비율 추이

(단위: 배)

구분	FY2010	FY2011					FY2012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대형사	7.4	6.7	6.5	6.6	6.5	7.1	6.7	6.7
중소형사	12.8	13.7	13.3	13.4	14.0	14.7	13.9	13.2
외국사	4.4	3.1	2.5	2.4	2.4	3.0	2.4	2.4
전업사	4.5	4.8	4.9	4.9	4.9	4.7	4.6	4.5
전체	8.0	7.5	7.1	7.3	7.3	7.9	7.4	7.4

주: 레버리지비율 = 기중자산 / 기중자본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FY2012 2/4분기 손해보험 그룹별 레버리지비율을 전년동기대비 비교하면 대형사만 소폭 상승하였고 나머지 중소형사, 외국사, 전업사는 소폭 하락하였음.

○ 중소형사의 경우 자본증가율이 자산증가율을 상회하며 전년동기대비 레버리지비율이 소폭 하락하였음.

○ 외국사, 전업사 역시 자본증가율이 자산증가율을 상회하며 전년동기대비 레버리지비율이 하락함.

〈표 32〉 FY2012 1/4분기 손해보험산업 자산 및 자본증가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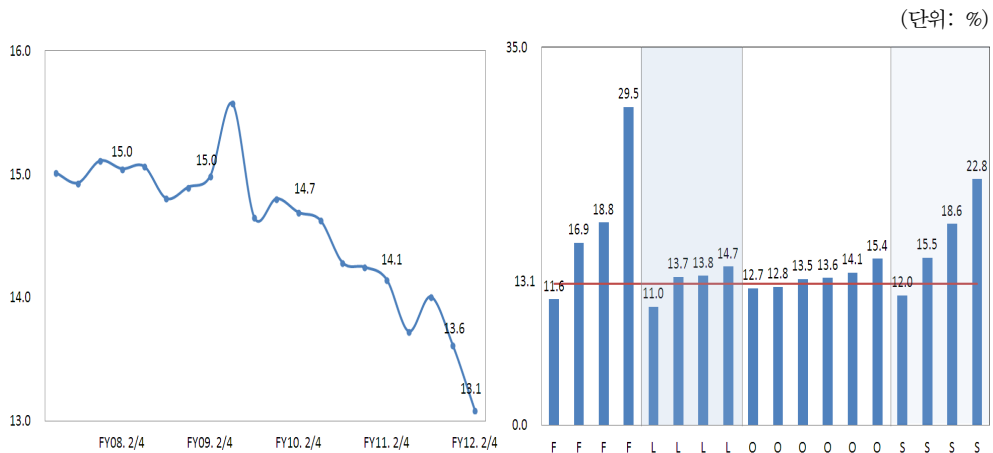
구분	자산증가율 ¹⁾		자본증가율 ¹⁾	
	전년동기대비	전분기대비	전년동기대비	전분기대비
대형사	25.4	5.6	24.3	9.6
중소형사	35.4	6.6	39.3	12.0
외국사	5.2	1.6	11.1	5.5
전업사	-0.7	-0.6	6.3	0.1
전체	27.0	5.7	25.4	9.6

주: 1) 손해보험회사의 자산 및 자본증가율은 농협손해보험을 포함한 국내외 18개사를 대상으로 산출하였음.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② 자산회전율(기중자산대비 매출액)

- FY2012 2/4분기 손해보험산업 자산회전율은 13.1%로 전분기에 이어 하락세를 지속
- 일부 외국사와 전업사의 높은 자산회전율은 산업평균수준을 크게 웃돌고 있음.

〈그림 11〉 손해보험산업 자산회전율 현황



주: 1) 오른쪽 그림은 FY2012 2/4분기 회사별 자산회전율 분포임.

2) F, L, O, S는 각각 외국사, 대형사, 중소형사, 전업사를 의미함.

3) 회사별 자산회전율 분포에서 표시된 실선은 산업수준의 자산회전율을 의미함.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FY2012 2/4분기 손해보험산업 보험영업회전율과 투자영업회전율은 각각 11.9%, 1.2%를 기록함.

- 손해보험산업의 자산회전율이 전년동기대비 하락한 이유는 보험영업회전율과 투자영업회전율이 모두 하락하였기 때문임.
- 외국사의 경우 보험영업회전율이 전년동기대비 1.6%p 상승하며 자산회전율이 1.6%p 상승한 반면 나머지 그룹들은 보험영업회전율과 투자영업회전율이 모두 하락하며 자산회전율이 하락함.

〈표 33〉 손해보험산업 자산회전율 분해

(단위: %)

구분	자산회전율			보험영업회전율			투자영업회전율		
	FY2011 2/4	FY2012 1/4	FY2012 2/4	FY2011 2/4	FY2012 1/4	FY2012 2/4	FY2011 2/4	FY2012 1/4	FY2012 2/4
대형사	13.8	13.1	12.7	12.2	11.9	11.5	1.6	1.2	1.2
중소형사	14.7	14.8	13.8	13.4	13.6	12.5	1.3	1.2	1.3
외국사	22.1	23.2	23.7	21.5	22.5	23.1	0.7	0.7	0.6
전업사	18.8	17.5	17.7	17.6	16.6	16.9	1.2	0.8	0.8
전체	14.1	13.6	13.1	12.6	12.4	11.9	1.5	1.2	1.2

주: 1) 자산회전율 = 영업수익 / 기중자산

*영업수익 = 보험영업수익 + 투자영업수익

2) 보험영업회전율 = 보험영업수익 / 기중자산

3) 투자영업회전율 = 투자영업수익 / 기중자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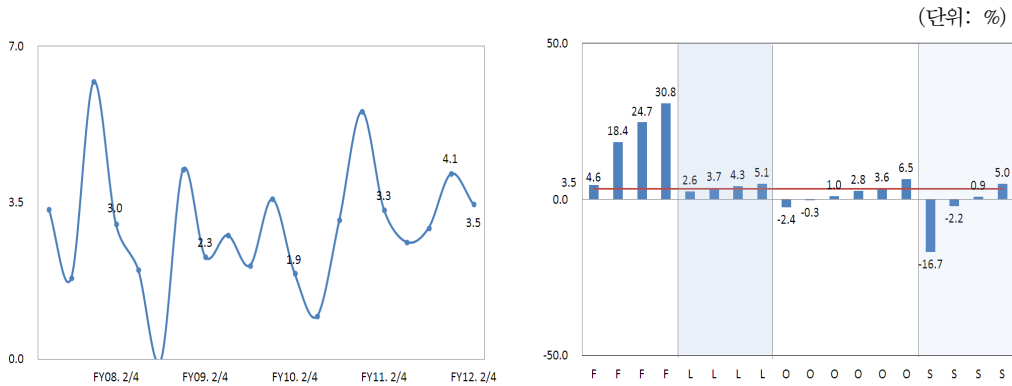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③ 매출이익률(매출액대비 당기순이익)

■ FY2012 2/4분기 손해보험산업 매출이익률은 3.5%로 전년동기대비 0.2%p 상승하였으나 전분기에 비해서는 0.6%p 하락함.

- 이는 전년동기대비 매출액은 증가하였으나 당기순이익이 감소하였기 때문임.
- 대형사와 외국사의 매출이익률은 모두 양(+)의 값을 기록하였으나, 다수의 중소형사 및 전업사는 산업평균수준(3.5%)을 크게 하회하는 음(-)의 매출이익률을 나타냄.

〈그림 12〉 손해보험산업 매출이익률 현황



주: 1) 오른쪽 그림은 FY2012 2/4분기 회사별 매출이익률 분포임.

2) F, L, O, S는 각각 외국사, 대형사, 중소형사, 전업사를 의미함.

3) 회사별 매출이익률 분포에서 표시된 실선은 산업수준의 매출이익률을 의미함.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FY2012 2/4분기 손해보험산업 투자영업이익률은 전분기대비 1.2%p 상승한 반면, 보험영업이익률은 1.5%p 하락하여 투자영업이익률 상승이 매출이익률 상승을 주도함.

○ 보험영업이익률의 경우 외국사를 제외한 모든 그룹이 전분기에 비해 크게 감소하였으며, 대형사, 중소형사, 전업사 모두 음(-)의 보험영업이익률을 기록함.

○ 한편, 대형사와 중소형사의 투자영업이익률 상승으로 손해보험산업 전체 투자영업이익률도 전분기대비 0.8%p 상승함.

〈표 34〉 손해보험산업 매출이익률 분해

(단위: %)

구분	매출이익률			보험영업			투자영업		
	FY2011 2/4	FY2012 1/4	FY2012 2/4	FY2011 2/4	FY2012 1/4	FY2012 2/4	FY2011 2/4	FY2012 1/4	FY2012 2/4
대형사	4.2	4.9	4.0	-0.7	-0.2	-2.0	6.7	6.9	7.3
중소형사	0.4	1.7	1.9	-3.2	-3.4	-5.7	4.3	5.7	7.8
외국사	6.1	4.7	10.3	2.9	3.7	10.0	2.9	3.0	2.4
전업사	3.1	6.7	-1.1	-1.9	3.5	-4.6	5.6	4.2	4.3
전체	3.3	4.1	3.5	-1.3	-0.8	-2.8	6.1	6.5	7.3

주: 1) 매출이익률 = 당기순이익 / 영업수익 * 당기순이익 = 영업이익 + 영업외이익 + 특별계정이익 - 법인세비용

2) 보험영업이익률 = 보험영업이익 / 영업수익 * 영업수익 = 보험영업수익 + 투자영업수익

3) 투자영업이익률 = 투자영업이익 / 영업수익 * 영업수익 = 보험영업수익 + 투자영업수익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다. 판매채널

〈모집형태별 원수보험료〉

■ FY2012 2/4분기 모집형태별 원수보험료 기준으로 설계사 및 대리점 채널 비중은 전년동기대비 축소되었으나 방카슈랑스 채널 비중은 확대됨.

- 방카슈랑스 채널 비중은 농협손해보험 시장 진입 효과와 저축성보험 신규 판매 확대로 4.0%p 증가한 11.6%를 기록함.
- 설계사 및 대리점 채널 비중은 방카슈랑스 채널 비중 확대의 영향으로 각각 2.0%p, 1.9%p 줄어든 31.2%, 42.9%를 나타냄.

〈표 35〉 손해보험 모집형태별 원수보험료

(단위: 억 원, %)

구분	FY2011					FY2012		
	1/4	2/4	3/4	4/4	연간	1/4 (농협포함)	2/4 (농협포함)	2/4 (농협제외)
임직원	22,603	19,022	34,353	21,138	97,115	24,396	22,518	22,416
	16.1	13.4	20.7	13.1	15.9	14.5	13.5	13.7
설계사	45,467	47,161	48,001	49,012	189,640	49,886	52,119	51,931
	32.3	33.2	28.9	30.5	31.1	29.7	31.2	31.7
대리점	62,156	63,637	68,432	64,971	259,195	71,963	71,767	71,764
	44.2	44.8	41.2	40.4	42.5	42.8	42.9	43.8
중개사	1,107	1,113	1,275	930	4,424	1,113	1,206	1,206
	0.8	0.8	0.8	0.6	0.7	0.7	0.7	0.7
방카슈랑스	9,208	10,824	13,879	24,416	58,327	20,458	19,476	16,279
	6.5	7.6	8.4	15.2	9.6	12.2	11.6	9.9
공동인수	183	217	214	333	946	148	178	174
	0.1	0.2	0.1	0.2	0.2	0.1	0.1	0.1
전체	140,723	141,973	166,153	160,799	609,648	167,964	167,265	163,77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1) 원수보험료 실적은 분기치이며, 각 하단 수치는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2) 설계사는 교차모집설계사의 실적을 포함한 수치임.

3) 원수보험료 실적은 일반계정 및 특별계정을 모두 포함함.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모집조직 규모〉

■ FY2012 2/4분기 말 임직원 수와 설계사 수는 전분기대비 증가한 반면 대리점 수는 감소함.

- 임직원 수는 정규직 직원 수 증가와 농협손해보험의 비정규직 직원 수 포함으로 648명 증가한 3만 2,464명을 기록함.
- 설계사 수는 전속설계사 수가 상위 4사⁸⁾를 중심으로 증가하고, 교차설계사 수가 농협손해보험의 포함으로 늘어남에 따라 전체 1,444명 증가한 16만 8,545명을 나타냄.
- 대리점 수는 대형 법인대리점 선호 현상으로 법인대리점과 개인대리점이 각각 52개, 516개 감소함에 따라 전체 568개 줄어든 3만 8,857개를 기록함.

〈표 36〉 손해보험 모집조직 규모

(단위: 명, 개)

구분	FY2011				FY2012		
	1/4	2/4	3/4	4/4	1/4 (농협포함)	2/4 (농협포함)	2/4 (농협제외)
임직원	29,537	30,060	30,470	31,003	31,816	32,464	32,072
설계사	161,858	161,129	161,441	161,237	167,101	168,545	167,391
전속	85,372	86,517	87,893	88,179	92,179	93,400	93,397
교차	76,486	74,612	73,548	73,058	74,922	75,145	73,994
대리점	41,519	41,034	40,543	39,818	39,425	38,857	38,843
개인	29,647	29,254	28,670	27,844	27,445	26,929	26,924
법인	11,872	11,780	11,873	11,974	11,980	11,928	11,919

주: 교차모집설계사는 FY2008 2/4분기부터 허용되었으나, 설계사의 세분은 FY2008 4/4분기 업무보고서부터 수록됨.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8) 원수보험료 기준 상위 4개사를 제외한 국내사를 의미함.

IV. 해외보험시장 동향

1. 미국 동향¹⁾

가. 생명보험

■ 2012년 3/4분기(4~9월) 미국 생명보험 시장규모는 정기보험과 변액유니버설보험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종신보험과 유니버설보험이 성장세를 지속하면서 신계약의 연납화 보험료²⁾ 기준으로 전년동기대비 3% 증가함.

- 종신보험은 전년동기대비 5% 증가하면서 3분기 연속 생명보험 상품 중 가장 높은 증가세를 나타냄.
- 유니버설보험의 연납화 보험료는 전 분기와 마찬가지로 인덱스형 유니버설보험 판매 호조에 힘입어 4%의 증가율을 나타냄.
 - 3/4분기 인덱스형 유니버설보험 판매는 39% 증가하였으며, 3분기 누적 증가율은 32%를 기록함.
 - 인덱스형 유니버설보험의 인기는 원금보장과 함께 주식시장 상승 시 추가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상품의 특성 때문임.
 - 한편, 장기보장성 유니버설보험은 저금리에 따른 보험료 인상으로 3/4분기 연납화 보험료가 10% 감소함.
- 변액유니버설보험의 연납화 보험료는 주식시장의 부진으로 4% 감소하면서 3분기 연속 감소세를 지속함.
 - 최근 주식시장 변동성의 확대로 소비자들의 리스크 회피 심리가 강해지면서 변액유

1) 미국 보험시장의 통계 및 용어에 관한 설명은 뒤의 조사 개요 및 출처를 참고.

2) 연납화 보험료(Annualized Premium) = 일시납보험료 × 10% + 정기납보험료

니버셜보험 수요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 2012년 3/4분기 누적 점유율은 종신보험만이 2011년 말에 비해 확대되었으며, 변액유니버셜보험의 비중은 감소함.

○ 종목별 점유율은 유니버셜보험이 4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종신보험, 정기보험, 변액유니버셜보험이 각각 30%, 20%, 8%를 차지함.

〈표 1〉 미국 생명보험 신계약 연납화 보험료 증가율 추이

(단위: %, 백만 달러)

구분	CY2011				CY2012			
	3/4	4/4	연간		1/4	2/4	3/4	
	증가율	증가율	증가율	비중	증가율	증가율	증가율	비중
유니버셜	3	-2	3	42	0	6	4	42
기타변액	0	0	0	0	0	0	0	0
변액유니버셜	34	36	22	9	-1	-6	-4	8
정기	-4	-4	-6	20	1	-3	-1	20
종신	10	5	9	29	10	9	5	30
계	6	2	4	100	3	4	3	100
연납화 보험료	2,357	2,691	9,812		2,398	2,511	2,404	

주: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기준이며, 비중은 누적치임.

자료: LIMRA(2012, 12), U.S. Individual Life Insurance Sales.

나. 연금보험

■ 2012년 3/4분기 미국 개인연금 신규보험료는 변액연금과 정액연금이 모두 크게 감소하면서 전체적으로 9.7% 감소한 543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이는 2010년 1/4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임.

○ 변액연금 신규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8.0% 감소한 366억 달러로 2010년 3/4분기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하였으며, 최근 4분기 연속 감소세를 기록함.

○ 정액연금 신규보험료는 저금리의 영향으로 12.8% 감소한 177억 달러로 2007년 2/4분기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였으며, 특히 고정형 거치연금 신규보험료는 1990년대 말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냄.

- 한편, 정액연금 중 인덱스형 연금은 유일하게 신규보험료 증가를 기록함.

〈표 2〉 미국 연금 종목별 신규보험료 추이

(단위: 십억 달러, %)

구분		CY2011					CY2012		
		1/4	2/4	3/4	4/4	연간	1/4	2/4	3/4
변액연금	보험료	39.5	40.6	39.8	38.0	157.9	36.8	38.6	36.6
	증가율	22.7	15.3	15.0	-1.3	12.4	-6.8	-4.9	-8.0
	비중	66.4	65.6	66.2	66.8	66.2	67.2	67.7	67.4
정액연금	보험료	20.0	21.3	20.3	18.9	80.5	18.0	18.4	17.7
	증가율	3.6	-2.3	-5.1	-2.6	-1.7	-10.0	-13.6	-12.8
	비중	33.6	34.4	33.8	33.2	33.8	32.8	32.3	32.6
합계	보험료	59.5	61.9	60.1	56.9	238.4	54.8	57.0	54.3
	증가율	15.5	8.6	7.3	-1.7	7.2	-7.9	-7.9	-9.7
	비중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수치임.

자료: LIMRA(2012, 12), U.S. Individual Annuities.

■ 2012년 3/4분기 개인연금 판매 채널 비중은 독립중개인이 25.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전속설계사가 21.9%, 독립설계사가 16.4%, 증권중개인, 은행, 직접판매 등이 각각 13.4%, 13.1%, 8.3%로 나타남.

○ 변액연금에서 독립중개인과 전속설계사의 비중이 각각 35.2%, 24.0%로 나타났으며, 정액연금은 독립설계사의 비중이 48.6%로 가장 높게 나타남.

〈표 3〉 미국 개인연금 판매채널 비중

(단위: %)

구분	CY2011			CY2012		
	2/4	3/4	4/4	1/4	2/4	3/4
은행	15.9	14.9	13.4	13.5	13.7	13.1
전속설계사	21.0	21.7	23.0	23.8	21.8	21.9
직접판매	8.0	7.6	8.2	8.8	9.6	8.3
독립중개인	21.0	21.2	22.1	23.2	23.2	25.0
독립설계사	17.0	17.6	16.2	16.3	15.6	16.4
증권중개인	14.9	14.9	14.8	12.6	14.0	13.4
기타	2.2	2.0	2.3	1.8	2.1	1.8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LIMRA(2012, 9), U.S. Individual Annuities.

다. 소득보상보험

■ 2012년 3/4분기 소득보상보험의 신규보험료는 Guaranteed Renewable³⁾의 감소를 Non-cancellable⁴⁾이 상쇄하면서 전년동기대비 0.5% 증가함.

○ Guaranteed Renewable의 신규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4.0% 감소한 반면 Non-cancellable은 3.3% 증가함.

〈표 4〉 미국 소득보상보험 신규보험료 추이

(단위: 천 건, 백만 달러, %)

구분			CY2011					CY2012		
			1/4	2/4	3/4	4/4	연간	1/4	2/4	3/4
계약건수	Guaranteed Renewable	건 수	107.2	76.0	81.6	83.1	347.9	107.6	67.5	75.0
		증가율	1.4	2.3	-2.5	3.4	1.1	0.4	-11.2	-8.2
		구성비	76.2	69.0	66.6	67.1	70.0	75.4	65.9	65.2
	Non-cancellable	건 수	33.4	34.1	40.9	40.8	149.2	35.1	34.9	40.0
		증가율	8.6	2.9	8.8	4.5	6.2	5.0	2.5	-2.1
		구성비	23.8	31.0	33.4	32.9	30.0	24.6	34.1	34.8
	전체	건 수	140.6	110.1	122.5	123.9	497.1	142.7	102.4	115.0
		증가율	3.0	2.5	1.0	3.8	2.6	1.5	-7.0	-6.1
		구성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신규보험료	Guaranteed Renewable	보험료	64.1	48.8	51.5	53.1	217.6	64.5	46.7	49.5
		증가율	6.2	-0.2	1.3	4.2	3.1	0.6	-4.3	-4.0
		구성비	49.1	40.0	38.8	39.9	42.0	47.6	37.6	37.1
	Non-cancellable	보험료	66.6	73.1	81.2	80.1	300.9	71.1	77.4	83.8
		증가율	6.6	9.2	8.3	5.0	7.2	6.8	5.8	3.3
		구성비	50.9	60.0	61.2	60.1	58.0	52.4	62.4	62.9
	전체	보험료	130.7	121.9	132.7	133.2	518.5	135.6	124.0	133.3
		증가율	6.4	5.2	5.5	4.7	5.4	3.8	1.8	0.5
		구성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수치임.

자료: LIMRA(2012, 9), U.S. Individual Disability Income Insurance.

3) Guaranteed Renewable: 피보험자는 정해진 연령까지 계약을 갱신할 수 있고, 회사는 갱신 시 보험료를 변경할 권리를 갖지만 계약을 취소하거나 일방적인 급부 변경을 할 수 없음.

4) Non-cancellable: 피보험자는 정해진 연령까지 계약을 갱신할 수 있고, 갱신 시 보험회사는 계약을 취소하거나 보험료 또는 급부를 임의대로 변경할 수 없음.

라. 손해보험

- 2012년 2/4분기⁵⁾ 미국 손해보험 보험영업이익은 원수보험료가 증가하고 지급보험금이 감소하면서 전년동기대비 적자폭이 40억 달러 감소한 65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함.
 - 원수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4.2% 증가한 1,143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2004년 2/4분기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함.
 - 지급보험금은 대재해 손실 감소로 전년동기대비 10.6% 감소한 852억 달러를 기록함.
 - 손해조사비용을 제외한 미국 내 대재해 손실은 전년동기에 비해 102억 달러 감소한 120억 달러로 크게 감소함.
 - 합산비율은 원수보험료 증가와 지급보험금 감소로 전년동기 117.6%에서 12.3%p 하락한 105.3%를 기록하였으며, 105%는 1986년 이후 2/4분기 손해율 평균치에 해당함.
 - 모기지 및 금융보증 관련 회사를 제외한 원수보험료는 4.3% 증가하였고 지급보험금은 10.4% 감소하였으며, 이에 따라 합산비율은 전년동기 116.5%에서 11.9%p 하락한 104.6%로 나타남.
- 총 투자영업이익은 이자수입과 배당금 등의 투자영업이익과 실현자본이익이 모두 감소하면서 전체적으로 11.8% 감소한 131억 달러로 나타남.
 - 투자영업이익은 전년동기대비 2억 달러 감소한 121억 달러로 나타났으며, 저금리 환경이 지속되면서 투자영업이익은 감소세를 지속함.
 - 실현자본이익도 전년동기대비 16억 달러 감소한 10억 달러로 나타났고, 실현자본이익과 미실현 자본이익을 합한 총 자본이익은 16억 달러 손실을 기록함.
- 손해보험산업의 당기순이익은 전년동기대비 93억 달러 증가하면서 63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으며, 자기자본이익률도 6.6%p 상승한 4.4%를 기록함.
 - 손해보험 원수보험료가 2010년 2/4분기 이후 9분기 연속 증가세를 나타내는 등 보험영업이익이 증가세를 지속함에 따라 투자영업이익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당기순이익은 개선됨.

5) 미국 손해보험산업 데이터는 입수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아 2012년 2/4분기 자료를 사용함.

- 모기지 및 금융보증 관련 회사의 자기자본이익률은 FY2011 2/4분기 -34.6%에서 23.2%로 크게 개선되었으며, 이들을 제외한 손해보험회사들의 자기자본이익률도 2011년 1/4분기 -1.5%에서 4.0%로 개선됨.

〈표 5〉 미국 손해보험 실적 추이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CY2011				CY2012	
		2/4	3/4	4/4	연간	1/4	2/4
원수보험료	금액	109,746	115,740	103,073	437,604	112,382	114,337
	증가율	1.6	4.6	3.8	3.3	3.1	4.2
지급보험금	금액	95,404	89,883	80,432	344,469	75,614	85,280
	증가율	22.9	15.8	0.2	10.9	-4.0	-10.6
보험영업이익	금액	-19,262	-10,548	-820	-34,657	294	-6,526
	증가율	532.8	1146.8	-73.0	321.8	-107.3	-66.1
계약자 배당금	금액	348	260	780	1,850	521	285
	증가율	34.4	-23.5	-33.7	-19.5	12.8	-18.1
총 보험영업이익	금액	-19,610	-10,808	-1,600	-36,507	-227	-6,811
	증가율	493.7	811.3	-62.0	247.2	-94.9	-65.3
투자영업이익	금액	12,222	11,681	12,498	48,998	11,656	12,062
	증가율	1.3	2.1	1.6	3.0	-7.5	-1.3
실현자본이익	금액	2,617	1,862	1,718	7,185	685	1,020
	증가율	103.8	-15.4	33.1	22.8	-30.7	-61.0
총 투자영업이익	금액	14,839	13,544	14,216	56,184	12,341	13,083
	증가율	11.2	-0.7	4.6	5.2	-9.2	-11.8
세전 영업이익	금액	-7,347	2,007	11,540	14,826	11,786	6,577
	증가율	-181.7	-79.9	31.6	-61.2	36.6	-189.5
당기순이익	금액	-3,065	3,221	11,171	19,150	10,141	6,282
	증가율	-139.5	-68.3	37.5	-45.6	29.6	-305.0
자기자본(surplus)	금액	559,058	538,627	550,308	550,308	570,665	567,770
	증가율	4.9	-1.1	-1.6	-1.6	0.7	1.6
지급준비금	금액	574,977	578,117	572,604	572,604	570,645	574,683
	증가율	2.8	3.8	2.1	2.1	1.2	-0.1
합산비율		117.6	108.6	103.4	108.2	99.0	105.3

주: 1)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수치임.

2) 세전영업이익 = 총 보험영업이익 + 총 투자영업이익 + 기타이익

자료: III, P/C Insurers' First-Quarter 2012 Results (2012. 9).

조사 개요 및 출처

■ 미국의 보험산업은 크게 생명보험(종신보험, 정기보험 등), 연금보험, 건강보험, 손해 보험으로 구분되며, 이 중 건강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종목과 장기간병보험, 소득보상 보험에 대한 분기별 통계를 입수할 수 있음.

○ 미국 민영건강보험 사업자는 비영리 민간보험조합인 Blue Shield, Blue Cross와 지역의료공급조직(HMO: Health Maintenance Organization)이 존재하고 이들이 민영의료보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건강보험이 직장단체 보험으로 운영되는 등 우리나라와 많은 차이가 있음.

○ 생명보험에는 유니버설보험, 변액보험, 정기보험, 종신보험 등이 있으며, 연금보험 은 크게 변액연금보험과 정액연금보험으로 구분됨.

- 미국생명보험협회(ACLI: The American Council of Life Insurers)나 생명보험마케팅연구단체(LIMRA: Life Insurance Marketing and Research Association) 등은 생명 보험, 연금보험, 소득보상보험, 장기간병보험에 대한 자료만 제공함.

- 원고 작성에 사용되는 LIMRA의 분기별 자료는 신계약에 대한 보험료를 중심으로 발표됨.

○ 손해보험은 다양한 세부 종목이 존재하나, 미국손해보험협회(PCI: Property Casualty Insurers Association of America)와 보험요율단체(ISO: Insurance Services Office Limited), 보험정보원(III: Insurance Information Institute)이 공동으로 발표하는 분 기별 지표는 전체적인 영업성과 위주로 제시됨.

■ 구체적으로 미국보험시장 동향 작성을 위해 참고한 문헌은 다음과 같음.

보고서	참여 회사 수	수입보험료 비중	발표 기관
U.S. Individual Life Insurance Sales	77개사	85%	LIMRA
U.S. Individual Annuities	61개사	97%	LIMRA
U.S. Individual Disability Income Insurance	18개사	-	LIMRA
U.S. Individual LTC Insurance	24개사	95%	LIMRA
손해보험 분기별 실적 보도자료	-	-	PCI, ISO, III

2. 영국 동향⁶⁾

가. 생명보험 신규보험료 추이

〈생명보험 전체〉

■ 2012년 3/4분기 생명보험 전체 보험료⁷⁾ 규모는 118억 1,470만 파운드로 전년동기대비 7.1% 증가함.

- 전년동기대비 보험료 증가는 하계 올림픽 특수에 따른 영국경제 호조에 기인함.
- 2012년 3/4분기 생명보험 전체 보험료 규모는 3/4분기만을 대상으로 할 때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임.⁸⁾
-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 3년(2006~2008년) 3/4분기 평균 보험료(192억 522만 파운드)의 61.5% 수준에 불과하여 여전히 금융위기 이전 수준에는 미치지 못함.

■ 3/4분기 분할납 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2.7% 증가한 12억 5,700만 파운드를 기록함.

- 2012년 3/4분기 분할납 보험료 규모는 3/4분기만을 대상으로 할 때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직후(2009~2011년) 3년간 평균 보험료인 12억 4,220만 파운드를 초과하였으며, 경기회복세가 나타났었던 2010년 3/4분기 보험료 12억 8,700만 파운드에도 근접함.

■ 3/4분기 일시납 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7.6% 증가한 105억 5,770만 파운드를 기록함.

- 2012년 3/4분기 일시납 보험료 규모 역시 3/4분기만을 대상으로 할 때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이후(2009~2011년) 3년간 평균 보험료인 99억 9,500만 파운드를 초과함.

6) 영국 보험시장의 통계 및 용어에 관한 설명은 뒤의 조사 개요 및 출처를 참고하기 바람.

7) 분할납 신규보험료와 일시납 신규보험료 합계.

8) 2009년 3/4분기 109억 8,100만 파운드, 2010년 3/4분기 110억 6,100만 파운드, 2011년 3/4분기 110억 3,300만 파운드

<표 6> 영국 생명보험 분할납 신규보험료

(단위: 백만 파운드, %)

분할납 신규보험료		2011				2012		
		2/4	3/4	4/4	연간	1/4	2/4	3/4
투자 및 저축보험	보험료	9.1	9.4	7.5	35.0	7.4	6.0	6.8
	증가율	- 46.5	- 25.7	- 24.6	- 38.9	- 18.6	- 33.7	- 27.9
	구성비	0.5	0.8	0.6	0.6	0.5	0.4	0.5
퇴직연금계좌	보험료	1,003.3	800.0	781.6	3,470.9	910.4	914.4	849.2
	증가율	7.2	0.7	7.1	8.9	2.8	- 8.9	6.2
	구성비	60.1	65.3	63.6	62.6	67.2	66.8	67.6
퇴직연금	보험료	381.6	154.4	192.8	987.8	160.0	168.5	131.5
	증가율	54.8	- 26.6	- 22.7	8.4	- 38.2	- 55.8	- 14.8
	구성비	22.9	12.6	15.7	17.8	11.8	12.3	10.5
역외영업	보험료	8.7	7.1	5.3	31.9	4.4	3.8	5.8
	증가율	- 0.1	- 23.6	- 51.1	- 12.9	- 59.7	- 56.0	- 18.4
	구성비	0.5	0.6	0.4	0.6	0.3	0.3	0.5
보장성보험	보험료	265.5	253.3	241.2	1,017.7	272.1	277.0	263.7
	증가율	- 3.6	- 2.6	- 7.7	- 4.2	5.6	4.4	4.1
	구성비	15.9	20.7	19.6	18.4	20.1	20.2	21.0
합계	보험료	1,668.1	1,224.2	1,228.4	5,543.3	1,354.2	1,369.8	1,257.0
	증가율	12.5	- 4.9	- 2.6	5.5	- 4.8	- 17.9	2.7
	구성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표 7> 영국 생명보험 일시납 신규보험료

(단위: 백만 파운드, %)

일시납 신규보험료		2011				2012		
		2/4	3/4	4/4	연간	1/4	2/4	3/4
투자 및 저축보험	보험료	2,333.8	2,069.9	2,047.7	8,974.9	1,992.2	2,053.4	1,935.6
	증가율	- 6.6	- 13.9	- 19.9	- 11.6	- 21.1	- 12.0	- 6.5
	구성비	19.0	21.1	15.8	19.4	17.4	17.6	18.3
퇴직연금계좌	보험료	5,033.2	3,785.6	3,244.0	16,047.2	3,859.8	4,915.4	3,647.7
	증가율	9.4	12.4	4.0	5.9	- 3.1	- 2.3	- 3.6
	구성비	41.0	38.6	25.1	34.7	33.8	42.2	34.6
퇴직연금	보험료	3,400.1	2,270.4	6,403.3	15,146.2	4,376.9	3,551.8	3,770.4
	증가율	6.0	- 7.6	42.6	18.0	42.5	4.5	66.1
	구성비	27.7	23.1	49.5	32.8	38.3	30.5	35.7
역외영업	보험료	1,498.1	1,662.8	1,211.4	5,926.7	1,169.4	1,105.6	1,184.6
	증가율	- 14.8	9.4	- 25.3	- 7.4	- 24.8	- 26.2	- 28.8
	구성비	12.2	17.0	9.4	12.8	10.2	9.5	11.2
보장성보험	보험료	22.8	20.1	24.1	89.3	19.8	21.7	19.4
	증가율	- 10.4	- 12.9	- 3.8	- 16.1	- 11.0	- 5.0	- 3.6
	구성비	0.2	0.2	0.2	0.2	0.2	0.2	0.2
합계	보험료	12,288.2	9,808.8	12,930.5	46,184.3	11,418.1	11,648.0	10,557.7
	증가율	1.6	0.4	9.4	3.4	2.3	- 5.2	7.6
	구성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자료: 영국보험협회(ABI).

〈투자·저축보험 신규보험료〉

■ 2012년 3/4분기 분할납 기준 투자·저축 보험료는 대부분 종목의 부진으로 전년동기대비 27.9% 감소함.

- 금액으로는 전년동기대비 260만 파운드 감소하였으며, 이중에서 생사혼합저축보험(endowments savings)이 전년동기대비 300만 파운드 감소함.

■ 같은 기간 일시납 기준 보험료는 유배당채권(with profit bonds)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종목에서 판매가 부진해지면서 전년동기대비 6.5% 감소함.

- 변액연동채권(unit-linked bonds)은 전년동기대비 2억 8,500만 파운드 감소하였는데, 이는 일시납 투자·저축 보험료의 전년동기대비 감소액(1억 3,430만 파운드)을 초과함.
- 변액연동채권의 계약건수는 전년동기대비 7,000건 감소하였고, 판매채널별로는 독립재정자문가(2억 500만 파운드)와 전속대리점(8,100만 파운드) 판매가 감소함.

〈퇴직연금계좌 신규보험료〉

■ 2012년 3/4분기 퇴직연금계좌 분할납 기준 보험료는 대부분의 종목이 부진하였으나 단체개인연금계좌(group personal pensions)의 호조로 전년동기대비 6.2% 증가함.

- 금액으로는 전년동기대비 4,920만 파운드 증가함.
- 전분기 감소하였던 단체개인연금계좌는 전년동기대비 4,300만 파운드 증가함.
- 계약건수 기준으로는 전년동기대비 43,000건 감소하였으나, 독립재정자문가 채널을 통한 단체 판매액이 증가함.

■ 일시납 기준 퇴직연금계좌 보험료는 DWP를 제외한 모든 종목의 판매부진으로 전년동기대비 3.6% 감소함.

- 단체개인연금계좌 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1억 6,000만 파운드 감소하였고, 감소금액은 일시납 퇴직연금계좌 보험료 판매 감소액 1억 3,790만 파운드를 초과함.
- 계약건수가 전년동기대비 7,000건 감소하였고, 채널별로는 특히 IFA 판매 감소(-1억 900만 파운드)가 주목됨.

- 반면, DWP(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에서 지급되는 개인연금(rebate)은 전년 동기대비 1억 1,100만 파운드 증가함.

〈퇴직연금 신규보험료〉

■ 2012년 3/4분기 분할납의 경우 금액기준으로 가장 크게 감소한 보험은 퇴직연금으로 DC형 및 DB형 보험료가 모두 줄어들면서 전년동기대비 14.8% 감소함.

- DC형 퇴직연금 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15.8% 감소하였으며, 채널별로는 전속대리점 판매 감소액(1,400만 파운드)이 DC형 판매 감소액의 87.5%를 차지함.
- DB형 퇴직연금 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35.3% 감소하였고, 채널별로는 전속대리점 판매 감소액(2,800만 파운드)이 DB형 판매 감소액(2,290만 파운드)을 초과함.

■ 반면, 일시납 퇴직연금은 전년동기대비 66.1% 증가하여 금액 기준으로는 일시납 보험료 중에서 가장 크게 성장함.

- 영국경제의 호조로 동 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판매 증가액이 15억 파운드를 기록하여 일시납 전체 보험료 판매 증가액 7억 4,890만 파운드를 초과함.
- 경기불황기에도 수익을 보장해주는 맞춤형퇴직연금(trustee investment plans)은 전년 동기대비 8억 3,400만 파운드 증가함.
 - 채널별로는 직접판매가 맞춤형퇴직연금 판매액 증가의 59%를 차지함.
- DB 및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DB형은 전년동기대비 1억 100만 파운드 증가한 반면 금융시장의 변동에 영향을 받는 DC형은 전년동기대비 2억 6,300만 파운드 감소함.

〈역외영업 신규보험료〉

■ 2012년 3/4분기 역외영업 보험료는 분할납 기준으로 전년동기대비 18.4% 감소하여 6분기 연속 감소함.

- 전체 분할납 보험에서 1% 미만을 차지하는 역외영업 보험은 모든 종목의 부진으로 전년 동기대비 130만 파운드 감소함.

■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에 영향을 받은 일시납 역외영업은 전년동기대비 28.8% 감소함.

- 공동투자채권(personal bonds (pooled))⁹⁾ 판매는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로 전년동기대비 5억 9,300만 파운드 감소함.
- 다만, 비투자형 역외 일시납 보험은 전년동기대비 1억 800만 파운드 증가함.

〈보장성보험 신규보험료〉

■ 전체 분할납 보험료의 21%를 차지하는 보장성보험료는 단체생명보험(group life) 판매 호조 지속으로 전년동기대비 4.1% 증가함.

- 정기보험, 종신보험, CI보험 등은 부진하였으나 단체생명보험(group life) 판매가 전년동기대비 1,500만 파운드 증가하여 보장성보험 성장세를 견인함.
 - 단체생명보험의 경우 계약 건수는 전년동기대비 36,000건 증가하였고, 채널별로는 IFA 판매가 전년동기대비 1,200만 파운드 증가함.

■ 전체 일시납 보험료에서 0.2%를 차지하는 일시납 보장성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3.6% 감소함.

- 일시납 보장성보험료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종합생명보험(collective life)이 전년동기대비 200만 파운드 감소함.

나. 모집형태별 신규보험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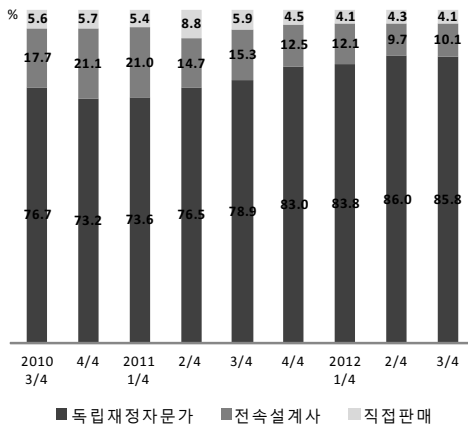
■ 2012년 3/4분기 분할납 기준으로 독립재정자문가(IFA)의 비중은 전년동기대비 증가한 반면, 직접판매와 전속대리점의 비중은 감소함(〈그림 1〉 참조).

- 독립재정자문가의 판매 비중은 퇴직연금, 퇴직연금계좌, 개인 보장성보험에서 늘어나 전년동기대비 6.9%p 증가한 85.8%를 기록함.
- 전속대리점의 판매 비중은 퇴직연금, 보장성보험에서 감소하여 전년동기대비 5.2%p 감소한 10.1%를 기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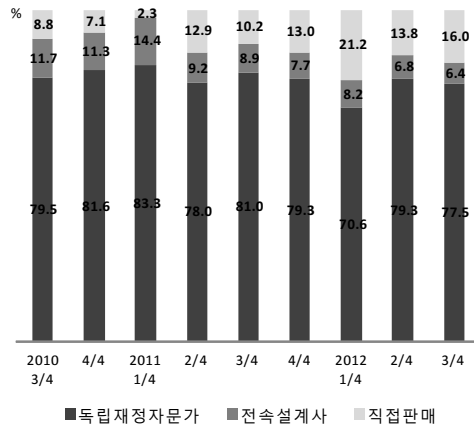
9) 뮤추얼 펀드, 투자신탁, Unit Trusts 등과 같은 공동투자 채권임.

- 직접판매의 비중은 퇴직연금계좌, 개인 보장성보험에서 감소하여 전년동기대비 1.8%p 감소한 4.1%로 나타남.

〈그림 1〉 판매채널별 분할납 보험료 비중



〈그림 2〉 판매채널별 일시납 보험료 비중



자료: 영국보험협회(ABI).

■ 일시납 기준의 경우 독립재정자문가(IFA)와 전속대리점의 비중은 전년동기대비 감소한 반면, 직접판매의 비중은 증가함(〈그림 2〉 참조).

- 독립재정자문가의 판매 비중은 퇴직연금, 퇴직연금계좌에서 줄어들어 전년동기대비 3.5%p 감소한 77.5%를 기록함.
- 전속대리점의 판매 비중은 퇴직연금계좌를 제외한 모든 종목에서 줄어들어 전년동기대비 2.5%p 감소한 6.4%를 기록함.
- 직접판매의 판매 비중은 퇴직연금, 퇴직연금계좌, 투자·저축 보험에서 늘어나 전년 동기대비 5.8%p 증가한 16.0%로 나타남.

■ 반면, 방카슈랑스 채널의 경우 3/4분기 분할납 및 일시납 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동반 부진한 것으로 나타남.

- 분할납 기준 방카슈랑스 판매는 전 종목에 걸친 판매 부진으로 전년동기대비 2,200만 파운드 감소한 7,900만 파운드를 기록함.
- 일시납 기준 방카슈랑스 판매는 퇴직연금과 퇴직연금계좌에서는 전년동기대비 증가하였으나 나머지 투자·저축보험, 역외영업의 판매 부진으로 전년동기대비 8,700만 파운드 감소한 8억 7,600만 파운드를 기록함.

조사 개요 및 출처

■ 영국의 보험산업은 영국보험협회(ABI: Association of British Insurers)에서 분기별로 발표하는 생명보험의 신규 보험료 통계를 바탕으로 기술함.

○ 영국의 경우 생명보험의 신규 보험료를 제외하고, 생명보험의 기타 통계 및 손해보험의 통계 입수가 어려운 상황임.

■ 영국보험협회에서 발표하는 분기별 생명보험 신규계약은 6개 종목으로 구분되는데, 보장성보험을 제외하면 신규계약은 개인과 단체로 분리되지 않음.

○ 보장성보험이 신규계약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작기 때문에 개인보장성보험과 단체보장성보험을 보장성보험으로 통합하여 분류함.

■ ABI가 발표한 용어를 편의상 우리식 용어로 의역함.

원문	의역
Investment & Savings	투자 · 저축성보험
Individual Pensions	퇴직연금계좌
Occupational Pensions	퇴직연금
Offshore Business	역외영업
Individual Protection & Group Protection	보장성보험

3. 일본 동향¹⁰⁾

가. 생명보험

〈신규계약 현황〉

■ FY2012 2/4분기 생명보험 신규계약액의 경우 개인연금의 성장률은 감소한 반면, 사망보험을 중심으로 한 개인보험의 성장으로 전년동기대비 1.0% 증가한 19조 8,789억 엔을 기록함.

〈표 8〉 일본 생명보험 신규계약액

(단위: 억 엔, 전년동기대비 %)

구분		FY2011				FY2012	
		2/4	3/4	4/4	연간	1/4	2/4
개 인	금 액	174,097	178,917	169,856	677,673	167,733	178,254
	증가율	2.9	3.9	9.3	3.6	8.4	2.4
	구성비	88.5	85.4	85.3	86.1	84.6	89.7
사 망	금 액	145,014	146,156	139,434	556,910	137,851	149,663
	증가율	5.3	3.2	9.9	4.5	9.1	3.2
	구성비	73.7	69.7	70.0	70.7	69.5	75.3
생 사 혼 합	금 액	27,407	30,885	28,764	114,136	28,775	27,536
	증가율	-9.5	5.8	5.3	-1.3	6.3	0.5
	구성비	13.9	14.7	14.4	14.5	14.5	13.9
생 존	금 액	1,676	1,876	1,659	6,628	1,107	1,055
	증가율	34.8	29.6	33.4	26.7	-21.9	-37.1
	구성비	0.9	0.9	0.8	0.8	0.6	0.5
개인연금	금 액	18,615	26,131	18,325	79,558	18,472	17,790
	증가율	-5.5	62.0	12.5	14.0	12.0	-4.4
	구성비	9.5	12.5	9.2	10.1	9.3	8.9
단체보험	금 액	4,063	4,533	11,057	30,214	12,158	2,745
	증가율	-13.3	61.5	59.8	21.7	15.1	-32.4
	구성비	2.1	2.2	5.5	3.8	6.1	1.4
합계	금 액	196,775	209,582	199,238	787,445	198,363	198,789
	증가율	1.6	9.6	11.5	5.2	9.1	1.0
	구성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일본생명보험협회.

10) 일본 보험시장의 통계 및 용어에 관한 설명은 〈조사 개요 및 출처〉를 참고하기 바람.

- 개인보험 신규계약액은 생존보험이 37.1% 감소한 반면, 사망보험과 생사혼합보험이 각각 3.2%, 0.5% 증가함에 따라 전년동기대비 2.4% 증가한 17조 8,254억 엔을 실현함.
 - 정기보험과 종신보험이 전년동기대비 각각 22.1%, 5.6% 증가해 사망보험의 성장세를 견인함.
 - 생사혼합보험은 양로보험이 전년동기대비 2.0% 감소한 반면, 기타보험이 2.0%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음.
- 개인연금보험은 변액연금보험이 8.4% 증가하였으나, 정액연금보험이 5.3% 감소함에 따라 전년동기대비 4.4% 감소한 1조 7,790억 엔을 기록함.
 - 일본의 공적연금 부채가 국내총생산(GDP)의 2.5배에 달할 정도로 심각한 재정부담으로 작용해 개인연금을 통한 노후준비가 주목받고는 있으나, 최근 장기금리 인하 추세가 지속되면서 개인연금보험의 감소세를 주도하고 있음.
- 단체보험은 단체신용생명보험의 고성장(368.1%)에도 불구하고 종합복지단체정기보험이 20.4% 감소하면서 전년동기대비 32.4% 감소한 2,745억 엔을 기록함.

〈자산 현황〉

- FY2012 2/4분기 말 총자산 규모는 대출금 및 부동산 등의 자산이 감소한 반면, 유가증권이 1.6% 증가하면서 전분기대비 1.2% 증가한 328조 7,628억 엔을 기록함.
 - 현금 및 예금, 그리고 단기자금의 경우 전분기대비 각각 1.2%, 7.6% 감소함.
 - 유가증권은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지속되면서 국채와 지방채가 각각 1.8%, 2.3% 증가하였으며, 주식은 전분기대비 0.3% 감소함에 따라 전체 1.6%의 상승세를 보임.
 - 일본의 은행과 보험회사가 보유하는 국채 비중은 65.5%에 달하고 있으나, 외국인 투자자의 보유비중은 10%에도 못미쳐 일본의 장기금리를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하나의 요인이 되고 있음.
 - 대출금은 일반대출금 및 보험약관대출이 모두 감소함에 따라 0.3% 감소하였으며, 부동산도 0.4% 감소함.

〈표 9〉 일본 생명보험회사 주요 자산 현황 및 비중 추이

(단위: 억 엔, %)

구분	FY2011						FY2012			
	2/4		3/4		4/4		1/4		2/4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현금 및 예금	46,006	47.0	35,512	-22.8	35,155	-1.0	33,354	-5.1	32,947	-1.2
단기자금	21,533	16.4	25,595	18.9	25,093	-2.0	24,137	-3.8	22,301	-7.6
매입금전채권	30,515	-3.3	31,189	2.2	28,894	-7.4	28,890	-0.01	28,826	-0.2
금전신탁	19,517	-2.7	19,737	1.1	20,144	2.1	19,658	-2.4	20,683	5.2
유가증권	2,483,074	-0.4	2,500,557	0.7	2,575,603	3.0	2,567,069	-0.3	2,608,694	1.6
- 국 채	1,374,469	2.2	1,393,340	1.4	1,412,757	1.4	1,425,411	0.9	1,450,710	1.8
- 지방채	126,128	2.6	129,152	2.4	131,630	1.9	134,369	2.1	137,419	2.3
- 사 채	252,680	0.2	251,689	-0.4	253,429	0.7	253,288	-0.1	253,280	0.0
- 주 식	140,236	-7.3	134,667	-4.0	147,444	9.5	129,284	-12.3	128,889	-0.3
- 외화증권	438,671	-4.6	440,819	0.5	469,237	6.4	472,095	0.6	484,124	2.5
대출금	426,622	-2.2	425,334	-0.3	421,739	-0.8	412,639	-2.2	411,606	-0.3
부동산	66,223	0.4	65,570	-1.0	65,139	-0.7	64,597	-0.8	64,307	-0.4
운용자산	3,108,847	-0.1	3,119,521	0.3	3,196,765	2.5	3,176,195	-0.6	3,214,337	1.2
비운용자산	79,187	1.6	72,151	-8.9	72,760	0.8	72,894	0.2	73,291	0.5
총자산	3,188,034	-0.1	3,191,672	0.1	3,269,525	2.4	3,249,089	-0.6	3,287,628	1.2

주: 1) 기간별 수치는 해당기간 말에 대한 누적 잔액이며, 증가율은 전분기대비임.

2) 운용자산은 상기 주요자산, 채권대출거래지불보증금 등의 합계임.

3) 총자산은 운용자산과 유형 고정자산, 무형 고정자산 및 기타 자산 등의 합계임.

4) 연말 최종 집계되는 수치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자료: 일본생명보험협회.

나. 손해보험

〈보험료 현황〉

■ FY2012 2/4분기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해상 및 상해보험을 제외한 모든 종목에서 보험료 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전년동기대비 2.1% 증가한 1조 9,975억 엔을 시현함.

○ 화재보험은 일반화재보험과 지진보험이 각각 5.6%, 6.6% 증가하면서 전년동기대비 3.6% 증가한 3,352억 엔을 기록함.

- 2011년 대지진 이후 지진보험을 특약으로 붙인 화재보험 가입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표 10〉 일본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단위: 억 엔, %)

구분		FY2011				FY2012	
		2/4	3/4	4/4	연간	1/4	2/4
화재	보험료	3,234	3,614	3,541	13,773	3,425	3,352
	증가율	2.3	5.0	9.3	4.7	1.2	3.6
	구성비	16.5	18.1	17.9	17.2	16.2	16.8
해상	보험료	481	469	478	1,949	512	472
	증가율	-0.5	-0.8	-3.4	-0.8	-1.7	-1.9
	구성비	2.5	2.3	2.4	2.4	2.4	2.4
운송	보험료	148	154	154	622	171	150
	증가율	2.6	2.3	5.5	2.3	3.0	1.4
	구성비	0.8	0.8	0.8	0.8	0.8	0.8
자동차	보험료	8,448	8,772	8,729	34,761	9,122	8,780
	증가율	0.9	1.5	2.8	1.3	3.5	3.9
	구성비	43.2	43.8	44.1	43.5	43.1	44.0
자동차 배상책임	보험료	2,211	2,217	2,267	8,917	2,410	2,231
	증가율	1.0	16.9	13.6	10.6	8.5	0.9
	구성비	11.3	11.1	11.4	11.2	11.4	11.2
상해	보험료	2,747	2,626	2,409	10,677	2,882	2,629
	증가율	2.3	5.8	5.1	2.6	-0.4	-4.3
	구성비	14.0	13.1	12.2	13.4	13.6	13.2
특종	보험료	2,289	2,158	2,237	9,223	2,650	2,361
	증가율	4.6	0.6	6.4	2.9	4.4	3.1
	구성비	11.7	10.8	11.3	11.5	12.5	11.8
합계	보험료	19,558	20,010	19,814	79,923	21,171	19,975
	증가율	2.7	4.0	5.6	3.2	3.1	2.1
	구성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주: 1) 기간별 수치는 해당기간에 대한 실적치임.
 2)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수치이며, 구성비는 손해보험 전체 실적 대비임.
 3) 일본의 원수정보보험료, 신종보험을 각각 원수보험료, 특종보험으로 의역함.
 4) 연말 최종 집계되는 수치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자료: 일본손해보험협회.

- 자동차보험은 전년동기대비 3.9% 증가한 8,780억 엔을 기록하였으며, 자동차배상책임 원수보험료는 2,231억 엔으로 전년동기대비 0.9% 증가함.
 - 최근 상품요율 개정과 일본 정부의 에코카에 대한 정부보조금 지원으로 신차판매가 증가하면서 양호한 성장률을 시현함.
- 상해보험의 원수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4.3% 감소한 2,629억 엔을 기록하였으나, 특종보험은 전년동기대비 3.1% 증가한 2,361억 엔을 기록함.
 - 특종보험 중 비중이 큰 배상책임보험(52.3%)과 비용·이익보험¹¹⁾(17.2%) 등이 각각 1.4%, 11.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 해상보험은 유럽의 재정위기 및 엔고에 따른 수출 감소와 대규모 계약의 요율 인하 등으로 전년동기대비 1.9% 감소한 472억 엔을 기록함.

〈자산 현황〉

- FY2012 2/4분기 말 손해보험회사 총자산은 주식 및 회사채 등의 유가증권 감소로 운전자산이 전분기대비 1.7% 감소하였고, 비운전자산은 3.1% 증가하여 1.7% 감소한 26조 8,817억 엔을 기록함.
 - 현금 및 예금은 전분기대비 1.9% 증가한 7,634억 엔을 기록하였으며, 단기자금도 전분기대비 42.8% 증가한 5,104억 엔을 나타냄.
 - 유가증권은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국채가 전분기대비 2.8% 증가한 반면, 지방채와 회사채는 전분기대비 각각 2.1%, 3.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한편, 주식과 외화증권은 전분기대비 각각 6.3%, 0.4%의 감소율을 기록함.
 - 유럽 재정위기의 영향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이 지속되고 있어, 일본 보험회사들은 해외자산이나 통화 매입 보다는 국채를 보유할 것으로 보임.
 - 한편, 대출금과 부동산도 전분기 대비 각각 3.7%, 1.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11) 산업화 이후 기업활동이 복잡하고도 고도화됨에 따라 여러 가지 사고가 늘어나면서 기업에게 영업 이익을 잃게 하거나 영업유지를 위해 상실이익이나 그 비용을 담보로 하는 보험을 말하며, 우리나라의 기계보험 기업휴지손해부담특약 또는 이익상실 담보특약 등과 유사함.

〈표 11〉 일본 손해보험회사 주요 자산 현황 및 비중 추이

(단위: 억 엔, %)

구분		FY2011						FY2012			
		2/4		3/4		4/4		1/4		2/4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현금 및 예금		7,107	-1.8	9,119	28.3	9,146	0.3	7,494	-18.1	7,634	1.9
단 기 자 금		6,114	94.9	2,691	-56.0	3,801	41.2	3,573	-6.0	5,104	42.8
환매조건부채권		2,125	-10.9	3,730	75.6	4,071	9.1	4,159	2.2	2,904	-30.2
매입금전채권		7,971	3.6	7,430	-6.8	6,741	-9.3	6,221	-7.7	4,143	-33.4
금 전 신 탁		794	4.1	658	-17.1	581	-11.7	541	-6.9	586	8.3
유가증권	국 채	52,386	1.9	54,786	4.6	57,769	5.4	58,121	0.6	59,765	2.8
	지 방 채	4,693	-9.9	4,457	-5.0	3,924	-12.0	3,852	-1.8	3,773	-2.1
	회 사 채	31,282	-2.2	29,871	-4.5	29,200	-2.2	28,725	-1.6	27,871	-3.0
	주 식	55,645	-11.4	50,904	-8.5	57,242	12.5	51,275	-10.4	48,049	-6.3
	외화증권	45,725	-3.0	44,009	-3.8	43,235	-1.8	45,757	5.8	45,554	-0.4
	기타증권	2,869	-10.4	2,886	0.6	2,981	3.3	2,846	-4.5	2,636	-7.4
	소 계	192,600	-4.5	186,914	-3.0	194,350	4.0	190,576	-1.9	187,649	-1.5
대 출 금		20,291	-4.5	19,776	-2.5	19,219	-2.8	18,986	-1.2	18,278	-3.7
부 동 산		10,571	-0.6	10,489	-0.8	10,749	2.5	10,693	-0.5	10,555	-1.3
운 용 자 산		247,572	-2.8	240,807	-2.7	248,658	3.3	242,343	-2.5	236,854	-2.3
비 운 용 자 산		31,255	-31.7	31,011	-0.8	31,300	0.9	31,005	-0.9	31,962	3.1
총 자 산		278,827	-7.2	271,820	-2.5	279,958	3.0	273,348	-2.4	268,817	-1.7

주: 1) 기간별 수치는 해당기간 말 누적 잔액이며, 증가율은 전분기대비임.

2) 비운용자산은 현금, 건설 중인 자산, 유·무형고정자산, 대리점비용, 재보험비용, 이연세금자산, 지불승낙담보 등을 말함.

3) 연말 최종 집계되는 수치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자료: 일본손해보험협회.

조사 개요 및 출처

■ 일본 보험산업은 크게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으로 구분되는데, 각각 일본생명보험협회(<http://www.seiho.or.jp>)와 일본손해보험협회(<http://www.sonpo.or.jp>)를 통해 입수한 통계를 바탕으로 기술함.

- 매월/분기에 공개되는 누적 통계(raw data)를 분기별로 전환해 분석함.
- 생명보험은 신계약종목별통계표(新契約種類別統計表)의 신규계약액을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며, 자산 현황은 생명보험사업개황(生命保險事業概況) 중 주요자산운용현황(主要資産運用状況) 통계를 분석함.
- 손해보험은 종목별통계표(種目別統計表)의 원수정미보험료(元受正味保険料)와 원수정미보험금(元受正味保険金) 통계를 활용해 보험료 및 지급보험금 현황을 분석하였으며, 자산 현황은 손해보험회사자금운용상황표(損害保險会社総合資金運用状況一覽表)를 이용하여 분석함.

■ 생명보험은 종목 특성을 고려하여 개인성보험과 단체성보험으로 구분하여 분석함.

- 개인성보험은 개인보험(個人保險)과 개인연금보험(個人年金保險)으로, 단체성보험은 단체보험(団体保險), 단체연금보험(団体年金保險), 재형보험(財形保險), 재형연금보험(財形年金保險), 의료보장보험(医療保障保險), 취업불능보험(就業不能保障保險)으로 분류함.
- 단체성보험 중 실적이 미미한 재형보험, 재형연금보험, 의료보장보험, 취업불능보험은 기타로 분류함.

■ 일본식 보험용어를 편의상 우리식 용어로 의역함.

원문	의역
원수정미보험료(元受正味保険料)	원수보험료
원수정미보험금(元受正味保険金)	지급보험금
신종보험(新種保險)	특종보험

4. 중국 동향¹²⁾

가. 중국 보험산업 총괄

〈수지상황〉

- 2012년 3/4분기 보험산업 전체 수입보험료는 3,544억 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10.9% 증가함.
- 3/4분기 손해보험 수입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세가 둔화되었으나 인보험 수입보험료가 회복하면서 보험산업 전체 수입보험 증가세는 전분기에 비해 확대됨.

〈표 12〉 중국 보험산업 수입보험료, 지급보험금, 사업비

(단위: 억 위안, %)

구분		CY2011				CY2012		
		2/4	3/4	4/4	연간	1/4	2/4	3/4
수입보험료	금액	3,440	3,197	3,085	14,339	4,835	3,698	3,544
	증가율	-0.5	-3.9	-3.7	-1.3	4.7	7.5	10.9
지급보험금	금액	979	914	1,056	3,929	1,172	1,091	1,130
	증가율	32.1	15.8	12.6	22.8	19.5	11.4	23.6
사업비	금액	437	466	594	1,882	467	505	536
	증가율	22.4	26.3	20.6	22.4	21.2	15.6	15.0

주: 1) 기간별 수치는 해당기간에 대한 실적수치이며,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임.

2) 상기 수치는 각 회사가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감사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연말 최종집계되는 수치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자료: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 보험산업 전체 지급보험금은 전년동기대비 23.6% 증가한 1,130억 위안을 기록함.

- 3/4분기 인보험 지급보험금 증가율이 상승세로 전환되면서 보험산업 전체 지급보험금 증가세는 전분기에 비해 확대됨.

- 보험산업 전체 사업비는 536억 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15.0% 증가하였으며 동 증가율은 전분기와 비슷한 수준임.

12) 중국 보험시장의 통계 및 용어에 관한 설명은 뒤의 〈조사 개요 및 출처〉를 참고 바람.

〈자산운용〉

- 2012년 3/4분기 보험산업 전체 총자산은 전분기대비 1.8% 증가한 6조 8,999억 위안을 기록함.
 - 이 중 운용자산은 전분기대비 3.2% 증가한 6조 3,784억 위안, 비운용자산은 전분기대비 12.4% 감소한 5,215억 위안을 기록함.
- 운용자산 중 예치금의 비중은 줄어든 반면 투자금의 비중은 확대되었음.
 - 예치금은 2조 1,979억 위안으로 전분기대비 2.7% 감소하였으며 운용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분기 33.3%에서 31.9%로 하락함.
 - 투자금은 4조 1,805억 위안으로 전분기대비 6.6% 증가하였으며 운용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분기 57.9%에서 60.6%로 상승함.
 - 3/4분기 중국당국의 재정확장정책 및 공개시장조작정책으로 인한 유동성 증대 등 투자여건이 개선되면서 채권 등으로 구성된 투자금의 비중은 상승한 반면 대기자금 성격의 예치금의 비중은 하락함.

〈표 13〉 중국 보험산업 자산운용 포트폴리오

(단위: 억 위안, %)

구분		CY2011				CY2012		
		2/4	3/4	4/4	연간	1/4	2/4	3/4
운용자산계	금액	52,051	52,611	55,474	55,474	58,882	61,804	63,784
	증가율	4.0	1.1	95.4	20.5	6.1	5.0	3.2
	구성비	90.6	91.9	92.2	92.2	92.5	91.2	92.4
예치금	금액	17,658	17,183	17,737	17,737	20,698	22,578	21,979
	증가율	8.6	-2.7	3.2	27.5	16.7	9.1	-2.7
	구성비	30.7	30.0	29.5	29.5	32.5	33.3	31.9
투자금	금액	34,393	35,428	37,737	37,737	38,183	39,226	41,805
	증가율	1.7	3.0	6.5	17.4	1.2	2.7	6.6
	구성비	59.8	61.9	62.8	62.8	60	57.9	60.6
비운용자산계	금액	5,419	4,646	4,664	4,664	4,796	5,956	5,215
	증가율	35.6	-14.3	0.4	5.2	2.8	24.2	-12.4
	구성비	9.4	8.1	7.8	7.8	7.5	8.8	7.6
총자산	금액	57,470	57,257	60,138	60,138	63,679	67,760	68,999
	증가율	6.3	-0.4	5.0	19.1	5.9	6.4	1.8
	구성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주: 1) 기간별 수치는 해당기간의 누적수치이며, 증가율은 전분기대비임.

2) 상기 수치는 각 회사가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감사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연말 최종 집계되는 수치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자료: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나. 인보험

〈수입보험료 현황〉

- 2012년 3/4분기 인보험 수입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8.1% 증가한 2,251억 위안¹³⁾으로 전 분기에 비해 증가세가 확대됨.
 -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6.3% 증가한 1,945억 위안으로 전분기에 비해 증가세가 확대됨.
 - 시장 유동성 증가에 따른 정기예금 및 은행 재테크 상품의 수익률 하락으로 생명보험 상품의 경쟁력이 상승하면서 수입보험료 회복세가 지속된 것으로 나타남.
 - 한편, 은행계 생명보험회사의 급성장 또한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회복세에 기여함.
- 인보험 중 건강보험과 상해보험 수입보험료는 모두 증가세가 지속됨.
 - 건강보험 수입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23.6% 증가한 204억 위안, 상해보험은 전년동기대비 17.0% 증가한 103억 위안을 기록함.
 -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증가가 어려운 국면에서 건강보험 및 상해보험 판매를 지속 강화했기 때문임.
- 2012년 3/4분기 변액보험 및 변액연금보험의 수익률은 채권 및 주식시장의 불황으로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함.
 - 공개된 45개 주식연동형 변액보험 자산운용 계좌의 평균 수익률은 -4.4%였으며, 39개 채권연동형 변액보험 자산운용 계좌의 평균 수익률은 -0.3%를 기록함.
 - Axa-minmetals 및 Met life 보험회사가 운영하는 변액연금보험¹⁴⁾ 수익률은 전분기에 이어 마이너스를 기록하였으며, 매출실적 분진으로 Huatai life 보험회사가 운영하는 변액연금보험은 2/4분기부터 이미 판매 중지됨.

13) 인보험 수입보험료에는 인보험회사 수입보험료 뿐만 아니라 손해보험회사의 단기의료보험과 상해보험, 그리고 연금보험회사가 운영하는 인보험 상품의 수입보험료가 포함됨.

14) 변액연금보험은 중국에서 2011년 8월부터 출시되었는데, 이를 판매하는 보험회사는 Axa-minmetals, Met life, Huatai life 등 3개가 있음.

〈표 14〉 인보험 수입보험료

(단위: 억 위안, %)

구분		CY2011				CY2012		
		2/4	3/4	4/4	연간	1/4	2/4	3/4
인보험	보험료	2,213	2,082	1,942	9,721	3,534	2,299	2,251
	증가율	-9.1	-12.9	-14.2	-8.6	1.4	3.9	8.1
	구성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 생명보험	보험료	1,943	1,829	1,714	8,696	3,203	1,962	1,945
	증가율	-10.8	-15.1	-16.6	-10.2	-0.2	1.0	6.3
	구성비	87.8	87.8	88.2	89.4	90.6	85.3	86.4
- 건강보험	보험료	181	165	159	692	229	237	204
	증가율	0.6	2.5	4.4	2.2	22.4	30.9	23.6
	구성비	8.2	7.9	8.2	7.1	6.5	10.3	9.1
- 상해보험	보험료	89	88	70	334	103	99	103
	증가율	18.7	20.5	25.2	21.5	17.9	11.2	17.0
	구성비	4.0	4.2	3.6	3.4	2.9	4.3	4.6

주: 1) 기간별 수치는 해당기간에 대한 실적수치이며,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임.

2) 인신보험, 인수보험, 의외상해보험을 각각 인보험, 생명보험, 상해보험으로 의역함.

3) 상기 수치는 각 회사가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감사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연말 최종 집계되는 수치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자료: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지급보험금 현황〉

■ 2012년 3/4분기 인보험 지급보험금은 전년동기대비 10.5% 증가한 400억 위안을 기록함.

○ 생명보험 및 상해보험의 지급보험금은 전년동기대비 각각 12.9% 및 23.8% 증가한 반면 건강보험의 지급보험금은 1.3%로 소폭 하락함.

○ 2011년 2/4분기의 건강보험 지급보험금 급증에 따른 기저효과로 건강보험 지급보험금은 2012년 2/4분기에 급락하였으나 3/4분기에 들어 하락세가 대폭 축소됨.

〈표 15〉 인보험 지급보험금

(단위: 억 위안, %)

구분		CY2011				CY2012		
		2/4	3/4	4/4	연간	1/4	2/4	3/4
인보험	보험금	471	362	358	1,742	599	444	400
	증가율	36.1	4.0	-6.2	20.7	8.8	-5.7	10.5
- 생명보험	보험금	332	263	269	1,301	503	353	297
	증가율	23.4	0.0	-6.3	17.3	15.3	6.3	12.9
- 건강보험	보험금	120	78	66	360	73	69	77
	증가율	100.0	18.2	-13.6	36.2	-24.0	-42.5	-1.3
- 상해보험	보험금	19	21	24	82	22	21	26
	증가율	18.8	10.5	19.2	15.3	24.7	10.5	23.8

주: 1) 기간별 수치는 해당기간에 대한 실적수치이며,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임.

2) 인신보험, 인수보험, 의외상해보험을 각각 인보험, 생명보험, 상해보험으로 의역함.

3) 상기 수치는 각 회사가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감사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연말 최종 집계되는 수치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자료: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회사 그룹별 시장점유율〉

■ 2012년 3/4분기 수입보험료 기준 중국계 보험회사의 인보험 시장점유율은 다소 감소하였으나, 외자계 보험회사의 시장점유율은 다소 증가함.

- 중국계 인보험회사 시장점유율은 94.5%로 전분기에 비해 0.8%p 감소했으며, 외자계 보험회사 시장점유율은 0.8%p 증가한 5.5%를 기록함.
- 중국계 인보험회사 중 상위 5개사¹⁵⁾의 시장점유율은 70.2%로 전분기에 이어 하락세를 지속함.
- 외자계 인보험회사들 가운데 AIA China, Metlife, Generali China 등의 시장점유율은 각각 17.9%, 9.7%, 8.6% 수준임.

15) 인보험의 상위 5개사는 중국인수생명보험, 타이핑양인수생명보험, 평안인수생명보험, 신화인수생명보험, 중국인민생명보험은 각각 35.3%, 9.0%, 11.7%, 10.0%, 4.3%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함.

〈표 16〉 인보험 회사그룹별 시장점유율(수입보험료 기준)

(단위: %)

구분			CY2011				CY2012		
			2/4	3/4	4/4	연간	1/4	2/4	3/4
인보험	중국계	상위 5개사	72.4	72.1	69.1	72.8	72.9	71.5	70.2
		중소형사	23.0	24.5	25.7	23.2	23.8	23.9	24.2
		소 계	95.4	96.6	94.8	96.0	96.7	95.3	94.5
	외자계		4.6	3.4	5.2	4.0	3.3	4.7	5.5

주: 1) 기간별 점유율은 해당기간에 대한 수치임.

2) 중소형사는 상위사와 외자계를 제외한 보험회사들임.

3) 상기 수치는 각 회사가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감사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연말 최종 집계되는 수치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자료: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다. 손해보험

〈수입보험료 현황〉

■ 2012년 3/4분기 손해보험 수입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15.9% 증가한 1,292억 위안으로 전분기에 비해 증가세가 소폭 확대됨.

○ 3/4분기 중국 경제 성장률이 전년동기대비 기준으로 둔화되었으나 1~9월 전국 자동차 판매 상승세가 소폭 확대되었기 때문임.

- 3/4분기 중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7분기 만에 최저치인 7.4%에 그침.

- 중국자동차협회(CAAM)에 따르면 1~9월 전국 자동차 판매량은 1,409만 대로 전년동기대비 3.4% 증가하였으며 동 증가율은 상반기에 비해 0.5%p 확대됨.

- 상반기 전국 자동차 판매량은 960만 대로 전년동기대비 2.9% 증가하였지만 동 증가율은 역대 최저 수준임.

〈표 17〉 손해보험 수입보험료

(단위: 억 위안, %)

구분		CY2011				CY2012		
		2/4	3/4	4/4	연간	1/4	2/4	3/4
손해보험	보험료	1,227	1,115	1,143	4,618	1,301	1,399	1,292
	증가율	19.9	19.0	21.5	18.5	14.8	14.0	15.9

주: 1) 기간별 수치는 해당기간에 대한 실적수치이며,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임.

2) 재산보험을 손해보험으로 의역함.

3) 상기 수치는 각 회사가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감사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연말 최종 집계되는 수치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자료: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지급보험금 현황〉

■ 2012년 3/4분기 손해보험 지급보험금은 전년동기대비 32.2% 증가한 730억 위안을 기록함.

○ 감독당국의 피보험자 보호 강화정책으로 손해보험 주력 종목인 자동차보험 지급보험금 증가세가 지속되는 것이 주요인으로 분석됨.

〈표 18〉 손해보험 지급보험금

(단위: 억 위안, %)

구분		CY2011				CY2012		
		2/4	3/4	4/4	연간	1/4	2/4	3/4
손해보험	보험금	508	552	698	2,187	573	647	730
	증가율	28.6	25.2	25.5	24.5	33.5	27.4	32.2

주: 1) 기간별 수치는 해당기간에 대한 실적수치이며,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임.

2) 재산보험을 손해보험으로 의역함.

3) 상기 수치는 각 회사가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감사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연말 최종 집계되는 수치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자료: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회사 그룹별 시장점유율〉

■ 2012년 3/4분기 수입보험료 기준 중국계 보험회사와 외자계 보험회사의 손해보험 시장 점유율은 전분기와 같은 수준으로 나타남.

- 중국계 보험회사는 98.8%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하였으며 외자계 보험회사는 여전히 1.2%에 그침.
- 손해보험 상위 3개사인 중국인민재산, 평안재산, 타이핑양재산은 각각 34.3%, 18.7%, 12.4%의 시장점유율로 손해보험시장에 65.4%를 차지하고 있으며, 상위 3개사의 시장 점유율은 전분기에 비해 0.2%p 소폭 확대됨.
- 외자계 손해보험회사들 중 상위 3사는 Chartis, Liberty Mutual, Groupama Avic 손해보험회사들로 외자계 시장점유율 중 각각 17.5%, 10.3%, 3.1%를 차지함.

〈표 19〉 손해보험 회사그룹별 시장점유율(수입보험료 기준)

(단위: %)

구분			CY2011				CY2012		
			2/4	3/4	4/4	연간	1/4	2/4	3/4
손해 보험	중국계	상위 3개사	66.2	66.2	65.9	66.6	66.7	65.2	65.4
		중소형사	32.8	32.7	33.0	32.3	32.1	33.6	33.3
		소 계	98.9	98.9	98.9	98.9	98.8	98.8	98.8
	외자계		1.1	1.1	1.1	1.1	1.2	1.2	1.2

주: 1) 기간별 점유율은 해당기간에 대한 수치임.

2) 중소형사는 상위사와 외자계를 제외한 보험회사들임.

3) 상기 수치는 각 회사가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감사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연말 최종 집계되는 수치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자료: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라. 연금보험

■ 2012년 3/4분기 연금보험회사의 수탁보험료는 127억 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46% 증가하였고, 누적 운용보험료 규모는 1,842억 위안으로 전분기대비 45.6% 증가함.

- 중국은 2004년 4월부터 연금보험을 시범 시행하였으며 2007년 10월부터 연금보험회사의 운용을 정식으로 허용함.¹⁶⁾
- 2012년 하반기에 들어 도시화 추진과 경제체제 개혁의 가속화 및 정부의 기업연금 발전 추진정책으로 기업연금 수탁보험료는 급성장하고 있음.
- 현재 중국 기업 및 근로자의 기업연금 가입률과 기업연금의 소득대체율 모두 1%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기업연금시장의 성장잠재력은 매우 크다고 판단됨.

〈표 20〉 중국 연금보험 수입보험료 및 자산 운용 현황

(단위: 억 위안, %)

구분		CY2011					CY2012		
		1/4	2/4	3/4	4/4	연간	1/4	2/4	3/4
수탁보험료	금액	169	45	87	109	410	207	167	127
	증가율	128.4	-41.6	22.5	-19.3	14.8	22.0	271.1	46.0
누적 운용 보험료	금액	1,147	1,216	1,265	1,378	1,378	1,561	1,723	1,842
	증가율	10.4	6.0	4.0	8.9	32.6	13.3	41.7	45.6

주: 1) 수탁보험료는 해당기간에 대한 실적수치이며,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임.

2) 누적 운용보험료 증가율은 전분기대비 수치임.

3) 상기 수치는 각 회사가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감사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연말 최종 집계되는 수치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자료: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16) 현재까지 전국에서 연금보험을 운용하는 보험회사는 5개가 있는데 태평, 평안, 인수, 창장, 태강임.

조사 개요 및 출처

■ 중국 보험산업은 생명보험에 해당하는 인보험(人身保險)과 손해보험에 해당하는 재산보험(財產保險)으로 구분되는데, 중국 보험산업을 감독하는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http://www.circ.gov.cn>)에서 입수한 통계를 바탕으로 기술함.

- 월별 누적 통계(raw data)를 분기별로 전환해 분석함.
- 수입보험료, 지급보험금 및 주요 경영실적 등 경영지표 분석을 위해 보험산업경영현황표(保險業經營情況表)를 사용함.
- 또한, 인보험회사수입보험료현황표(人身保險公司保費收入情況表)와 손해보험회사수입보험료현황표(財產保險公司保費收入情況表)를 활용해 회사그룹별 시장점유율 분석을 시도함.

■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의 〈중국보험연감〉 분류 기준에 근거해 인보험을 상해보험, 건강보험, 생명보험으로 분류해 기술함.

- 생명보험은 신종보험인 투자연동형보험, 만능형보험(유니버설), 배당형보험과 저축성 위주의 전통생명보험으로 분류함.

■ 중국 보험용어를 편의상 우리식 용어로 의역함.

변경 전	변경 후
재산보험(財產保險)	손해보험
인신보험(人身保險)	인보험
인수보험(人壽保險)	생명보험
의외상해보험(人身意外傷害保險)	상해보험

■ 실적치는 보험회사들이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 보고한 속보 자료로 연말에 최종 집계되는 데이터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V. 국내외 보험·금융 주요 뉴스

■ 국내 보험·금융 뉴스

KiRi Weekly 수록호	제목 및 주요 내용
제201호 (10. 2)	정부, 2013년 예산(안) 발표 · 정부는 재정여력 확보와 대외신인도 제고를 위한 균형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2013년 예산(안)을 편성함. (2013년 예산안 편성, 기재부, 9/25)
제201호 (10. 2)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 금융위원회는 2012년 5월과 6월에 발표된 「보험 판매방송 개선방안」과 「변액보험 제도개선」의 이행을 위해 「보험업감독규정」을 개정하여 보험소비자 보호를 강화하였음.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금융위원회, 9/19)
제202호 (10. 8)	보험업감독규정 일부 개정(안) 변경 예고 · 금융위는 ‘실손의료보험 종합개선대책’을 바탕으로 보험업감독규정 일부 개정(안)을 변경 예고하였으며, 이번 개정(안)에는 단독상품 출시, 자기부담금 다양화, 보험료 및 보장내용 변경주기 단축이 포함됨.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 금융위, 9/28)
제202호 (10. 8)	2012년 8월 제조업생산 위축 · 2012년 8월 제조업생산은 전월대비 0.9%(전년동월대비 0.3% 증가) 감소하여 3개월 연속 감소세를 나타냈으며 수출부진과 내수 경기 부진 심화, 제조업 재고 증가, 국내 소비·투자심리 위축 등으로 향후 제조업 경기 회복은 지연될 것으로 전망됨. (2012년 8월 산업활동 동향, 통계청, 9/28)
제203호 (10. 15)	한일 통화스왑의 일시적 확대조치 종료 · 한일 양국은 통화스왑 계약 규모의 일시적 확대조치를 예정대로 2012년 10월 31일 종료한다고 발표하였으며, 향후 경제 여건을 예의 주시하면서 필요시 협력하기로 함. (한일 통화스왑 계약의 일시적 규모 확대 조치 종료, 기재부, 10/9)

■ 국내 보험 · 금융 뉴스

KiRi Weekly 수록호	제목 및 주요 내용
제203호 (10. 15)	예금은행 가계대출 전월대비 증가폭 확대 · 2012년 8월 말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460조 1,000억 원으로 전월 대비 1조 5,000억 원 증가하였으며, 주택대출과 기타대출 모두 전월에 비해 증가폭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8월중 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 외, 한국은행, 10/9)
제204호 (10. 22)	2011년 기업 수익성, 안정성 악화 · 2011년 중 국내 법인기업의 성장세가 둔화되었고 수익성과 안정성은 전년 대비 악화되었으며 2012년 국내 법인기업의 수익성과 성장성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민간소비, 재화수출 등이 2011년에 비해 위축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임. (2011년 기업경영분석, 한국은행, 10/12)
제205호 (10. 29)	금융위, 커버드 본드 발행법 제정(안) 입법예고 · 금융위는 「금융회사의 커버드 본드(Covered Bond) 발행법 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으며, 이번 제정(안)에는 커버드 본드 적격 발행기관의 요건, 기초자산 집합, 등록 및 발행, 우선변제권, 공시 및 감독 등과 관련한 내용이 포함됨. (「금융회사의 커버드 본드 발행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금융위, 10/23)
제205호 (10. 29)	공공기관 보증대출 금리 차등 금지 · 금융위는 공공기관이 보증한 무위험대출에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차별 적용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여 향후 보증부 대출 금리가 하락함에 따라 6개 공공기관이 보증서를 발급해준 중소기업 · 영세상공인 · 서민들의 이자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보증부대출 금리 부과체계 보완방안, 금융위원회, 10/23)
제206호 (11. 5)	금융위, 퇴직연금 가입자 보호 강화 · 금융위는 퇴직연금 시장의 건전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가입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선택권을 제고하기 위하여 ‘퇴직연금 가입자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함. (퇴직연금 가입자 보호강화 방안, 금융위, 10/25)
제206호 (11. 5)	보험회사 주택담보대출 연체율 증가 · 보험회사와 국내은행의 가계대출과 주택담보대출 잔액과 연체율은 증가 추세에 있어 최근 경기 침체에 따른 가계 수입 감소와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주택매매가격 하락 지속으로 가계의 부채 상환 능력이 감소함에 따라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요구되고 있음. (‘12.8월 말 보험회사 대출채권 현황, 금융감독원, 10/30)

■ 국내 보험·금융 뉴스

KiRi Weekly 수록호	제목 및 주요 내용
제207호 (11. 12)	자동차 보험 표준약관 개정 · 금융감독원은 소비자들의 다양한 수요에 맞는 상품들이 출시될 수 있고, 소비자의 권익을 제고 하는 방향으로 표준약관을 전면 개정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자동차보험 중 피보험자 자신이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상품에 대한 규제 완화, 자동차보험 보장기능 강화, 불완전 판매 방지를 위한 설명의무 강화 등이 있음.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확 뜯어 고칩니다, 금융감독원, 11/6)
제208호 (11. 19)	공시관행 개선, 전 금융권으로 확대 · 금융감독원은 은행, 보험, 연금의 공시관행 개선에 이어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의 상품공시, 경영공시 및 비교공시에 관한 개선안을 발표하였음. (금융회사의 불합리한 공시관행 개선, 금융감독원, 11/9)
제208호 (11. 19)	금감원, 보험회사 재무건전성 강화 추진 · 금융감독원은 책임준비금 적정성평가제도를 강화하고 변액보험 보증준비금 표준적립액을 상향조정하며, 보험상품의 위험보장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할 예정임. (보험회사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한 보험계리제도 개선, 금융감독원, 11/13)
제209호 (11. 26)	2012년 3/4분기 가계 평균소비성향 감소 · 2012년 3/4분기 평균소비성향은 73.6%로 전년동기대비 1.2%p 하락하였으며 흑자율은 전년동기대비 3.9%p 상승한 26.4%로 나타나 가계의 소비여력이 높아져 향후 소비확대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평가되나 소비 둔화 지속에 따른 경제성장을 저하 우려도 제기되고 있음. (2012년 3/4분기 가계동향, 통계청, 기획재정부, 11/16)
제209호 (11. 26)	서민금융상품 연체율 상승 · 최근 미소금융 및 새희망홀씨의 연체율과 햇살론 및 바퀴드림론의 대위변제율은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음. (서민금융 지원성과 및 향후 계획, 금융위원회, 11/15)
제210호 (12. 3)	FY2012 상반기, 보험모집 현황 분석 결과 · 금감원에 따르면 FY2012 상반기 보험회사의 모집조직과 판매실적은 전년동기에 비해 양적으로 성장하였으며, 보험계약유지율 및 보험설계사 정착률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FY2012 상반기 보험모집 관련 현황 분석, 금감원, 11/22)

■ 국내 보험·금융 뉴스

KiRi Weekly 수록호	제목 및 주요 내용
제210호 (12. 3)	2012년 3/4분기 가계신용 증가율 둔화 · 한은에 따르면 2012년 3/4분기 중 가계신용은 13조 6,000억 원 증가하였으며, 9월 말 잔액은 937조 5,000억 원을 기록함. · 가계대출은 882조 4,000억 원으로 6월 말 대비 12조 1,000억 원 증가하였으며, 증가폭은 2/4분기(12조 8,000억 원 증가)에 비하여 둔화됨. (2012년 3/4분기 중 가계신용, 한은, 11/22)
제211호 (12. 10)	금감원, 자동차보험금 지급실태 점검 및 제도개선 추진 · 금감원은 2012년 8월부터 4개월 동안 12개 손해보험회사를 대상으로 자동차 사고와 관련한 보험금 지급 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발표함. · 금감원은 미지급 자동차보험금이 적극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자동차 보험금 지급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함. (자동차보험금 지급 실태점검 결과 제도개선 추진, 금감원, 12/5)
제211호 (12. 10)	제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 부실 위험 확대 · 제 2금융권인 상호금융 및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은 주택담보대출 부실이 우려되는 차주의 비중이 크고 리스크 대응능력이 취약하여 부동산경기 침체 지속 시 부실 증가 우려가 커지고 있음. (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 리스크 현황 및 감독방향, 금융감독원, 12/3)
제212호 (12. 17)	FY2012 상반기, 손해보험회사 해외점포 영업실적 · 금감원에 따르면 2012년 9월 말 기준 6개 손해보험회사가 8개국에 진출하여 23개 점포(현지법인 16개, 지점 7개)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FY2012 상반기 손보사 해외점포 영업실적, 금감원, 12/12)
제212호 (12. 17)	제조업 중심의 취업자 증가세 지속 · 2012년 11월 취업자 수는 2,941만 1,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5만 3,000명 증가하였으며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취업자가 증가하고 있음. · 기획재정부는 전반적인 고용 증가세는 지속되나 취업자 수 증가폭은 점차 둔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2012년 11월 고용동향, 통계청, 기획재정부, 12/12)
제213호 (12. 24)	금감원, 책임준비금 평가시스템 개선 추진 · 금감원은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감독 강화를 위하여 현재 책임준비금 평가시스템에 최근 변경된 보험계리제도를 반영하고 검사지원 기능을 추가하는 등 시스템 개선을 추진하기로 함. (보험회사 책임준비금 평가시스템 개선 추진, 금감원, 12/13)

■ 국내 보험 · 금융 뉴스

KiRi Weekly 수록호	제목 및 주요 내용
제213호 (12. 24)	3/4분기 비금융법인기업 자금조달 규모 증가 · 2012년 3/4분기 중 비금융법인기업의 자금조달 규모는 38조 2,000억 원으로 2/4분기대비 17조 8,000억 원 증가하였는데, 이는 투자확대보다는 여유자금 확보에 목적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2012년 3/4분기중 자금순환(잠정), 한국은행, 12/14)
제214호 (12. 31)	보험회사 대출채권 잔액 소폭 증가 · 금감원에 따르면 2012년 10월 말 보험회사 대출채권 잔액은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이 모두 늘어남에 따라 전월대비 1조 1,400억 원 증가한 109조 7,000억 원을 나타냄. (2012년 10월 말 보험회사 대출채권 현황, 금감원, 12/24)
제214호 (12. 31)	가계 재무건전성은 개선, 부채 보유 가구 수는 증가 · 2012년 3월 말 현재 국내 가계의 자산대비 부채비율은 전년대비 0.1%p 감소한 17.3%, 저축액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4.1%p 감소한 67.5%로 가계의 자산·부채 현황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음. (201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한국은행, 통계청, 금융감독원, 12/22)

■ 미국 보험·금융 뉴스

KiRi Weekly 수록호	제목 및 주요 내용
제202호 (10. 2)	소비자신뢰도 및 주택가격 지표 개선 · 컨퍼런스보드에 따르면 9월 소비자 신뢰지수가 노동시장과 현재의 경제 상황에 대한 신뢰도 개선으로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함. (LA Times 등, 9/26)
제203호 (10. 8)	비제조업 지수 및 민간부분 고용 개선 · 미국 공급관리자협회(ISM)의 비제조업(서비스업) 지수가 9월 55.1을 기록하여 8월 53.7에 비하여 크게 상승하였으며, 시장 예측치인 53.2보다도 높게 나타남. (Financial Times 등, 10/4)
제204호 (10. 15)	9월 실업률, 44개월 만에 8% 하회 · 10월 5일 미 노동부는 9월 실업률이 7.8%를 기록했다고 발표하였는데, 이는 2009년 1월 이후 44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임. (LA Times 등, 10/6 등)
제205호 (10. 22)	소비자지수 상승 및 소매판매 호조세 지속 · 10월 15일 미 상무부는 9월 소매판매가 전월대비 1.1% 증가하면서 3개월 연속 증가세를 지속했다고 밝힘. (Wall Street Journal 등, 10/15)
제206호 (10. 29)	재정절벽(Fiscal Cliff) 현실화 시 재정적자 7,200억 달러 감소 전망 · 재정지출 자동삭감과 세제혜택 중단에 따른 재정지출의 급격한 축소를 의미하는 재정절벽이 2013년 현실화될 경우 미국 재정적자 감소규모는 7,200억 달러 수준이라는 주장이 제기됨. (Washington Post 등, 10/21)
제207호 (11. 5)	미국 3/4분기 GDP 2.0% 증가 · 10월 26일 미 상무부는 3/4분기 GDP가 소비지출과 정부지출 증가에 힘입어 2/4분기 보다 0.7%p 상승한 연율 2.0%의 증가율을 기록했다고 발표함. (Huffington Post 등, 10/26)
제208호 (11. 12)	10월 신규일자리 큰 폭 증가 · 11월 2일 미 노동부에 따르면 10월 실업률이 전월대비 0.1%p 상승한 7.9%를 기록한 반면 신규 일자리는 17만 1,000개로 예상보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Huffington Post 등, 11/2)

■ 미국 보험 · 금융 뉴스

KIRI Weekly 수록호	제목 및 주요 내용
제209호 (11. 19)	주택경기 회복세 지속 · 11월 20일 미 상무부는 10월 주택착공 실적이 전월대비 3.6% 증가한 연환산 89만 4,000채를 기록했다고 발표함. (Bloomberg 등, 11/20)
제210호 (11. 26)	주택경기 회복세 지속, 제조업 경기 위축 · 11월 20일 미 상무부는 10월 주택착공 실적이 전월대비 3.6% 증가한 연환산 89만 4,000채를 기록했다고 발표함. (Bloomberg 등, 11/20)
제211호 (12. 3)	미국, 소비지표 개선 추세 지속 · 전미소매연맹(NRF)은 11월 22일에서 25일까지 4일간 이어진 추수감사절 연휴기간 동안 소매판매액이 전년동기대비 13% 증가한 591억 달러를 기록하였다고 발표함. (Reuters 등, 11/27)
제212호 (12. 10)	질적으로 악화된 미국의 3/4분기 경제성장률 · 11월 29일 미 상무부는 3/4 분기 GDP 성장률이 잠정치인 2.0%보다 0.7%p 상승한 2.7%를 기록했다고 밝혔으며, 이는 2/4 분기 GDP 성장률 1.3%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수치임. (LA times 등, 11/29)
제213호 (12. 17)	미국 11월 실업률, 4년 만에 최저치 기록 · 12월 7일 미 노동부는 11월 실업률이 전월대비 0.2%p 하락한 7.7%를 나타내면서 2008년 12월 이후 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였다고 발표함. (CNBC 등, 12/7)
제214호 (12. 24)	미국 재정절벽 협상 난항 · 12월 19일 오바마 대통령은 공화당 존 베이너 하원의장이 제안한 100만 달러 이상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 인상안이 의회를 통과하더라도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힘. (Reuters 등, 12/18)
제215호 (12. 31)	미국 주택시장, 2013년 큰 폭 회복 전망 · 건설업자들의 주택경기 신뢰도를 나타내는 주택시장 지수가 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기존주택판매도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는 등 미국 주택시장은 완전한 회복세를 나타냄. (Business Week 등, 12/23)

■ 유럽 보험·금융 뉴스

KiRi Weekly 수록호	제목 및 주요 내용
제201호 (10. 2)	유럽 재정위기 악화 가능성 · 유럽 재정위기가 유럽중앙은행(ECB)의 무제한 국채 매입 발표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 번 고비를 맞음. 스페인의 전면 구제금융 신청 여부와 시기가 유로존의 향방을 가늠할 최대 변수로 대두됨. (Wall Street Journal, 9/25 등)
제202호 (10. 8)	IMF, 세계경제 회복까지 최소 10년 필요 · IMF는 세계경제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벗어나 정상 궤도에 오르기 까지 최소 10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함. (RITNews, 10/3)
제203호 (10. 15)	EU, 금융거래세 도입 합의 · EU 재무장관들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야기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채권, 주식, 파생상품 등 금융상품의 국제 거래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데 합의하고 향후 관련 계획을 추진하기로 함. (Wall Street Journal, 10/9)
제204호 (10. 22)	스페인, 구제금융 신청 가시화 · 유럽중앙은행(ECB)의 국채매입 지원을 받기 위한 스페인 정부의 공식적 구제금융 신청이 가시화 됨. 스페인 국채시장이 다소 안정됨에 따라 정부의 부담을 줄이고 외부의 반대를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의 구제금융 신청이 가능해짐. (Wall Street Journal, 10/16)
제205호 (10. 29)	유로지역, GDP대비 재정적자는 감소한 반면 정부부채는 증가 · 2011년부터 시행된 재정긴축으로 유럽 국가들의 재정적자가 감축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일부 국가를 제외한 유럽 각국의 GDP 대비 정부부채비율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Eurostat, 10/22)
제206호 (11. 5)	유럽, 금융규제 강화 조짐 · 유럽 재정위기와 미국의 재정절벽에 가려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금융규제에 대한 개혁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됨. 자기자본, 유동성, 레버리지 관련 건전성 규제와 SIFIs 규제 등의 금융규제 강화는 금융기관의 수익성 하락과 자본조달 비용 상승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됨. (AFP, 10/27)
제207호 (11. 12)	유로존, 2013년 0.1% 성장 전망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재정위기 지속으로 유로존 경제성장률이 2012년 -0.4%, 2013년 0.1%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함. (EC, 11/8)

■ 유럽 보험 · 금융 뉴스

KiRi Weekly 수록호	제목 및 주요 내용
제208호 (11. 19)	덴마크, 비만세 폐지 · 2011년 세계 최초로 '비만세(fat tax)'를 도입하였던 덴마크가 1년 만에 과세 포기를 선언함. 비만세는 도입에 따른 사회적 편익 증대보다 소비자, 생산자, 유통업자 등에 미치는 손실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나 폐지됨. (Wall Street Journal, 11/11)
제209호 (11. 26)	유로존 3/4분기 경기침체 진입 · 3/4분기 유로존 경제는 재정위기 확산으로 2/4분기에 이어 전분기대비 마이너스 성장함으로써 더블딥에 빠짐. EC 및 경제예측기관들은 유로존 경제가 당분간 반등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전망함. (Eurostat, 11/16)
제210호 (12. 3)	그리스 구제금융 미집행금 지원 합의 · 유로존, IMF, 그리고 유럽중앙은행(ECB)은 11월 27일 제 3차 그리스 구제금융 집행금 437억 유로를 지급하는 데 합의함. 그러나 전문가들은 합의해야 할 사안들이 남아 있어 여전히 그리스 위기에 대한 불확실성은 사라지지 않았다고 평가함. (Financial Times, 11/27)
제211호 (12. 10)	유로존 은행동맹 합의 결렬 · 12월 4일 개최된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에서 프랑스와 독일의 의견이 대립된 가운데 제3자인 영국과 비유로존 국가들의 이견도 나오면서 은행동맹 설립은 합의에 실패함. (Financial Times, 12/5)
제212호 (12. 17)	유로존, 단일 은행감독체제 합의 · 유럽연합(EU) 재무장관들은 12월 13일 유로존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유럽중앙은행(ECB)에 유로존 은행들에 대한 단일 감독권을 부여하는데 합의함. 단일 은행감독체제 수립으로 유로존의 은행동맹 구축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임. (Financial Times, 12/13)
제213호 (12. 24)	은행권 부실, 유로존 최대 리스크 · 유로존 내 위기감은 2012년 중반 이후 다소 완화되었으나, 상업 은행권 부실로 금융시장의 불안정은 지속되고 있음. 거시·금융시장 환경 악화로 촉발된 은행의 신용위험 노출 증가, 수익성 악화, 적정자본 수준 하락은 거시·금융시장의 안정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상존함. (ECB, 12/14)
제214호 (12. 31)	IMF, 유럽 재정위기 해결을 위한 포괄적 정책합의 강조 · IMF의 EU 금융부문 평가 보고서는 유럽연합(EU)과 ECB(유럽중앙은행)가 유럽 금융시장 안정화에 진전을 가져올 만한 노력을 했다고 평가하면서 앞으로 유럽연합 차원에서 은행감독 통합과 은행 건전성 제고를 위한 정책 합의가 필요하다고 제언함. (IMF, 12/21)

■ 일본 보험·금융 뉴스

KiRi Weekly 수록호	제목 및 주요 내용
제201호 (10. 2)	발권력 동원을 통한 美국채 매입 검토 · 일본은행이 10조 엔에 이르는 자금 방출 계획을 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엔화 강세가 지속되자 금융완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미국 국채 등 외국 국채 매입 주장이 제기됨. (아사히 외, 9/24)
제202호 (10. 8)	산업생산 및 제조업 실적 악화, 향후 전망 더욱 어두워 · 일본 경제산업성은 지난 8월 산업생산이 전월대비 1.3% 감소했으며, 9월 단기경제관측조사에서도 대형 제조업체들의 체감경기를 나타내는 단칸 지수가 마이너스 3으로 나타나 전분기보다 2포인트 악화되었음. (산케이 외, 10/1)
제203호 (10. 15)	日 대형손보사, SRCC 특약의 신규 계약을 중단 · 일본 대형손보사들이 중국에서의 폭동과 파업으로 인한 기업의 피해를 보상하는 SRCC특약의 신규계약을 중단하기로 함. 일부기업에서는 내년 도 보험계약 갱신 시 보험료 상승 수준에 따라 검토할 예정임. (산케이 외, 10/1)
제204호 (10. 22)	올해 일본기업 해외자산 인수규모 사상최대 예상 · 일본 해외자산 인수규모는 총 835억 달러로 지난해 880억 달러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수를 모색하는 기업들이 많은 것을 감안하면 사상 최대 기록을 세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WSJ 외, 10/15)
제205호 (10. 29)	日 정부, 일본은행에 20조 엔의 금융완화 요구 · 일본정부가 일본은행에 국채 등을 매입하는 자산매입기금을 현재 80조 엔에서 100조 엔으로 20조 엔 확대하는 추가 금융완화 조치를 요구함. (산케이 외, 10/23)
제206호 (11. 5)	일본은행, 11조 엔의 추가금융완화 단행 · 일본은행은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자산매입기금을 80조 엔에서 91조 엔으로 늘리는 금융완화 정책을 결정하였으며, 이는 지난 9월 10조 엔 증액에 이어 2개월 연속 완화책을 발표한 것으로 이례적인 결정임. (아사히 외, 10/30)
제207호 (11. 12)	G20, 유로존 위기보다 日-美 재정절벽 현실화를 더 우려 · 멕시코시티에서 열린 G20 회의에서는 세계 경제정책의 기초를 긴축에서 개혁과 성장을 동시에 추구하는 방향으로 선회한다고 밝힘. (산케이 외, 11/15)

■ 일본 보험 · 금융 뉴스

KiRi Weekly 수록호	제목 및 주요 내용
제208호 (11, 19)	3/4분기 경제성장률 -3.5% 기록 · 일본 내각부는 지난 7~9월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전기대비 -0.9%, 연율 -3.5%에 그쳤다고 발표했으며, 유럽 재정위기 지속 및 센카쿠 열도 대립으로 수출환경이 불투명해 일본 경제는 비관적임. (일본내각부 외, 11/12)
제209호 (11, 26)	日 1인당 국가부채 771만 엔 · 일본 재무성은 국채와 차입금, 정부단기증권을 합한 중앙정부의 부채가 9월 말 기준으로 983조 2,950억 엔에 달한다고 보도하였으며, 일본인 1인당 부채 규모는 771만 엔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임. (마이니치 외, 11/12)
제210호 (12, 3)	8,800억 엔 규모의 2차 경기부양대책 · 일본정부는 지난달 26일 7,500억 엔의 경기진작책을 내놓은 지 한 달여 만에 중국의 반일감정으로 자국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자 달러자금 융자제도가 포함된 8,800억 엔 규모의 경기대책을 결정하기로 함. (니혼게이자이 외, 11/28)
제211호 (12, 10)	일본은행의 과도한 국채 매입, 금융시장 불안요인 우려 · 일본은행이 보유한 국채 등 총자산 규모는 11월 말 현재 156조 3,579억 엔으로 약 7년 만에 사상최고치를 경신하였으며, BIS와 영란은행은 일본국채가 은행들의 기본자본(Tier1)의 900%에 달하고 있다고 경고함. (아사히 외, 12/4)
제212호 (12, 17)	도쿄-오사카 증권거래소 합병 승인 · 일본 금융청은 도쿄증권거래소(TSE)와 오사카증권거래소(OSE)의 합병에 따른 '일본거래그룹'의 발족을 승인하였으며, 이번 합병이 거래소 규모 확대와 더불어 아시아 파생금융시장에 주도권 확보가 목표라는 것이 시장의 지배적인 견해임. (요미우리 외, 12/11)
제213호 (12, 24)	연간 사상 최대 무역적자 예상 · 일본재무성이 발표한 11월 무역수지는 9,534억 엔 적자로 지난 7월 이후 5개월 연속 적자행진을 보이고 있음. 지역별로는 유럽연합에 대한 적자가 1,264억 엔으로 사상최대치를 기록, 중국은 5,475억 엔의 적자로 9개월 연속 적자세를 지속하고 있음. (아사히 외, 12/19)
제214호 (12, 31)	아베 정권, 일본경제 살리기에 전력 · 지난 26일 출범한 아베 정권은 공격적인 양적완화 조치로 엔화가치를 낮춰 강한 일본 경제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으며, 아소 다로 재무상도 연간 44조 엔 수준인 국채발행 한도를 확대할 수 있다고 밝힘. (시사통신 외, 12/27)

■ 중국 보험·금융 뉴스

KiRi Weekly 수록호	제목 및 주요 내용
제201호 (10. 2)	중대질병보험 시범규정 발표 예정 · 9월 25일 북경상보(北京商報)는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가 중대질병보험 시범규정 수정 의견을 수집하기 위해 「성향(城鄉)주민중대질병보험도입 관련통지」를 주요 보험회사에게 통보했다고 보도함. (북경상보, 09/25, 신량망, 09/26, 하쉬망, 09/26 등)
제202호 (10. 8)	9월 제조업 경기 위축세 지속, 비제조업 경기 악화 우려 증폭 · 중국 물류구매연합회와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9월 공식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PMI)는 49.8로 전월대비 0.6%p 반등하였으나, 시장 예측치(50.2)보다 낮은 수준임. (WSJ, Reuters, 10/1, 10/3 등)
제203호 (10. 15)	역RP 거래로 시중 단기자금 급증 · 10월 9일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역환매조건부채권(역RP) 거래를 통해 금융시장에 총 2,650억 위안의 단기자금(7일물 1,650억 위안 및 28일물 1,000억 위안)을 공급하였음. (신량망, 10/09, WSJ, FT, 10/10 등)
제204호 (10. 22)	대외 수출입 대폭 상승, 무역수지흑자 확대 지속 · 9월 중국 대외 수출 및 수입은 시장전망치보다 더 높은 증가세를 보였고 무역수지흑자는 전월대비 확대되었는데, 이로 인해 4/4분기에 중국경제가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음. (WSJ, 10/13, Reuters, 10/15 등)
제205호 (10. 29)	인보험 회복세 부진, 손해보험 상승세 둔화 · 10월 23일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는 1~9월 중국보험산업 수입보험료가 전년동기대비 7.3% 증가한 1조 2,076억 위안이며, 이 중 인보험 및 손해보험의 수입보험료가 각각 8,804억 위안과 3,992억 위안이라고 발표함. (인민망, 10/22, 신화망, 10/23, 하쉬망, 10/23 등)
제 206호 (11. 5)	생명보험 상위보험회사 3/4분기 경영실적 악화 · 3/4분기 중국인수생명의 당기순이익은 전년동기대비 160.9% 급락한 마이너스 23억 위안, 신화생명의 당기순이익은 16.2% 감소한 4억 위안에 그침. (하쉬망, 10/30, 신화망, 10/23, 10/30 등)

■ 중국 보험·금융 뉴스

KiRi Weekly 수록호	제목 및 주요 내용
제207호 (11. 12)	최근 중국 위안화 강세의 시사점 · 중국 위안화 가치는 미국 달러화 평가절하 등으로 7월 말부터 감세를 보이고 있음. (신랑망, 11/07, 하쉬망, 11/05, 11/07 등)
제208호 (11. 19)	외국인의 중국 증시 투자한도 확대 · 11월 13일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CSRC) 주식 귀수칭(郭樹清)은 위안화 적격 해외투자기관(RQFII)의 투자한도를 기존의 700억 위안에서 2,700억 위안까지 확대한다고 발표함. (FT, 11/12, 신랑망, 11/13 등)
제209호 (11. 26)	중국 주택시장 안정세 · 최근 중국 70개 대·중 도시 신축상업주택 평균가격은 전년동기대비 하락세를 지속했으나 전월대비로는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어, 중국 주택시장이 안정세로 접어든 것으로 평가됨. (WSJ, 11/19, 신랑망, 11/19 등)
제210호 (12. 3)	중국, 양로보험 개선 방안 발표 · 11월 26일 중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현행 양로보험 유형 간 상호 전환할 수 있도록 ‘도농양로보험제도연결잠정방법(의견 수렴안)’(이하, ‘잠정방법’이라 함)을 발표함. (신랑망, 11/27 등)
제211호 (12. 10)	중국 경제 회복 전망 · 11월 제조업 및 비(非)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모두 임계점인 50선을 웃돌고 있음. (신랑망, 12/09, 12/03, 12/05 등)
제212호 (12. 17)	주요 외자계 보험회사, 향후 3년간 고성장 전망 · 12월 10일 PwC가 발표한 ‘2012년 중국 외자계 보험회사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국 보험시장에 진출한 주요 외자계 보험회사들은 향후 3년 내에 고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함. (신랑망, 12/11, 하쉬망, 12/11 등)
제213호 (12. 24)	부동산시장 회복 속에서 통제정책 지속 전망 · 11월 중국 70개 대중도시 신축 및 기존 상업주택 평균가격의 전년동기대비 하락세가 완화되고 전월대비 상승률이 높아지면서 중국 부동산시장의 회복조짐은 뚜렷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WSJ, 12/18, 신랑망, 12/18 등)
제214호 (12. 31)	내수확대를 위한 신형 도시화 정책 · 12월 25일 남방도시보(南方都市報)는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가 ‘도시화 건전 및 발전 추진 계획(2011~2020)’ 초안을 제정했고 추후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고함. (신랑망, 12/25, 신화망, 12/26 등)

Ⅵ. 통계표

〈표 1〉 주요 경제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10	2011				2012		
		4/4	1/4	2/4	3/4	4/4	1/4	2/4	3/4
국내총생산 성장률		4.7	4.2	3.4	3.5	3.4	2.8	2.3	1.5
경상수지		8,469	2,610	5,492	6,896	10,430	2,560	11,189	14,562
수 출		126,617	127,691	142,723	141,394	140,369	134,873	140,193	133,143
수 입		114,704	121,849	135,062	134,196	131,208	133,609	130,474	125,594
실업률		3.3	4.2	3.4	3.1	2.9	3.8	3.3	3.0
금리	국고채(3년)	3.30	3.80	3.68	3.60	3.41	3.45	3.39	2.88
	회사채(3년)	4.16	4.59	4.46	4.34	4.26	4.28	4.04	3.44
소비자물가지수		100.9	102.8	103.6	104.7	104.9	105.9	106.1	106.4
환율	원/달러	1,138.90	1,107.20	1,078.10	1,179.50	1,145.70	1,137.80	1,153.80	1,118.60
	원/엔화	1,397.08	1,331.89	1,335.69	1,536.61	1,485.16	1,380.74	1,453.79	1,441.12
KOSPI		2,051.0	2,106.7	2,100.7	1,769.7	1,849.8	2,014.0	1,854.01	1,996.21
외환보유고		291,571	298,618	304,485	303,384	306,402	315,952	312,378	322,015

주: 1) 환율, 주가지수는 월말, 마감기준임.

2) 국내총생산 성장률은 2000년 기준임.

〈표 2〉 금융기관 순수신 추이

(단위: 억 원)

구분	2010	2011				2012		
	4/4	1/4	2/4	3/4	4/4	1/4	2/4	3/4
보 험	97,513	95,956	109,637	117,629	123,927	122,280	139,507	174,488
- 생 보	68,578	64,883	78,241	89,732	97,036	96,041	105,806	145,350
- 손 보	28,935	31,073	31,396	27,897	26,891	26,239	33,701	29,138
은 행	274,211	201,600	145,827	242,881	263,282	269,108	120,525	113,355
- 일 반	150,020	123,112	162,787	197,704	173,064	190,485	108,131	54,395
- 신 탁	124,191	78,488	-16,960	45,177	90,218	78,623	12,394	58,960
증 권	18,619	34,410	-33,405	34,901	10,078	44,117	-33,365	67,718
투 신	-111,569	-131,059	-10,171	80,566	-105,662	50,029	83,820	32,104
총 금	9,480	-10,921	-40,343	-2,093	-52,656	11,809	-490	-17,161

주: 보험의 순수신은 수입(원수)보험료에서 지급보험금(원수손해액)을 차감하여 산출함.

자료: 보험개발원; 한국은행.

〈표 3〉 생명보험 종목별 수입보험료 증가율 및 구성비 추이

(단위: 억 원, %)

구분		FY2010	FY2011					FY2012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생존	보험료	170,897	40,937	43,061	43,773	51,654	179,425	58,357	89,359
	증가율	11.6	1.5	3.1	-1.2	16.1	5.0	42.6	107.5
	구성비	20.6	19.4	20.8	18.5	23.1	20.4	23.8	31.8
사망	보험료	287,162	71,520	71,649	71,772	72,171	287,112	76,376	76,309
	증가율	-0.8	-0.3	-0.3	-0.2	0.8	0.0	6.8	6.5
	구성비	34.6	34.0	34.6	30.3	32.2	32.7	31.1	27.1
생사 혼합	보험료	105,215	27,350	28,489	29,406	37,134	122,378	46,073	54,615
	증가율	28.2	13.1	14.5	7.4	29.0	16.3	68.5	91.7
	구성비	12.7	13.0	13.8	12.4	16.6	13.9	18.8	19.4
변액 보험	보험료	194,130	52,972	54,714	52,149	53,102	212,937	52,354	51,775
	증가율	12.9	17.8	20.0	3.1	0.3	9.7	-1.2	-5.4
	구성비	23.4	25.2	26.4	22.0	23.7	24.2	21.3	18.4
개인계	보험료	757,403	192,778	197,913	197,100	214,061	801,852	233,160	272,058
	증가율	8.7	6.4	7.5	1.5	8.2	5.9	20.9	37.5
	구성비	91.2	91.5	95.6	83.2	95.6	91.3	95.1	96.7
단체	보험료	72,672	17,839	9,040	39,798	9,831	76,508	12,126	9,175
	증가율	-0.5	59.9	12.5	1.4	-31.0	5.3	-32.0	1.5
	구성비	8.8	8.5	4.4	16.8	4.4	8.7	4.9	3.3
합계	보험료	830,074	210,617	206,953	236,899	223,891	878,360	245,286	281,233
	증가율	7.9	9.5	7.7	1.5	5.6	5.8	16.5	35.9
	구성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1) 단체보험은 퇴직보험 특별계정이 포함됨.

2)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분기) 또는 전년대비(연간)임.

자료: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표 4〉 생명보험 종목별 지급보험금 · 지급보험금 증가율 및 보험금 지급률 추이

(단위: 억 원, %)

구분		FY2010	FY2011					FY2012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생존 보험	지급보험금	95,267	22,312	26,191	25,789	26,428	100,720	25,718	26,885
	증가율	12.0	8.5	22.2	-4.9	1.1	5.7	15.3	2.7
	지급률	55.7	54.5	60.8	58.9	51.2	56.1	44.1	30.1
사망 보험	지급보험금	147,289	36,023	37,941	38,191	40,956	153,111	42,030	43,438
	증가율	-1.3	0.0	3.4	4.0	8.2	4.0	16.7	14.5
	지급률	51.3	50.4	53.0	53.2	56.7	53.3	55.0	56.9
생사 혼합 보험	지급보험금	58,198	12,250	13,020	13,229	14,533	53,032	30,094	24,049
	증가율	-17.5	1.8	4.1	-29.6	-2.3	-8.9	145.7	84.7
	지급률	55.3	44.8	45.7	45.0	39.1	43.3	65.3	44.0
변액 보험	지급보험금	129,385	33,532	26,282	23,464	31,495	114,772	27,824	29,795
	증가율	59.2	29.7	-8.4	-40.2	-11.4	-11.3	-17.0	13.4
	지급률	66.6	63.3	48.0	45.0	59.3	53.9	53.1	57.5
개인 보험계	지급보험금	430,139	104,117	103,433	100,672	113,413	421,635	125,666	124,167
	증가율	11.4	10.2	4.1	-17.4	-0.9	-2.0	20.7	20.0
	지급률	56.8	54.0	52.3	51.1	53.0	52.6	53.9	45.6
단체 보험계	지급보험금	106,952	28,259	13,788	39,190	14,077	95,315	13,814	11,716
	증가율	22.1	52.0	9.3	-8.7	-57.1	-10.9	-51.1	-15.0
	지급률	147.2	158.4	152.5	98.5	143.2	124.6	113.9	127.7
전체	지급보험금	537,091	132,376	117,221	139,863	127,490	516,950	139,480	135,883
	증가율	13.4	17.1	4.7	-15.2	-13.4	-3.8	5.4	15.9
	지급률	64.7	62.9	56.6	59.0	56.9	58.9	56.9	48.3

주: 1) '보험금 지급률 = 지급보험금 / 수입보험료'이며 기타 사항은 앞의 표와 동일함.

2) 단체보험은 퇴직보험 포함된 실적이며, 개인보험 종목별 변액보험이 포함됨.

3)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분기) 또는 전년대비(연간)임.

자료: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표 5〉 생명보험 종목별 사업비 · 사업비증가율 및 사업비율 추이

(단위: 억 원, %)

구분		FY2010	FY2011					FY2012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생존 보험	사업비	32,942	8,802	9,138	8,827	9,168	35,935	9,077	9,970
	증가율	8.1	12.3	17.2	5.9	2.2	9.1	3.1	9.1
	사업비율	19.3	21.5	21.2	20.2	17.7	20.0	15.6	11.2
사망 보험	사업비	75,645	19,017	20,312	20,788	20,939	81,056	21,511	22,634
	증가율	2.5	1.8	10.8	14.3	2.3	7.2	13.1	11.4
	사업비율	26.3	26.6	28.3	29.0	29.0	28.2	28.2	29.7
생사 혼합 보험	사업비	21,844	6,058	6,147	5,878	6,216	24,299	5,972	5,678
	증가율	9.2	26.8	20.8	2.3	-0.2	11.2	-1.4	-7.6
	사업비율	20.8	22.2	21.6	20.0	16.7	19.9	13.0	10.4
개인 보험계	사업비	130,431	33,877	35,597	35,493	36,324	141,291	36,590	38,253
	증가율	5.0	8.3	14.0	10.0	1.9	8.3	8.0	7.5
	사업비율	17.2	17.6	18.0	18.0	17.0	17.6	15.7	14.1
단체 보험계	사업비	4,216	979	1,052	1,209	1,121	4,362	1,117	1,213
	증가율	13.1	-10.7	10.2	26.9	-7.5	3.4	14.1	15.3
	사업비율	5.8	5.5	11.6	3.0	11.4	5.7	9.2	13.2
전체	사업비	134,647	34,857	36,649	36,702	37,445	145,652	37,707	39,466
	증가율	5.2	7.6	13.9	10.5	1.5	8.2	8.2	7.7
	사업비율	16.2	16.5	17.7	15.5	16.7	16.6	15.4	14.0

주: 1) 사업비는 신계약비 이연을 감안하지 않은 실제 집행 사업비를 기준으로 함.

2) '사업비율 = 사업비 / 수입보험료'이며 기타 사항은 앞의 표와 동일함.

3) 단체보험은 퇴직보험 포함된 실적임.

4)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분기) 또는 전년대비(연간)임.

5) 변액보험 사업비는 일반계정에 포함됨에 따라 표에 기재되지 않음.

자료: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표 6〉 손해보험 보험종목별 원수보험료 증가율 및 비중 추이

(단위: 억 원, %)

구분		FY2010		FY2011				FY2012	
		4/4	연간	1/4	2/4	3/4	4/4	1/4	2/4
화재	보험료	657	2,660	624	598	758	656	782	758
	증가율	-3.2	-3.7	0.4	-0.7	-2.7	-0.2	25.3	26.7
	구성비	0.5	0.5	0.4	0.4	0.5	0.4	0.5	0.5
해상	보험료	1,728	7,721	2,393	2,138	1,833	2,335	2,356	2,217
	증가율	-12.1	-4.1	14.8	8.5	-5.5	35.2	-1.5	3.7
	구성비	1.3	1.5	1.7	1.5	1.1	1.5	1.4	1.3
자동차	보험료	32,143	124,133	31,977	33,128	32,803	32,507	32,615	32,157
	증가율	13.8	10.6	9.1	8.3	2.2	1.1	2.0	-2.9
	구성비	24.2	23.8	22.7	23.3	19.7	20.2	19.4	19.2
보증	보험료	3,483	13,074	3,547	3,634	3,908	4,083	4,081	3,810
	증가율	11.4	6.4	11.0	22.0	14.4	17.2	15.1	4.8
	구성비	2.6	2.5	2.5	2.6	2.4	2.5	2.4	2.3
특종	보험료	8,469	37,120	10,409	10,270	11,026	9,525	12,377	11,867
	증가율	11.4	11.5	7.7	13.7	10.8	12.5	18.9	15.5
	구성비	6.4	7.1	7.4	7.2	6.6	5.9	7.4	7.1
해외 원보험	보험료	623	2,326	636	667	854	1,007	997	1,147
	증가율	16.6	11.9	46.9	17.4	21.8	61.6	56.6	72.1
	구성비	0.5	0.4	0.5	0.5	0.5	0.6	0.6	0.7
장기 손해	보험료	73,551	281,813	76,818	81,166	86,877	96,572	98,381	100,619
	증가율	16.5	21.0	15.3	16.9	20.4	31.3	28.1	24.0
	구성비	55.3	53.9	54.6	57.2	52.3	60.1	58.6	60.2
개인 연금	보험료	6,908	24,697	7,586	8,200	9,145	9,343	9,857	10,296
	증가율	33.6	38.4	37.2	40.9	41.9	35.2	29.9	25.6
	구성비	5.2	4.7	5.4	5.8	5.5	5.8	5.9	6.2
퇴직 보험	보험료	111	5,284	516	4	92	224	1	6
	증가율	-80.7	-39.1	-46.3	-98.6	-97.7	102.3	-99.8	48.5
	구성비	0.1	1.0	0.4	0.0	0.1	0.1	0.0	0.0
퇴직 연금	보험료	5,218	23,616	6,218	2,169	18,857	4,547	6,516	4,389
	증가율	161.7	190.9	160.7	93.2	26.6	-12.8	4.8	102.3
	구성비	3.9	4.5	4.4	1.5	11.3	2.8	3.9	2.6
계	보험료	132,891	522,444	140,723	141,973	166,153	160,799	167,964	167,265
	증가율	17.5	19.2	16.5	16.0	13.6	21.0	19.4	17.8

주: 1)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수치임.

2) 부수사업의 원수보험료는 제외되었으며, 특종보험에는 권원보험의 원수보험료가 포함, 퇴직보험은 퇴직연금을 포함함.

3) 기간별 수치는 해당 기간에 대한 실적치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표 7〉 손해보험 보험종목별 손해율 · 사업비율 및 합산비율 추이

(단위: %)

구분		FY2011				FY2012	
		1/4	2/4	3/4	4/4	1/4	2/4
화재보험	경과손해율	47.4	61.0	66.3	62.6	59.1	68.1
	사업비율	49.8	55.9	45.3	52.7	48.4	48.8
	합산비율	97.2	116.9	111.6	115.3	107.5	117.0
해상보험	경과손해율	58.7	42.2	63.5	60.2	64.3	49.7
	사업비율	22.3	35.2	31.3	42.1	26.8	24.9
	합산비율	81.1	77.4	94.7	102.3	91.1	74.6
보증보험	경과손해율	43.9	43.0	65.0	67.5	61.0	68.6
	사업비율	8.1	11.0	14.6	14.4	10.0	14.1
	합산비율	52.0	54.0	79.6	81.9	70.9	82.7
특종보험	경과손해율	61.6	69.2	70.9	69.6	61.1	79.8
	사업비율	21.1	19.4	17.2	23.6	19.5	17.6
	합산비율	82.7	88.5	88.2	93.2	80.7	97.4
해외원보험	경과손해율	43.5	56.6	53.8	55.5	53.6	55.7
	사업비율	50.0	41.3	46.0	50.1	40.6	35.8
	합산비율	93.5	97.9	99.8	105.6	94.3	91.5
해외수재	경과손해율	54.4	78.5	112.1	131.0	65.5	57.3
	사업비율	26.7	27.5	29.4	29.4	35.3	28.7
	합산비율	81.1	106.0	141.5	160.4	100.8	85.9
자동차보험	경과손해율	79.6	83.3	85.4	80.6	78.2	82.1
	사업비율	20.7	20.2	20.8	22.0	20.8	21.9
	합산비율	100.2	103.5	106.2	102.5	99.0	103.9
장기보험*	경과손해율	81.7	82.6	83.2	84.6	84.3	84.5
	사업비율	16.8	16.8	16.4	16.7	16.6	17.3
	합산비율	98.5	99.4	99.6	101.2	100.9	101.8
전체	경과손해율	78.2	80.7	82.7	82.8	80.4	82.4
	사업비율	18.3	18.2	18.1	18.9	18.2	18.7
	합산비율	96.5	98.9	100.8	101.7	98.6	101.1

주: 1) 기간별 수치는 개인연금, 퇴직보험 및 퇴직연금을 제외한 분기치이며, FY2011부터 IFRS가 적용됨.

2) 손해율 = 발생손해액 / 경과보험료, 사업비율 = 순사업비 / 보유보험료, 합산비율 = 손해율 + 사업비율임.

3) *는 위험손해율 개념이 아닌 재무손해율(적립보험료 및 각종 환급금 감안) 개념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월말보고서』, 각 월호.

보험연구원(KIRI) 발간물 안내

■ 연구보고서

- 2008-1 보험회사의 리스크 중심 경영전략에 관한 연구 / 최영목, 장동식, 김동겸 2008.1
2008-2 한국 보험시장과 공정거래법 / 정호열 2008.6
2008-3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자산운용 / 류건식, 이경희, 김동겸 2008.3
2009-1 보험설계사의 특성분석과 고능률화 방안/ 안철경, 권오경 2009.1
2009-2 자동차사고의 사회적 비용 최소화 방안 / 기승도 2009.2
2009-3 우리나라 가계부채 문제의 진단과 평가 / 유경원, 이해은 2009.3
2009-4 사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제고 방안 / 류건식, 이창우, 김동겸 2009.3
2009-5 일반화선형모형(GLM)을 이용한 자동차보험 요율상대도 산출방법 연구 / 기승도, 김대환 2009.8
2009-6 주행거리에 연동한 자동차보험제도 연구 / 기승도, 김대환, 김혜란 2010.1
2010-1 우리나라 가계 금융자산 축적 부진의 원인과 시사점 / 유경원, 이해은 2010.4
2010-2 생명보험 상품별 해지율 추정 및 예측 모형 / 황진태, 이경희 2010.5
2010-3 보험회사 자산관리서비스 사업모형 검토 / 진익, 김동겸 2010.7

■ 정책보고서

- 2008-2 환경오염리스크관리를 위한 보험제도 활용방안 / 이기형 2008.3
2008-3 금융상품의 정의 및 분류에 관한 연구 / 유지호, 최원 2008.3
2008-4 2009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이진면, 이태열, 신종협, 황진태, 유진아, 김세환, 이정환, 박정희, 김세중, 최이섭 2008.11
2009-1 현 금융위기 진단과 위기극복을 위한 정책제언 / 진익, 이민환, 유경원, 최영목, 최형선, 최원, 이경아, 이해은 2009.2
2009-2 퇴직연금의 급여 지급 방식 다양화 방안 / 이경희 2009.3
2009-3 보험분쟁의 재판외적 해결 활성화 방안 / 오영수, 김경환, 이종욱 2009.3
2009-4 2010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이진면, 황진태, 변혜원, 이경희, 이정환, 박정희, 김세중, 최이섭 / 2009.12
2009-5 금융상품판매전문회사의 도입이 보험회사에 미치는 영향 / 안철경, 변혜원, 권오경 2010.1
2010-1 보험사기 영향요인과 방지방안 / 송윤아 2010.3
2010-2 2011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이진면, 김대환, 이경희, 이정환, 최원, 김세중, 최이섭 2010.12
2011-1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 개선방안 / 오영수, 안철경, 변혜원, 최영목, 최형선, 김경환,

- 이상우, 박정희, 김미화 2010.4
- 2011-2 일반공제사업 규제의 합리화 방안 / 오영수, 김경환, 박정희 2011.7
- 2011-3 퇴직연금 적립금의 연금전환 유도방안 / 이경희 2011.5
- 2011-4 저출산·고령화와 금융의 역할 / 윤성훈, 류건식, 오영수, 조용운, 진익, 유진아, 변혜원 2011. 7
- 2011-5 소비자보호를 위한 보험유통채널 개선방안 / 안철경, 이경희 2011. 11
- 2011-6 2012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윤성훈, 황진태, 이정환, 최원, 김세중, 오병국 2011. 12
- 2012-1 인적사고 보험금의 지급방식 다양화 방안 / 조재린, 이기형, 정인영 2012. 8
- 2012-2 보험산업 진입 및 퇴출에 관한 연구 / 이기형, 변혜원, 정인영 2012. 10
- 2012-3 금융위기 이후 보험규제 변화 및 시사점 / 임준환, 유진아, 이경아 2012. 11
- 2012-4 소비자중심의 변액연금보험 개선방안 연구: 공시 및 상품설계 개선을 중심으로 / 이기형, 임준환, 김해식, 이경희, 조영현, 정인영 2012. 12
- 2013-1 생명보험의 자살면책기간이 자살에 미치는 영향 / 이창우, 윤상호 2013. 1
- 2013-2 퇴직연금 지배구조체계 개선방안 / 류건식, 김대환, 이상우 2013. 1

■ 경영보고서

- 2009-1 기업휴지보험 활성화 방안 연구 / 이기형, 한상용 2009.3
- 2009-2 자산관리서비스 활성화 방안 / 진익 2009.3
- 2009-3 탄소시장 및 녹색보험 활성화 방안 / 진익, 유시용, 이경아 2009.3
- 2009-4 생명보험회사의 지속가능성장에 관한 연구 / 최영목, 최원 2009.6
- 2010-1 독립판매채널의 성장과 생명보험회사의 대응 / 안철경, 권오경 2010.2
- 2010-2 보험회사의 윤리경영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 오영수, 김경환 2010.2
- 2010-3 보험회사의 퇴직연금사업 운영전략 / 류건식, 이창우, 이상우 2010.3
- 2010-4(1) 보험환경변화에 따른 보험산업 성장방안 / 산업연구실, 정책연구실, 동향분석실 2010.6
- 2010-4(2) 종합금융서비스를 활용한 보험산업 성장방안 / 금융제도실, 재무연구실 2010.6
- 2010-5 변액보험 보증리스크 관리연구 / 권용재, 장동식, 서성민 2010.4
- 2010-6 RBC 내부모형 도입방안 / 김해식, 최영목, 김소연, 장동식, 서성민 2010.10
- 2010-7 금융보증보험 가격결정모형 / 최영수 2010.7
- 2011-1 보험회사의 비대면채널 활용방안 / 안철경, 변혜원, 서성민 2011.1
- 2011-2 보증보험의 특성과 리스크 평가 / 최영목, 김소연, 김동겸 2011.2
- 2011-3 충성도를 고려한 자동차보험 마케팅전략 연구 / 기승도, 황진태 2011.3
- 2011-4 보험회사의 상조서비스 기여방안 / 황진태, 기승도, 권오경 2011. 5

- 2011-5 사기성클레임에 대한 최적조사방안 / 송윤아, 정인영 2011. 6
- 2011-6 민영의료보험의 보험리스크 관리방안 / 조용운, 황진태, 김미화 2011. 8
- 2011-7 보험회사의 개인형 퇴직연금 운영방안 / 류건식, 김대환, 이상우 2011. 9
- 2011-8 퇴직연금시장의 환경변화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운영방안 / 김대환, 류건식, 이상우 2011. 10
- 2012-1 국내 생명보험회사의 기업공개 평가와 시사점 / 조영현, 전용식, 이해은 2012. 7
- 2012-2 보험산업 비전 2020 : ㉠ sure 4.0 / 진익, 김동겸, 김혜란 2012. 7
- 2012-3 현금흐름방식 보험료 산출의 시행과 과제 / 김해식, 김석영, 김세영, 이해은 2012. 9
- 2012-4 보험회사의 장수리스크 발생원인과 관리방안 / 김대환, 류건식, 김동겸 2012. 9
- 2012-5 은퇴가구의 경제형태 분석 / 유경원 2012. 9
- 2012-6 보험회사의 날씨리스크 인수 활성화 방안: 지수형 날씨보험을 중심으로 / 조재린, 황진태, 권용재, 채원영 2012. 10

■ 조사보고서

- 2008-1 보험회사 글로벌화를 위한 해외보험시장 조사 / 양성문, 김진억, 지재원, 박정희, 김세중 2008.2
- 2008-2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도입에 대응한 장기간병보험 운영 방안 / 오영수 2008.3
- 2008-3 2008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안철경, 기승도, 이상우 2008.4
- 2008-4 주요국의 보험상품 판매권유 규제 / 이상우 2008.3
- 2009-1 2009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안철경, 이상우, 권오경 2009.3
- 2009-2 Solvency II의 리스크평가모형 및 측정방법 연구 / 장동식 2009.3
- 2009-3 이슬람 보험시장 진출방안 / 이진민, 이정환, 최이섭, 정중영, 최태영 2009.3
- 2009-4 미국 생명보험 정산거래의 현황과 시사점 / 김해식 2009.3
- 2009-5 헤지펀드 운용전략 활용방안 / 진익, 김상수, 김종훈, 변귀영, 유시용 2009.3
- 2009-6 복합금융 그룹의 리스크와 감독 / 이민환, 전선애, 최원 2009.4
- 2009-7 보험산업 글로벌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 / 서대교, 오영수, 김영진 2009.4
- 2009-8 구조화금융 관점에서 본 금융위기 분석 및 시사점 / 임준환, 이민환, 윤건용, 최원 2009.7
- 2009-9 보험리스크 측정 및 평가 방법에 관한 연구 / 조용운, 김세환, 김세중 2009.7
- 2009-10 생명보험계약의 효력상실 · 해약분석 / 류건식, 장동식 2009.8
- 2010-1 과거 금융위기 사례분석을 통한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전망 / 신중협, 최형선, 최원 2010.3
- 2010-2 금융산업의 영업행위규제 개선방안 / 서대교, 김미화 2010.3
- 2010-3 주요국의 민영건강보험의 운영체제와 시사점 / 이창우, 이상우 2010.4

- 2010-4 2010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변혜원, 박정희 2010.4
- 2010-5 산재보험의 운영체계에 대한 연구 / 송윤아 2010.5
- 2010-6 보험산업 내 공정거래규제 조화방안 / 이승준, 이종욱 2010.5
- 2010-7 보험종류별 진료수가 차등적용 개선방안 / 조용운, 서대교, 김미화 2010.4
- 2010-8 보험회사의 금리위험 대응전략 / 진익, 김해식, 유진아, 김동겸 2011.1
- 2010-9 퇴직연금 규제체계 및 정책방향 / 류건식, 이창우, 이상우 2010.7
- 2011-1 생명보험설계사 활동실태 및 만족도 분석 / 안철경, 황진태, 서성민 2011.6
- 2011-2 2011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김대환, 최원 2011.5
- 2011-3 보험회사 녹색금융 참여방안 / 진익, 김해식, 김혜란 2011.7
- 2011-4 의료시장변화에 따른 민영실손의료보험의 대응 / 이창우, 이기형 2011.8
- 2011-5 아세안 주요국의 보험시장 규제제도 연구 / 조용운, 변혜원, 이승준, 김경환, 오병국 2011.11
- 2012-1 2012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황진태, 전용식, 윤상호, 기승도, 이상우, 최원 2012. 6
- 2012-2 일본의 퇴직연금제도 운영체계 특징과 시사점 / 이상우, 오병국 2012.12
- 2012-3 솔벤시 II 의 보고 및 공시 체계와 시사점 / 장동식, 김경환 2012.12

■ 영문발간물

- 10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8 / Korea Insurance Research Institute, 2008.9
- 11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9 / Korea Insurance Research Institute, 2009.9
- 12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0 / Korea Insurance Research Institute, 2010.9
- 13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1 / Korea Insurance Research Institute, 2011.9
- 14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2 / Korea Insurance Research Institute, 2012.9

■ CEO Report

- 2008-1 자동차보험 물적담보 손해율 관리 방안 / 기승도 2008.6
- 2008-2 보험산업 소액지급결제시스템 참여 관련 주요 이슈 / 이태열 2008.6
- 2008-3 FY2008 수입보험료 전망 / 동향분석실 2008.8
- 2008-4 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의 영향과 보험회사 대응과제 / 류건식, 서성민 2008.12
- 2009-1 FY2009 보험산업 수정전망과 대응과제 / 동향분석실 2009.2
- 2009-2 퇴직연금 예금보험요율 적용의 타당성 검토 / 류건식, 김동겸 2009.3
- 2009-3 퇴직연금 사업자 관련규제의 적정성 검토 / 류건식, 이상우 2009.6
- 2009-4 퇴직연금 가입 및 인식실태 조사 / 류건식, 이상우 2009.10
- 2010-1 복수사용자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및 보험회사의 대응과제 / 김대환, 이상우,

- 김혜란 2010.4
- 2010-2 FY2010 수입보험료 전망 / 동향분석실 2010.6
- 2010-3 보험소비자 보호의 경영전략적 접근 / 오영수 2010.7
- 2010-4 장기손해보험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보험금 지급심사제도 개선 / 김대환, 이기형 2010.9
- 2010-5 퇴직금 중간정산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 류건식, 이상우 2010.9
- 2010-6 우리나라 신용카드시장의 특징 및 개선논의 / 최형선 2010.11
- 2011-1 G20 정상회의의 금융규제 논의 내용 및 보험산업에 대한 시사점 / 김동겸 2011.2
- 2011-2 영국의 공동계정 운영체제 / 최형선, 김동겸 2011.3
- 2011-3 FY2011 수입보험료 전망 / 동향분석실 2011.7
- 2011-4 근퇴법 개정에 따른 퇴직연금 운영방안과 과제 / 김대환, 류건식 2011.8
- 2012-1 FY2012 수입보험료 전망 / 동향분석실 2012.8
- 2012-2 건강생활서비스법 제정(안)에 대한 검토 / 조용운, 이상우 2012.11
- 2012-3 보험연구원 명사초청 보험발전 간담회 토론 내용 / 윤성훈, 전용식, 전성주, 채원영 2012.12
- 2012-4 새정부의 보험산업 정책(Ⅰ): 정책공약집을 중심으로 / 이기형, 정인영 2012.12
- 2013-1 새정부의 보험산업 정책(Ⅱ):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경감제 정책에 대한 평가 / 김대환, 이상우 2013. 1

■ Insurance Business Report

- 26호 퇴직연금 중심의 근로자 노후소득보장 과제 / 류건식, 김동겸 2008.2
- 27호 보험부채의 리스크마진 측정 및 적용 사례 / 이경희 2008.6
- 28호 일본 금융상품판매법의 주요내용과 보험산업에 대한 영향 / 이기형 2008.6
- 29호 보험회사의 노인장기요양 사업 진출 방안 / 오영수 2008.6
- 30호 교차모집제도의 활용의향 분석 / 안철경, 권오경 2008.7
- 31호 퇴직연금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영향과 대응과제 / 류건식, 김동겸 2008.7
- 32호 보험회사의 헤지펀드 활용방안 / 진익 2008.7
- 33호 연금보험의 확대와 보험회사의 대응과제 / 이경희, 서성민 2008.9

※ 2008년 이전 발간물은 보험연구원 홈페이지(<http://www.kiri.or.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기간행물

■ 간행물

- 보험동향 / 계간
- 보험금융연구 / 연 4회

『 도서 회원 가입 안내 』

회원 및 제공자료

	법인회원	특별회원	개인회원
연회비	₩ 300,000원	₩ 150,000원	₩ 150,000원
제공자료	- 연구보고서 - 정책/경영보고서 - 조사보고서 - 기타보고서 - 정기간행물 · 보험금융연구 · 보험동향	- 연구보고서 - 정책/경영보고서 - 조사보고서 - 기타보고서 - 정기간행물 · 보험금융연구 · 보험동향	- 연구보고서 - 정책/경영보고서 - 조사보고서 - 기타보고서 - 정기간행물 · 보험금융연구 · 보험동향
	- 본원 주최 각종 세미나 및 공청회 자료(PDF) - 영문보고서	-	-

※ 특별회원 가입대상 :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공도서관 및 대학도서관

가입문의

보험연구원 도서회원 담당

전화 : (02)3775-9113, 9080 팩스 : (02)3775-9102

회비납입방법

- 무통장입금 : 국민은행 (400401-01-125198)

예금주 : 보험연구원

가입절차

보험연구원 홈페이지(www.kiri.or.kr)에 접속 후 도서회원이가입신청서를 작성·등록 후 회비입금을 하시면 확인 후 1년간 회원자격이 주어집니다.

자료구입처

서울 : 보험연구원 보험자료실, 교보문고, 영풍문고, 반디앤루니스

부산 : 영광도서

『보험동향』 2012년 겨울호 (통권 64호)

발행일	2013년 1월
발행인	김 대 식
발행처	보 험 연 구 원
주 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4
연락처	02-3775-9000
인쇄소	경성문화사 / 02-786-2999

파본은 교환해 드립니다.

본 자료에 실린 내용에 대한 문의는 보험연구원의
동향분석실(☎3775-9057, 3775-9059)로 연락하여 주십시오.